



1

1986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6. 1호

(루게 459)



◆◆◆◆◆◆◆◆◆◆

차 례

◆◆◆◆◆◆◆◆◆◆

설날의 축원	4
삼지연의 별무리	5
송가	6
금골의 시내가에서	7
하늘에서 절하노라 (외 2 편).....	8
옥류동 벽계수	8
묘향산에 불이 불네	8
평양의 밤.....	9
우산을 쓰고 금강산에 노닐다.....	9
조선의 사과	10
아버지	10
자매도에서	10
줄업식	11
날려라, 영광의 기발이여	12
혁명적수령관과 주체형의 인간성격 발전과정.....	13
시료철	19
령마루에서 령마루에로	20
설날아침에	23
그의 말	24
평양행 급행열차에서	25

고향아!	35
조선, 그 이름은	36
붉은넥타이 시절	37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	38
빛나는 삶	40
제 2의 벗	44
나의 철갑모	53
분옥이	54
용해공의 아들	62
우리의 하루	63
사돌공 (외 1 편)	64
양식공	65
직포공처녀	65
열정	66
탄부, 그대 이름은... ..	67
형상적비유를 독특하고 진실하게	68
승강기 내려가네	73
백두산을 내리며	74
간절한 소원	74
철의 도시의 밤	75
민족의 슬기와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76
통일문	78
세월과 혈육	79
너도 길이 막혀 슬피 우느냐	79
둘밖에 모르는 전두환	80

설날의 축원

한원희

설날의 첫 해빛은
강산을 붉게 물들이고
새해의 첫날 첫 생각은
가슴에 뜨거이 젖어드네

또 한해
우리 수령님 열어주신 새해여서
마음도 새로와
감격도 새로와

꽃바구니를 안고
축원을 안고
만수대언덕을 향해
이해의 첫아침 첫 발자국을
사람들은 옮겨가네

이해에도
이 새해에도
어버이수령님 높이 모셔갈
그 진정이 어려 아름답고
그 소원이 피어 향기 그윽한
축원의 꽃바구니

이 꽃바구니 드리고
큰절을 올리며
우리 수령님
만년청춘으로 계시옵기를
간절히간절히 바라는 마음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젊음을 다 기울이시며
이 땅에 안아오신
그해와 해들에

행복한 나이를 먹으며 자라난
우리 인민
우리 조국

해마다
해마다
새해가 돌아오면
그이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이
설날의 흰눈처럼 깨끗해
설날의 노을처럼 간절해

농사를 지어도
수령님 위해
쇠물을 끓여도
그이께 드릴 기쁨 위해
수천수만인민이
수천수만가지 일을 해도
그 언제나 한마음
세세년년을 빛내여왔건만

그모두
인민의 행복한 세월로
되돌려주시고
그모두
조국의 찬란한 력사로
만방에 펼쳐주신 그 사랑

얼마나 고마움에 목이 메어
천지를 진감시키었던가
지난해 8월의 대축전장에
수령님 높이 모시고
40여년을 자라난 아들딸들이
감격을 터뜨리며

보무당당히 굶이쳐간
열병대오의 그 환호성

그것은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였고
수령님 따라 끝까지 가고갈
불타는 맹세의 함성이였고
그것은 하루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끝없는 소원이 아니었던가

하건만 휴식도 없이
또다시 풍랑사나운 남포갑문을 찾으시여
마지막 완공의 어려움도 풀어주시며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

아, 이해에는
이 새해에는
만시름 다 놓으시고
인민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삼가 눈시울 뜨거이 바라는 마음

꽃바구니에 다 피워안고
새해의 첫날
첫 발자국을 뜻깊이 새기며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시여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여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부디 만수무강하시라!

삼지연의 별무리

로용렬

밀림의 고요속에
호심가득 별무리 안고
잠 못드는 삼지연아
너 품에 안은 그 별들을 두고
무엇인가 속삭이는것 같구나!

그것이 아닐가, 네가 품은 별들은
항일의 그날 유격대원들
머리속여 너의 밝은 물 떠마실 때
군모우의 별들이 쏟아져
고이 간직된것이

그 별 너무도 소중한여
한점 티라도 앓을세라
너는 설레는 물결로
쉽없이 닦고닦는것 아니냐

아, 생각많은 삼지연의 별무리
그래서 너의 밝은 빛 어려
조선의 밤하늘에는
저렇게 별들이 빛나는것이구나!

송가

구희철

축복의 꽃보라인가
흰눈이 송이송이 내려라
간해의 추억을 부르며
온해의 희망을 안겨주며...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으로
가늠할수도 재일수도 없는
그런 한해가 조국땅우에 흘러갔어라

경사로운 40췌의 날과 날
환희로운 마음들에
하나로 얹혀 흘러간
생각많은 또 한해!

열병대오가 흘러간

김일성광장우엔

그날의 꽃보란듯 흰눈은 내리고

친애하는 그이를 모셨던
남포갑문 건설장
언제를 걸으시고 갑실을 찾으신
그 자욱우에도 흰눈은 내리이라

하늘을 좁히고 땅을 넓히며
새로 일어선 창광거리의 높은 집들
웃음소리 노래소리 흘러나오는

그 천만창가에도 부러운듯 눈은 내려라

다시 밝아온 새해
무엇을 보고 생각해도
시작하여 끝나는것은
아, 친애하는 그이의 그 사랑 그 은정뿐

조국성전에 한목숨 고결히 바치고
먼저 간 투사들을 되살려
생존의 모습대로 세워주시고
혁명의 붉은기폭에 감싸주신 그이

친애하는 그이 손들어가리키시던
수평선 아득히 바다를 밀어내며
얼마나 더 넓어졌는가
간석지의 새땅은...

그이 불러주신
북부철길 건설장
천년 잠자던 산악에 발파소리 울리며
얼마나 새 철길구간은 더 멀리 뻗어갔는가

그 어느 하루를 두고 생각하고
그 어느 한순간을 생각해도
사랑의 자욱마다 씨앗을 뿌리시고
창조의 열매를 걸음마다 영글리신 그이

친애하는 그이의 예지로운 빛발
친애하는 그이의 자옥자옥으로
이어지고 흘러간 한해여서
더듬는 마음 이처럼 뜨겁던가

그이 하시는 한순간의 사색에
세월도 자기의 흐름을 아끼고
그이 걸으시는 한걸음엔 천년이 담겨져
조국의 빈공간엔 억만재부가 없혀라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향도의 해발아래
삶이 꽃피고
락원이 번성하는 우리 조국은

한해가 가고 새해가 와도
인민이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만년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바라는 마음뿐...

금골의 시내가에서

한정규

작은 시내 맑은 물
금골의 새 마을에 흐르오
흐르는 내가에 그림처럼 앉아
제대군인 새각시 빨래를 하오

하얀 비누거품
물위에 둥-둥-
빨래방치 사랑사랑
남편의 어제날 병사복을 빨고있소

땀배이고 돌가루에 젖은 옷
이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 쇠돌을 캧으랴
얼마나 큰 기쁨 당에 드렸으랴

어머니에게서 빨래법 배워
이런 귀한 옷은 처음 빠는듯
맑은 물에 헹그고 또 헹그오
하루에 열번 빨면 힘이 들겠소

광부- 좋은 사람 만나
금골- 좋은곳에 뿌리내렸으니
쇠돌가정 꽃피갈 새각시의 꿈이
봄꽃처럼 피어나오 금골의 시내가에서

하늘에서 절하노라 외 2편

(중국) 김성휘

산맥을 날아 평원을 날아
구름길 만리 창창한 운해
마음앞서 날아날아 가는곳
아침의 나라 평양

오매에도 그리던고장
인사를 받아다오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겨
쪽바가지 차고 류랑떠난 할아버지 후손
두손 모아 하늘에서 절하노라

푸른 하늘 빛나는 평양
해빛 받아 무르익는 산야에
갈매기 날아에는 자유론 바다에
형제여, 당신들 문지방에 절하노라

목이 메여 말 못할 눈물의 상봉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기뻐서
해를 우러러 옷깃을 여미고
하늘에서 절하노라절하노라

1985. 9. 13
비행기에서

옥류동 벽계수

옥류동
벽계수
맑은 물을
찬찬히 들여다보셨나요

조선의
결백한 마음
비껴흐르웁니다

옥류동 벽계수
다급한 흐름을
조용히 귀기울여
들으시나요들으시나요

조선의
천리마
발구름소리
들려웁니다

옥류동
벽계수
천길벼랑
내리뛰며

목메게
부르짖는
저기 저
끝은 소리
들으시지요

통일!
통일!
통일!
부절히 웨치웁니다

1985. 9. 19
금강산에서

묘향산에 불이 불네

묘향산에 불이 불네 불이 불네
빨강게 빨강게 불는 불은
해빛받아 타오르는 해의 불길
이 나라 9월을 붉게도 태우네

구름 덮인 하늘아래 천년을
해 없어 못타던 산불이
해를 안고 별을 안고

범왕봉가슴우에 활활 타오르네

산우에 산 산안에 물
불불는 산 불불는 물
벼랑가에 불는 불은 숲의 타는 마음
불속에 불는 불은 벼랑의 웃는 웃음
불과 물이 이어지고
해와 땅이 마주웃는 불불는 나라

해빛 타는 강산
나라의 한가슴에 붉은 메달 달아준
9월의 단풍은 마음에 타는 불길

삼천리 이 강산을 하나로 불붙일
해의 뜨거운 마음을 받아

묘향산에 불이 붙네 단풍이 타네
붉게 붉게 타네

1985. 9. 27
법왕봉아래서
(필자는 중국작가대표단 성원임)

평양의 밤

(중국) 랑남
역 배민옥

웅장한 건물들을 안고선 평양
저 아득한 지평선까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활짝 열려진 수억만의 창문들
모든것은 짙은 황혼속에 잠기고
어둠은 한결음한결음 서려오누나

너 기쁨과 환희에 찬 감격의 세계여
몇천가지 빛갈로 이루어졌거나
멀리 뻗은 불빛은 거리는
오색찬연한 거리들과 잇닿아있고
내 마음 사로잡는 칠색무지개 불빛은
방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포런듯
무수한 꽃보라되어 부서지는듯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눈길마다에 비쳐드누나

집집의 란간들은 무르익은 파원인듯
상점의 문전들은 만발한 꽃밭인듯
불빛은 다층주택 지붕우엔 꽃배들이 노를 젓는듯
아름다운 밤새는 아득한 하늘에서 날아내리고...

아, 지칠줄 모르는 평양의 밤이여
그대는 찬란한 빛발속에서 미소하거늘
승리자의 그 모습으로
빛나는 야광속에서 의젓이
래일의 러명을 맞아오누나

우산을 쓰고 금강산에 노닐다

흘날리는 비발은 금강에 내립니다
바위우에 뿌리내린 나무우에도 활짝 핀 꽃에도
개울물에도
구름을 떠인 천길 벼랑끝에도
끝간데 없이 펼쳐진 대지우에도

누가 비안개를 뿌려주느냐, 그 누가 바람과
속삭이느냐
바람은 비안개를 몰아오고 비안개는 산천을
미역감기고...
비방울은 우산더러 물어봅니다 《그래, 어때냐?》
우리가 대답하면 그 소리에 산발들이 화답합니다,
메아리로...

걸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절경
개울물도 신비로움 더해주는데
바람은 급급히 그림을 그려가며

산발들을 이끌고 우리를 따라섭니다

흰폭포 붉은 다리 하늘색 란간
앞을 다투어 그 자태를 펼쳐가는데
문득 장엄한 폭포앞에 멈춰선 산발들
우리와 눈길만 마주칩니다

경탄에 싸여 숲을 지나 산상에 오르니
높이 솟은 기암절벽 하나 둘 키 낮춥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모든것 깨끗한 풍채돋우고
아릿다운 그 전경 한눈에 펼쳐줍니다

비는 내리고내려 내 마음에도 고입니다
마음속 추억의 배전에도 차고넘칩니다
산들은 즐거운 등산길 재촉하고
펼쳐든 우산들은 산아래 산우에서 언듯언듯
보입니다

조선의 사과

상우에 놓여있는 사과 한접시
가을날의 풍요함을 말해주누나
붉고붉은 사과야
어제날엔 너인의 손에 들려
이국의 광고판에서 수치스럽게 얼굴 붉혔고
하늘을 뒤덮은 총포탄의 불길속에서는
희망을 안고 자라던 너
한밤 사이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침략자의 무덤앞에는
한알의 조선사과도 놓이지 않았다
(사과 한알을 떨어뜨린자는
탄알 한알을 선사받았으리)

조선의 사과야 조선의 사과야
이 땅에서 불벼락을 맞은
미제와 15개 추종국가 강도들

《함정골》에 처박힌 더러운 녀를
너의 락엽으로 여지없이 뒤덮어버리라
용서 못할 치욕의 나락속에 묻어버리라

조선의 사과
너는 절대로 침략자들이 맛볼수 없으며
다만 친절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친선의 다반과 식탁우에만 오르리
(필자는 중국작가대표단 성원임)

아버지

김일규

수집을 타는 안해의 품에서
첫 아기를 안아보며
이내 기쁨 샘솟게 하던것은
나를 꼭 닮은 그 맑은 눈동자

휴일의 유보도
애어린 잔디밭에 첫걸음마떼는
아기의 그 아장걸음에서
내 은근히 기대했던것
나를 꼭 닮을 그 걸음걸이...

커가는 아들의 모습에서
재우쳐걸는 나의 걸음걸이를 볼 때
더더욱 생각났던 밤이여

내 무심히 들은적은 없던가
아버지란 그 부름을

아버지-
누구나 쉬이 지닐순 있어도
시대앞에 아들은
개인의 대가 아니거늘

아버지를 쳐다보는
아기의 맑은 눈동자는
시대의 깨끗한 녀를 이어받자함이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걸음걸이는
조국앞에 떳떳한 한모습을
후세에 이어가자함이기여

자매도에서

강남섭

섬이라 찾아오니
기슭엔 파도소리 높은데
섬 한복판엔
섬을 흔드는 폭음소리 또한 높아

방금 직승기가 뜨고있구나

바람을 휘꺾어올리며...
아이들이 탔구나
어데론가 높이 떠날으누나

부럽구나 나도 너희처럼 너희처럼
이 섬의 아이가 되어

학교길 전학길 그 어데건
 푸른 바다 굽어보며 날고싶구나

아이들아, 시창에 얼굴들을 내보여라!
 저 돌아가는 프로페라는
 너희 가슴에 펄럭이는 넥타이나
 저 동체에 새겨진 오각별은
 그대로 너희들의 희망이나

웃어라 활짝 웃어라!
 나라의 기쁨이 너희로되
 나라의 장관도
 사랑의 화신도 너희로구나

그렇구나, 이 세상엔 너희만이
 하늘에도 학교길이 있고
 너희만이 새처럼
 하늘과 바다 사이를 날을수 있고

아, 신비로워라
 하늘의 학교길이 신비로워라!
 어떻게 이 땅에선
 하늘도 비행기도 모두
 아이들의것으로 되는가!

손을 흔들며 손을 흔들며
 내 마음도 함께 실어보노라니
 눈앞은 뿌옇게 흐려오고 가슴터질것만 같아
 내 지금 선곳 그 어데인가?

정녕 조국땅 기슭은 있어도
 사랑의 기슭은 이 땅엔 없구나
 그래서 예가 섬인가 하면
 물이런듯싶고
 물인가 하면 조국땅 한복판인듯싶어

날으라, 사랑의 해발을 안고-
 향도의 해발을 따라 날으라!
 노을처럼 피어나는
 조국의 환한 웃음이 되여...

진정 친애하는 그이의 사랑
 땅에도 바다에도 넘쳐나
 구만리 하늘끝에 닿았구나
 아, 조국의 저 하늘은
 축복받은 아이들을 위해 열려있어
 저렇듯 푸르른 청청 하늘이구나!

졸업식

강남섭

등대탑 나란히 선 분교-
 강당은 따로 없어도 좋았구나
 졸업식을 한다고
 온 섬마을사람들이 다 모인 교실

물에서도 간부들이 왔다
 갈매기들도 창밖에 날아들었다
 철썹 처절썹-
 기슭엔 파도소리도 높았다

졸업생은 한명,
 분교가 생겨 첫졸업식-
 그래서 그렇듯 감격은 컸던가
 기쁨일랑 또한 끝없었던가

마지막 과정안이 끝난 날을

졸업날로 안들 어떠랴만
 입학식이 있듯이
 졸업식도 꼭 있어야 한다신

아, 지도자동지의 그 말씀!
 새기면 새길수록 목메이는가
 한명의 졸업생을 앞에 앉히고
 졸업축사를 읽을 때

그이의 영상 우러러
 졸업생도 울고
 담임교원도 울고
 등대원들모두가 다 울고-

어찌 알았으랴
 꿈엔들 졸업식을 생각이나 했으랴

오직 한분 그이께서만이
조국땅 섬가에 꽃망울로 피어난
그 한떨기 향기도 알아보셨거니

뜨거워 그 은정 뜨거워!
바로 그같은 위대한 품이 있어
외진 등대섬에도 물처럼
한날에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은 있어

한생의 추억으로 남은 졸업식도 있어

아 우리의 미래앞에는
어머니당이 주는
사랑의 그 모든 시간과 생활이 다 있어!
조국의 앞길에는
영원한 행복의 꽃바다가 설레고있어!

날려라, 영광의 기발이여

최장수

꼬리길게 편성된 열차를 물고
방금 기적소리 울리며 달릴듯
출발신호만 기다리는
《붉은기》호 전기기관차

이마에 밝은 해살을 뿌리며
파도치는 기폭앞에
내 나설 때면
이 가슴에 출렁 물결이 이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어
이 땅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따아들》전기기관차가 태어나던 날

이 땅에서
자력갱생의 본보기
첫 기적소리 터뜨리던 날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네 이름 《붉은기》라 지어주셨나니

화전에서 높이 추켜드시고
백두밀림에 활짝 펼친 그 기발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 천만리
피바다를 헤쳐 수천수만리
진두에 나뭇길 혁명의 상징이여

항일의 간고한 나날에
그 기발아래
천만대오가 하나로 뭉쳐
위대한 장군님을 옹위했거니

투사들의 뉘이 어려서인가
승엄히 이 가슴에 흐르는 숨결이여

오! 혁명의 숭고한 뜻
불굴의 그 정신 영원히
빛내여주시려는 수령님
그사랑 그 믿음 안고
오늘은 조국의 궤도우에
거센 흐름이 되어 날리거니

세차게 휘날려라 붉은기여
우리 마음 하나로 이끌어
창조와 혁신의 새 기적 창조예로!
혁명의 주인을 부르며

더 높이 휘날리여라
철의 도시 지붕우에 붉은 노을을 펼치며
푸르려 설레이는 넓은 벌을
찬란한 노을로 물들이며

가자 《붉은기》전기철마여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기적소리, 진군의 우뢰
대진군의 우뢰되어
불바람을 일으키며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손길따라!
당중앙이 추켜든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따라!
노을이 불타는 공산주의 불언덕으로
펼 펼쳐 휘날리며 달려가자
영광의 《붉은기》호여!

혁명적수령관과 주체형의 인간성격 발전과정

명일식

주체형의 인간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주체시대의 새형의 인간으로서 주체의 혁명문학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새로운 주인공이다.

주체의 혁명문학의 새 주인공인 주체형의 인간의 성격발전과정을 그리는데서 무엇을 핵으로 하여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것은 새로운 해결을 기다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잘 그리자면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그리는데서 근본문제로 된다.

그것은 우선 혁명적수령관이 주체형의 인간의 사상정신적핵으로 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삼고있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표징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적수령관을 바탕으로 하여 주체형의 인간의 고상한 공산주의적품모와 모든 아름다운 사상정신적특질이 발현되게 된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수령관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바로 혁명적수령관을 철저히 체현하고있는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의 성격적핵이 있고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의 원천이 있다.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잘 그리는데서 근본문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주체문학의 교양적사명을 훌륭히 다할수 있게 하는 매우 절실한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도 사회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위업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고상한 품모와 자질을 갖춘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인간개조사업이며 사회개조사업이다.

이 역사적위업은 사람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혁명적수령관이 가장 확고히 선 공산주의자들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수령관이 확고히 선 혁명가들로 준비될 때 수령의 혁명위업으로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길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사업은 이처럼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중요한 요구이며 그 성과적실현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온 사회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중국적으로 완성하며 주체위업의 세계사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는 우리 혁명문학에서 혁명적수령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데서 가장 절박한 요구로 근본문제로 제기하고있다.

혁명문학건설에서 사람들의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잘 그릴 때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수행에 힘있게 이바지하는 혁명문학으로서의 자기의 교양적사명을 훌륭히 다할수 있다.

오늘 우리 문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는데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으며 공산주의인간학의 빛나는 새장을 펼쳐나가게 되었다.

주체의 혁명문학에서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에 맞게 잘 그리어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처지와 사상의식수준에 따라서 각이하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제1부와 제2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높이 모신 김혁, 차광수의

경우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인 예술영화 《유격대 오형제》에서 편대장의 경우가 같지 않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장편소설 《너당원》의 주용녀와 전후시기 생활을 반영한 작품인 장편소설 《축원》의 한씨, 그리고 예술영화 《혁명가》의 최현이와 오늘날의 숨은 영웅들의 경우도 다 다른것이다.

김혁, 오준혁, 용녀, 한씨, 최현의 경우들과는 또 다르게 지난날 세상풍파와 진흙탕 속에서 오염되어 뜻을 꺾고 타락하였던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고 그이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뵙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와 또 다른것이다.

이처럼 각이한 인간들의 처지와 성격발전과정에 알맞게 그들의 혁명적수령관형성과정을 잘 그리자면 그 어느 경우이든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과정부터 잘 그리어야 한다.

왜냐 하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하는것이 혁명적수령관형성의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서 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입니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형성된다.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것을 알아야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며 수령을 마음의 기둥으로 생명선으로 삼고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나가게 된다.

문학작품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잘 그리자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싹트는 과정부터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의 감정은 사람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의 심장속에 깊이 체득할 때 스스로 생겨나고 높이 발현되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을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을 통하여 형상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시라는것을 주인공의 운명문제를 놓고 운명선상에서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는 과정으로, 생활적으로 잘 그리는것이다.

세상만물이 태양의 빛발속에서만 살수 있듯이 인간은 수령의 품속에서만 참된 삶을 가질수 있다.

수령의 품이 없이는 누구나 사람으로 세상에

태여났어도 참된 삶을 누릴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할뿐아니라 그들의 장래운명도 결정한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수령을 모시지 못한것으로 하여 조국도, 언어도, 자기들의 이름마저 다 빼앗기고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고초를 겪어왔다.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오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주체조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인민으로 되였다.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에게 새삶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주인공들이 자기의 운명선에서 극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깨끗한 마음이 샘처럼 솟아 어떻게 수령의 위대성을 가슴속깊이 인식하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줄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에서 국제공산당파견원 류현민이가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심장의 끓는 피로 피력한 다음의 구절에서 볼수 있다.

《...그는 탁월한 혁명가, 정치가, 군사가이며 천재적인 예술가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증추로 하여 탁월한 리성과 다감한 감성, 철저한 원칙성과 적에 대한 비타협성, 대해같은 포용력,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예지... 이 모든 훌륭한 자질들이 결합되어 령도자로서의 그의 인격의 총체를 이루고있다.

그는 조선의 피어린 력사와 인민대중이 낸 유일무이한 결출한 령도자이다.

동지들, 놀라지 말라!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김일성** 동지는 올해 22세의 청년장군이다.》

류현민의 이 절절한 토로는 그가 근거지생활을 통하여 장군님의 위대성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심장으로 체험한데 기초하여 스스로 우리나라 다함없는 충성의 찬가이며 끝없는 존경과 열렬한 흠모의 숭고한 감정인것이다.

이 감정은 더우기 조선이 일제의 노예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노예의 쇄살을 끊어버리고 자주적인 인민으로 되느냐 하는 운명을 판가리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국제공산당파견원으로서의 그가 조선의 운명을 구원할 유일무이한 결출한 령도자를 발견한 격동적인 충격으로 하여 더 강렬하게 안겨온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속깊이 체득하는 과정을 빛나게 형상한 모범은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제1부에서 주인공 유철이의

성격발전에 대한 묘사에서 볼수 있다.

유철은 나라잃은 민족이 당하는 피눈물나는 고초를 겪으며 머슴살이를 하면서 숨막히는 망국노의 처지를 통탄하여 가슴을 찡다.

유철은 서울과 간도의 여러곳을 방황하며 폭동에도 참가하고 제노라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보았지만 걸음마다 실패하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며 뼈아픈 고통과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게 된다.

그래서 유철은 몸부림을 치며 저물어가는 밤하늘을 향해 《나에게 길을 가르쳐다오.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다오!》라고 웨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앞길은 갈수록 더 막막해지기만 하였다.

유철이가 누구보다도 애국의 열정에 불타있으면서도 이처럼 갈길 몰라 헤매며 절망에 빠지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혁명을 옳바로 령도해나갈 탁월한 수령을 만나지 못한탓이었다.

절망에 빠졌던 이러한 유철은 캄캄한 밤하늘을 밝혀주는 새벽과도 같은 탁월한 수령을 맞이하고 그의 품속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성장하게 된다.

작품은 유철이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그의 위대성을 가슴속깊이 인식하는 과정을 감명깊게 잘 보여주고있다.

유철은 지난날 길도, 불빛도 없는 거칠은 땅야를 마구 헤매다가 그처럼 갈망하며 찾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그처럼 명백하고 정확한 로선과 그처럼 위대하고 독창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신 탁월한 령도자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심장으로 깊이 느낀다.

하여 그는 심장의 뚫은 피로 《아- 태양이 솟는구나. 조선에 태양이 솟는구나-》 하고 웨치며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수령 민족의 영웅,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한다. 이런 충격적인

감동은 그 어떤 론리적사고의 귀결이나 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는 생길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오직 수령의 한없는 위대성에 스스로 매혹되고 일찌기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수 없었던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가슴깊이 뜨겁게 받아안고 새삶의 길을 찾아 인간의 심장속에서만 생겨날수 있는것이다.

생활의 체험속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해나가는 과정은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1부와 2부에서 김혁이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

김혁이는 나라잃은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처지를 통탄하며 주먹으로 술상을 내리치면서 《조신아!》하고 부르며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애국의 열정에 타 새삶의 길을 찾아 서울과 도표, 상해까지 향방없이 헤매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타

락과 절망에 빠져 나중에는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까지 한다.

이러한 김혁이가 차광수의 안내로 길림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는 순간 격동된 심장으로 이렇게 웨친다.

《아- 김성주!》

《김성주!

저분이 바로 우리 이천만겨레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회세의 영웅이시구나!

내 저분을 찾아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매었던가.》

《그렇다! 그이는 별과 같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존재, 철석의 신념을 나의 심장깊이 심어넣어준 그이는 조선의 별, 그 별을 나의 심장깊이에 새겨넣으리라! 》

김혁이가 심장속깊이 간직하게 되는 수령의 위대성은 그가 마음속으로 웨치는것처럼 가슴속에 새 우주를 받아 안은것과 같은것이였다.

이것은 빼앗긴 인간의 자주권과 누리웠던 운명을 건져주고 자주적인 인간으로 주체형의 혁명가로 태어날수 있게 새삶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의 폭발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의 위대성을 가슴속깊이 인식하는 과정은 유철이나 김혁이와는 다르게 지난날 온갖 어지러운 세상 풍파를 겪으며 진흙탕속에 오염되어 뜻을 꺾고 타락하였던 사람들의 갱생과정에서도 들수 있다.

그러한 레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으로 불리우고있는 권학식의 성격발전과정을 들수 있다.

권학식은 새로운 사상과 리념을 받아들일만한 정신적준비는 되어있으나 자기를 이끌어줄 옳바른 령도자를 만나지 못한것으로 하여 절망에 빠져 그의 넓은 송두리채 두렵게 얼어붙었다.

권학식의 가슴에 얼어붙은 이 두터운 얼음장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생활하는 과정에 완전히 풀리게 된다.

그 누구도 일찌기 지너본적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끝없이 소탈하고 인자하신 숭고한 인민적품모로 조선인민혁명군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위대성앞에서 권학식은 마침내 압혹과도 같이 온몸을 휘감았던 그 낡은 세계에서 벗어나 인생말년에 새봄을 맞이하게 되는것이다.

권학식은 수령님의 령도를 따라 생활하는 과정에 그에 대하여 더 크게 감동하며 수령님을 더욱 열렬히 존경하고 흠모하게 된다.

이것은 그 누구의 부추김이나 말을 듣고 억지로 다지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심장속깊이 느낀 감정이다.

그것은 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특색있게 잘 형상한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의 최인관의 성격발전과정과 장편소설 《압록강》에서 김정보, 박인진의 성격발전과정에서도 볼수 있다.

이러한 례들은 다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 뵈은 사람들을 형상한 경우들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와 또 다른것이다.

그들은 비록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지는 못하였지만 다같이 따사로운 태양의 빛에 의해서만 광명한 새 세계에서 살수 있듯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꽃핀 대지우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며 느끼는 감정은 다 같은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장편소설 《새봄》의 주인공 최명진이와 변귀남, 손억쇠 등 인물들의 성격형상에서 볼수 있다.

최명진, 변귀남, 손억쇠는 해방전 나라를 빼앗기고 땅이 없는 탕으로 집도 없이 노예처럼 구박받고 굶주리며 감옥살이까지 해왔다.

최명진일가는 나라없고 땅이 없는탕으로 두 아들을 《징용》으로 감옥살이로 다 빼앗기우고 보금자리마저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 신세였다.

참으로 이들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긴 하였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주권과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긴 노예였으며 짐승보다도 못한 처지에 있었다.

이것은 이들만이 아닌 나라잃은 우리 민족이 다같이 당한 피눈물나는 재난이었다.

나라없던탕으로 노예가 되었던 이들에게 과연 누가 나라를 찾아주고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인간으로 몇몇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였는가?

최명진의 운명을 건져주신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우리모두가 그러한것처럼 최명진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생명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때로부터 최명진은 감옥살이에서 해방되며 노예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최명진, 손억쇠, 변귀남이들은 비록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지는 못하였지만 자기들에게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안겨준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열렬히 흠모하는 숭고한 감정을 누구보다도 가슴속깊이 뜨겁게 받아안게 된다.

이것은 이들만이 아닌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주적인간으로 참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모두가 다같이 느끼는 숭고한 감정인것이다.

우리 문학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한마음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속

깊이 체득하는 우리 인민들의 이 숭고한 감정세계를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에 맞게 개성적으로 특색있게 그려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을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으로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생동하고 감명깊은 생활화폭으로 진실하게 그리는데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수령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감명깊은 생활감정으로 뜨겁게 안겨올 때 더 깊이 체득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진실한 생활화폭으로 빛나게 잘 형상하고있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20만의 일제대군이 사면포위한 급변한 정황앞에서 경위중대장 배정식이까지도 긴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긴장한 정세에는 전혀 무관심하신듯 지휘관들의 모임에서 군사지도대신에 한가위명절계획안을 내놓으시는것이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것은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안광으로 적들의 흉계를 미리 환히 꿰뚫어보시고 급변하는 정황속에서도 적들보다 먼저 대원들을 믿고 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보시는 수령님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전사들의 마음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대부대 선회작전》이라는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적 20만대군을 한손안에 넣고 취락파락하며 쳐몰리치시였다.

급변하는 정황속에서도 사람에 의거하여 적들보다 먼저 대원들의 힘을 보고 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난국을 헤치고 승리를 이룩하신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이 위대성, 주체의 신념과 지략은 보통 전사들은 물론 지어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있는 경위중대장 배정식이까지도 인차 알아 차리지 못하였던것이다.

생활은 그들모두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존경과 흠모의 정이 더없이 부풀어오르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열렬히 흠모하는 숭고한 감정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한대 기초하여 간직하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하고 심장속깊이 체득하는 과정은 곧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숭고한 감정을 가지는 과정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그리는것은 성격장성의 어느 한단계에서 머무르거나 끝날수 없으며 주인공들의 혁명적수령관형성의 전과정에 다 그러쳐야 할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이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가슴속 깊이 인식하는 과정은 각이한 인간성격의 특성에 맞게 그리면서도 인간성격발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일관하게 그려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자면 다음으로 수령을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 인생관으로 확고히 굳어지는 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은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진 참다운 혁명가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함을 모르고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할수 있다.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충성심만이 어떤 가식도 없이 순결한 량심으로 수령을 높이 모시는 참다운 충성심으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충성심으로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참다운 인생관을 가지고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체형의 혁명가는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야 하는가는 하나로 통일되어있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인생관을 가질수 있다. 인생관으로 확고히 굳어진 이러한 수령관은 세상에서 가장 위력한 힘을 가진다.

따라서 주체형의 혁명가는 혁명적수령관으로 확고히 굳어진 인생관을 가질 때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을 주인공으로 하고있는 우리 문학에서 인생관으로 굳어진 수령관을 가진 인간성격을 창조하자면 그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위대한 수령님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는 과정으로 잘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한다는것은 자신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수령관으로 든든히 무장하자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열렬하게 호모할뿐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여야 한다.

사람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이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는 데서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과

관련되어있기때문이다.

자기와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할만한 믿음직한 담보가 없이는 그 누구도 말할수 없는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인간의 운명은 그 어떤 물질적재부나 권력이 아니라 사상적신념에 기초할 때라야만이 영원한 것으로 되며 진실로 담보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모든것을 의탁하는것은 천만금의 재물이나 그 어떤 권력파도 대비조차 할수 없는 가장 위력한 정신적인 마음의 담보인것이다.

사람이 공기와 물이 없이는 순간도 살수 없는 것처럼 혁명가는 수령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 자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여야 한다. 때문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체현한 혁명전사의 자각은 의무이기전에 량심이고 의지이며 신념인것이다.

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정신적인 담보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를 모래알같은 존재로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수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정신적인 담보를 가지기만 하면 자신을 우주우에 올라선 거인과도 같이 생각하게 된다.

김혁이가 위대한 수령님을 한없이 높이 우러르며 《내 꺼꾸러져 혁명을 더 못하게 된다 한들 한별혁명전사는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정신적인 담보를 가지지 못하면 자기를 모래알같은 존재로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수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정신적인 담보를 가지기만 하면 자신을 우주우에 올라선 거인과도 같이 생각하게 된다. 그대의 곁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고 자기의 심장을 마음껏 터치는것도 다 자기의 운명을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장편소설 《너당원》에서 주인공 용녀가 하늘처럼 믿던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쓰러지지 않고 자기가 입은 상처보다 조국이 입은 상처를 더 가슴아파하며 원썬들이 미쳐 날뛰는속에서 먼 동해안까지 가 내화벽돌을 실어다 전선에 필요한수류탄을 만들어내는것도,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세계가 우려하는 나라의 복구건설을 자기의 작은 가슴에 받아안고나서는것도 다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는 강철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또한 예술영화 《혁명가》에서 주인공 최현이가 자신은 장군님곁에 있어야 오래 산다고 하면서 수백가지 약보다 그이의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생명에 힘을 준다고 한것은 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것이 곧 그에게 있어서 생명선으로 되기때문이다.

이것은 단 한순간이라도 수령님곁을 떨어진다

면 사람은 음달에 호박꽃잎처럼 시들어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선이라는 바로 이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최현이가 지닌 인생관으로 확고히 굳어진 혁명적수령관이다.

김혁이나 최현, 주용너는 다 각이한 생활의 길을 걸어왔지만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희망의 별로 마음의 기둥으로 생명선으로 믿고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였기때문에 그처럼 하나와 같아 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게 된것이다.

이들이 지닌 혁명적신념은 세월의 흐름속에서 뼈속깊이 통감한 심장의 느낌이며 삶의 신조이며 굽힐수 없는 강철의 의지인것이다.

우리 문학에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며 인생관으로 확고히 굳어진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성격발전과정을 생동하고 감명깊은 생활적화폭으로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를 깊이있게 그리는데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 기초하여 형성된 확고한 신념일뿐아니라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과 의리이다.

이로부터 성격발전과정을 혁명적수령관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리자면 수령을 존경하고 흠모하며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가지게 하는것과 함께 수령의 은덕과 사랑에 보답하는것을 본분으로 의무로 여기는 혁명적 량심과 의리를 간직하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가지는것과 함께 수령을 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들어야 하는가,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확고한 견해와 립장이 서야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의리를 가지게 된다.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과 숭고한 의리를 가지게 하자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여야 한다.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한다는것은 자기의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마땅한 도리, 량심으로 가슴속깊이 새겨두고 그대로 행동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주체형의 혁명가가 자기의 가슴속에 수령님께 충성다하려는 확고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그것을 어길수 없는 혁명적신조로, 도덕적의무로, 량심으로 지켜나가게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적의리는 자기를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수령의 크나큰 은덕에 보답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 높은 도덕적의무감이며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 혁명적의리를 지니고있어야 수령의 은덕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수령의 은덕과 사랑에 보답할수 있다.

수령과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와와의 관계는 혁명의 령도자와 혁명의 담당자사이의 정치사상적관계이며 자기를 구원하여주고 정치적생명을 안겨준 은인과의 숭고한 도덕적관계, 혁명적의리의 관계이다.

혁명적의리는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바다와 같이 끝간데 없고 웅심깊은 혁명적동지애의 원천으로서 주체형의 혁명가들만이 가지고있다.

혁명적의리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존엄, 모든 영예, 모든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수령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을 가슴뜨겁게 받아안고 이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서 웅대한 도덕적의무, 혁명적의리로 된다.

우리 문학에서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을 깊이있게 밝혀내야 한다.

그러자면 주인공들이 겪는 시련에 찬 간고한 투쟁만을 그릴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밑바닥깊이 깔려있는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감정세계를 깊이 파야 한다.

그래야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의리를 순결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으로 깊이있게 잘 그릴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의 주인공 신철민의 성격형상에서 볼수 있다.

신철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을 제일생명으로 여기고있는 주체형의 당일군이다.

그는 당일군으로서 아버지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람과의 사업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불타는 뜨거운 심장을 지니고있다.

신철민은 언제나 자신보다 혁명을 먼저 생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위한 일이라면 한몸을 서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혁명적의리이다.

신철민은 뜨거운 심장으로 과거 정치생활에 문제가 있는 시공조직설계기사 박정호와 제대군인 출신 김석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냉담한 금속공업부 부부장 차병진, 기사장 림영택 등 각이한 사람들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이 바라시는대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해나가는것이다.

이런 모범은 예술영화 《군단책임비서》에서의 주인공 차석빈과 예술영화 《고결한 삶》에서의 주인공 정순직장장의 성격형상에서도 볼수 있다.

정순직장장은 수령님께 드린 맹세는 끝까지 지킬뿐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고를 드린다.

굴착기생산문제를 놓고 지도나온 국장은 자기의 명예를 앞세우면서 수입제를 써서라도 빨리 보고를 드리자고 하지만 정순직장장은 그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는 오직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굴착기만으로 수령님께 보고를 드릴수 있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만을 안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한다.

장편소설 《새봄》의 주인공 최명진의 경우도 바로 그런것이다.

최명진은 땅을 주신 장군님의 은혜가 그처럼 고마와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제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면서 땅을 빼앗으려는 지주놈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깨끗한 량심으로 땅을 잘 가꾸는것이다.

오로지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최명진의 이

철석같은 신념은 바로 그의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서 나온 혁명적의리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사에서 볼수 있다.

마동희는 적들에게 체포되었을 때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속에서 정신을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령부의 위치를 말할가봐 스스로 혀를 끊으며 권영벽이도 목숨으로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낸다.

이것은 다 자기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준 위대한 수령님께 대한 혁명적의리에서부터 나온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의리는 수령님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하는것으로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은 이처럼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수령관인것으로 하여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다같이 지녀야 할 가장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인것이다.

우리 문학은 혁명적수령관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인간성격발전과정을 그려야만 주체의 혁명문학으로서의 빛나는 사명을 다할수 있다.

이상해서 본바와 같이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그리는것을 주체시대의 인간전형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적성격창조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며 혁명문학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혁명적수령관의 형성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주체형의 인간성격발전과정을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혁명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시료철

권태여

은보석 금보석
빛을 뿜는듯
불꽃보라 눈부신
시료철 시료철

기대와 흥분 속에
말없는 눈빛속에
한바가지 폭 떠드니
빨강게 물드는 용해공의 얼굴이어

한방울 그 쇠물에서
강질을 재이는 마음
조국을 받드는 강철기둥
자신의 어깨와 나란히 세우나니

아, 시료철!
백번을 떠도 천번을 떠도
기포가 없을 용해공의 마음
그대 량심의 결정체여!

령마루에서 령마루어로

조국해방 40돐 우리 당 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맞이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바다처럼 설레이던 조국땅에 새해 1986년이 밝아왔다.

돌이켜보면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은 지난해에 우리 조국은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영광과 존엄의 령마루에 높이도 올라섰다.

사람들도 당중앙을 따라서 일심단결의 한가정으로 자랐고 산천도 몰라보게 변하였다.

그 긍지, 그 열정, 그 숨결로 높뛰는 조국은 새해에 또 얼마나 높이 치달아오를것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으로 불러일으키는데 있어서 매우 큰 작용을 한다.》

령마루에서 더 높은 령마루어로 치달아오를 새해와 더불어 전진과 생활의 첨단에서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하려는 우리 작가들의 결의는 그 어느때보다도 높다.

풍만한 생활의 재부를 찾아, 주인공을 찾아 들끓는 현실속에서 살며 창작하는 우리 작가들의 드높은 창작적열정은 반드시 독자들을 기쁘게 할 훌륭한 결실을 마련할것이다.

작가들의 새해결의중에서 그 일부를 소개한다.

풍만한 생활의 재부를 찾아

오영재

또 한해의 창작을 정확히 계획하기도 어렵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는것이 시창작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벽찬 현실이 예견하지 않았던 사변들을 펼쳐놓으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정신적충격으로 시인을 흥분시키고있기때문입니다. 나라의 장래와 운명에 관한 절박하고 엄숙한 사변앞에 부닥칠 때는 더 말할것이 없고 전차안이나 길가에서 흔히 듣게 되는 어느 탄광이나 제철소에서 일어난 기적, 어느 농촌이나 간석지에서 꽃핀 흥미있는 생활에 매혹되고 이끌려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그곳으로 서둘러 달려가게 되는것이 시인의 절음인것 같습니다..

물론 한해를 총화하고 새해를 맞는 나로서 계획이 없고 작전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청춘들의 가장 빛나는 삶이 꽃피고 랑만이 나래치는 북부철길공사장을 걸으면서 시를 배합한 색다른 형식의 장편기행문도 쓰고싶고 조국통일주체의 서사시를 쓰기 위한 자료작업과 구성작업을 완성하여 하반기부터는 집필에 착수할 의향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자들앞에 말하고싶은것은 무엇을 써야 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독자들 역시 그것이 더 관심사로 될것이기때문입니다. 독자들에 대한 작가의 인력과 그 영향력은 그가 써놓은 책의 분량이나 그 어떤 기발한 재간이 아닙니다.

시대와 인간과 생활에 대한 진실만이 인민대중과 흥금을 터놓고 나누는 작가의 참다운 언어일것이며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장 가까운 벗이 되는 길일것입니다.

제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땅과 이어져있듯이 한 작가가 쓴 명작도 인민의 생활이라는 토양이 피운 꽃인것입니다. 웅심깊은 생활의 혼향속에서만 이 작가의 재능은 아름다운 생활로 되여 열매를 맺을수 있으며 그것을 떠난 《재능》은 종이나 비닐로 만든 꽃처럼 형태는 비슷하나 향기가 없고 열매를 맺을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갓 언어의 회롱이나 눈홀림으로 순간은 화려할수 있으나 밤자면 꺼져버리는 반디불처럼 그 생명력은 가냘픈것입니다.

작가가 언제나 인민의 생활속에 산다는것은 그가 부단히 생활을 체험하고 탐구하는 노력의 과정을 의미하는것입니다. 인간이 태여날 때부터 지니고 나온 그 천품을 두고 나는 부인하지 않으며 주위에 있는 매 작가들의 천품을 두고 가늠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들이 물려준것이며 자기가 노력으로 얻은것은 아닙니다. 출생을 시발점으로 한 인생의 길은 자기의 육신을 움직여나가는 노력의 길입니다. 때문에 나는 노력이 천재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좌우명처럼 믿고싶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생을 살면서 지녀야 할 재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재부, 물

질과 정신의 재부 등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자기의 꾸준하고 완강한 노력으로써만이 얻어지는것입니다. 요즈음에 들어와서 나는 작가가 지녀야 할 재부에 대하여 새삼스러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풍만하고 다방면적으로 안고있어야 할 생활인것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누가 생활을 많이 담고있는가, 이것이 작가의 능력과 실천을 규정짓는 척도일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당에서는 작가가 현실을 취재할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한다고 거듭 가르치고있지 않습니까. 관측기구가 없었고 지리학이 발전하지 못한 지난날 자기의 발로 뚫으며 조선지도를 그린 김정호에 대하여 나는 지금도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교통수단이 고도로 발전된 지금에 와서 나는 제나라땅도 다 밟아보지 못했고 제나라 인민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땅과 사람들이 얼마

나 귀중하고 큰 작가적재부를 안겨주고있는가 하는것을 나는 장편서사시 《대동강》을 쓰기 위해 약간 다녀본 기행의 길에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일찌기 30대~40대의 나이에 느꼈더라면 지금보다 얼마나 풍만한 생활의 재부를 쌓았을것이며 보다 보람있는 글들을 쓸수 있었을 것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흘러보낸 세월과 시간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추동력으로 된다고 이제부터라도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글은 손이 아니라 발로 써야 한다는 앞선 사람들의 체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은 나에게 진실이라는 고귀한것을 줄것이며 새로운 종자, 새로운 정서, 새로운 희망과 지향을 안겨줄것이며 작가로 혁명에 떳떳이 복무하는 삶의 보람을 안겨줄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와 함께 한걸음 더 높이

류정옥

새해!

새해는 어디서 오며 무엇을 가져오는가? 그것은 웃으며 오는가, 채찍을 들고 오는가, 소리치며 오는가, 조용히 오는가...

형체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러나 어김없이 오는것이 새해다.

새해는 사람들의 의사나 요구, 감정정서나 생활영역과는 관계없는 자연의 운동법칙인 지구의 공전에서 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크고작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그 새해를 맞이한다.

지난해의 걸음이 성실했고 그 대가의 열매가 풍만할 때 그 사람은 웃으며 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앞으로 보다 큰 기쁨과 빛나는 위훈을 약속해 줄것이고 수치와 불만의 흔적만을 남긴 사람은 채찍을 들고온 새해를 맞이하며 그앞에서 새로운 갱신과 혁신을 머리속여 맹세할것이다.

형태도 음향도 없는 시간의 흐름이며 지구의 공전이 마치 인생의 그 무슨 계단이거나 한것처럼...

1986년 새해를 맞이하는 나는 그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지난해 1985년은 우리 당 력사에서 참으로 의의깊은 경사와 궁지로 충만된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한해였다. 이 위대하고 빛나는 현실에 살고있는 작가로서

나의 한해는 현실에 비할바가 못된다. 혁명적신념과 의리에 충실한 인간들이 사는 위대한 현실을 높은 사상적내용과 예술적수준에서 풍부하게 그려낼수 있는 창작적기량이 부족한 작가였다.

나는 두말할것없이 채찍을 들고온 새해를 맞이하였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창작적기량을 높이는데서 한걸음 크게 내딛기 위해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사색과 탐구를 깊이하겠다.

그리하여 전투적이고 호소성이 있는 사회주의 현실주제 단편소설들을 창작함으로써 우리의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을 장식하는 꽃잎이 되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보면 새해는 형체없이 소리없이 오는것이 아니다. 높고 절절한 자기의 목소리와 아름답고 뚜렷한 형체를 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훌륭한 길동무이기도 하다.

새해! 새해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그는 우주공간의 태양계에서 해마다 찾아온다.

아득히 머나먼 자연의 태양에 중심을 두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새해도 항상 인민들속에 서 계시는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한편의 글을 써도 좋은 글을 쓰고싶어하는 나를 고무하고 추동하려고 멀고 먼길을 서둘러 온듯만싶다.

나는 새해- 길동무에게 새로운 창작열의로 뜨거운 인사와 감사를 보낸다.

혁명의 나팔수로!

차영보

전진하는 조국에 새해가 왔다!
소리치며 달리는 기관차, 사품치며 끓는 쇠물!
기계소리, 배고동소리...
환희에 넘친 조국이 새날을 향해 질풍같이 돌
진한다.

노도와 같은 대오, 심장이 끓는 대오!
어디서나 오직 《앞으로!》이 하나의 당의 명
령에 열, 백이 발걸음을 맞추고 천만이 발걸음 맞
춰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오- 혁명의 장엄한 전투
서열!

그렇다! 폭풍같이 돌진하는 새해의 이 전투서
열은 시대의 하늘가에 보다 우렁찬 나팔소리를
요구한다.

나는 새해의 이 아침에 혁명의 나팔수로서의
시인의 의무를 다시금 무겁게 자각하게 된다.

당이 바라고 혁명이 요구하는 이 나팔소리!

돌진하는 걸음들이 재촉하고 땀젖은 가슴들이
새겨듣는 이 나팔소리!

그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한 시인의 심장, 싸늘
히 식고 열기없는 그런 심장에선 도저히 울려나
올수 없는 법이다.

그것은 다만 시대의 열풍속에 뜨겁게 달구어진
시인의 심장, 혁명의 거창한 폭풍을 한가슴에
들이킬만한 시인의 통 큰 가슴에서만 용암처럼
쏟어져나올수 있는것이다.

심장을 달구자!

시인의 심장은 들끓는 현실과 부딪칠 때 불이
이는 법!

그렇다! 불, 불이 나에겐 요구된다.

이것이 자책과 흥분속에 새해를 맞는 나의 심
장의 목소리이다!

피라는 탐구로

정기종

지금 나는 새해에 무엇을 쓰겠는가 하는것보다
어떻게 쓸것인가 함에 더 큰 주의를 돌리고있습
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무엇을 써야 할지 모
르는 작가란 없는것이고 발전하는 현실은 나날이
더 많은 작품을 더 좋게 쓸것을 요구하고있기때
문입니다.

나의 주인공들은 변함없이 총멘 전사들입니다.
구령에 따라 대오를 짓고 구령에 따라 행군하고
노래를 부르고 구령과 함께 적의 증기관총사계
지에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전사들- 오늘도 래일
도 나는 이들에 대하여 쓸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름없는 전사들을 견인성과
강의성,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의 서사시적모범으로 그들의 후대들앞에
내세울것인가? 비록 력사의 한페이지에 그 이름들
이 올라있지는 않으나 오늘의 들끓는 삶과 행복

의 거리마다 주춤처럼 깔린 그들의 위훈에 대
하여, 그들이 못다 이룬 꿈과 념원에 대하여 어
떻게 하면 보다 진실하게 그려낼것인가?

물론 이것이 문학전선의 대오속에 분연히 뛰어
든 한 병사작가인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합니다. 중요한것은 생활을 복
사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의 의의를 천명하는것이
며 훌륭한 작품의 척도는 감정의 진심에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이제 쓰게 될 크고작은 작품들
이 진실한 감정으로 일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사색, 피라는 탐구로 한편
의 단편을 써도 가장 큰 존경을 드려야 할 영웅
전사들의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파고드는것-이것
이 새해의 출발선에서 다지는 나의 결의입니다.

설날아침에

김형집

간밤에 내리던 함박눈은 오던것처럼 그렇게 소리없이 멎었다. 이른새벽의 푸른 미명이 비긴 창밖은 여전히 고요속에 잠겨있다. 어스름속에 싸인 드넓은 대지와 그우에 펼쳐진 하늘가에는 전날과 다른없는 시간이 흐르는듯하다.

그러나 창가에서 새날을 마중하는 나의 가슴은 류다른 감회와 희망, 생신한 정서로 젖어든다.

바야흐로 기다리던 새날이, 새해의 첫아침이 밝아오고있다. 백두밀립의 이깎나무에도 우리 나라의 력사에도 또하나의 년륜이 새겨지고있다...

이 뜻깊은 아침의 흥분된 심정은 금시 망울을 터치고 감미로운 향기를 뿌리는 저 창가의 국화꽃에서 시작된것 같기도 하다. 소복이 물켜선 날씬한 꽃대들과 이슬을 머금은듯 싱싱한 잎새우에 티없이 웃는 흰 꽃송이들은 나의 마음을 깊은 감회에로 이끌어간다.

북부철길건설장을 찾았던 취재길에서 만난 한 돌격대원처녀에게서 받은 이 국화꽃씨를 설날아침을 기다려 온 가정이 정성을 다해 움틔우고 자라왔다. 국화의 꽃방울이 부풀어오를무렵에 나는 지난해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한 오리공장 지배인과 황해북도의 광업기업소 노동계급들 그리고 북방의 어느 한 협동농장의 풍년분배장에 대한 보도기사를 썼다.

돌이켜보면 조국의 힘찬 전진과 더불어 지난해 나의 취재길은 참으로 바쁘고 또한 보람찼었다.

조국해방 40돐을 경축하는 평양의 밤하늘에 터져오르던 찬란한 축포와 영원히 당중앙을 따라 나아가려는 충성의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던 일심단결의 해불행진대오, 당창건 40돐을 앞두고 장식이 깔린 천년제방에 걸터앉아 입당청원서를 쓰던 서해간석지 건설장의 이름없는 청년, 대성산 혁명렬사릉의 성스러운 붉은기... 지난해에 조국의 력사에 빛나는 글자로 아로새길 수많은 화폭들이 사진기의 렌즈를 통하여 안겨오던 때처럼 다시금 나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오른다.

텔레비존 화면앞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부푸는 감격속에 받아안던 그날로부터 시작된 지난해 우리 조국의 발걸음은 실로 자랑스런 자욱을 새기여왔다.

감회가 아름다운 채색속에 깊어갈수록 희망 또한 더 높이 나래치는것이다. 동터오는 새벽빛에도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한 환희가 깃들어있는 듯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영광에 대하여, 더 휘황할 래일에 대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 설날아침이다.

방긋이 꽃잎을 펼친 저 국화는 우리 가정의 행복과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이 맺혀 저리도 청초하고 향긋한것이 아닌가.

외투를 입고 인형같이 예쁘게 차린 딸애의 독축에 나는 그만 생각에서 깨어났다.

이윽고 우리 가정은 싱싱한 국화꽃송이를 안고 만수대언덕을 향하여 떠났다.

승리거리를 따라 길랑옆에 줄지어 늘어선 눈덮인 가로수들과 고층건물들, 설맞이 축등에서는 명절기분이 진하게 흐른다.

만수대로 향한 넓은 길에는 아름답게 피어난 생화를 안은 사람들의 물결이 흐르고있었다.

질어가는 새벽빛속에 흐르는 저 아름다운 꽃물결은 정녕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향하는 충성의 대하를 이루었다.

그 거창한 흐름속에 들어선 나의 가슴은 불시에 몽클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의 강철같은 통일과 전체 인민의 반석같은 정치사상적통일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행복의 물결, 축원의 물결은 설날의 거리로 끝없이 흐른다.

만수대언덕에는 아름다운 꽃물결로 차넘치고있었다.

어찌 이 언덕을 찾은 평양시민들뿐이라. 국화꽃씨를 보내준 북부철길건설대의 두볼이 붉은 처녀도, 만리대양을 횡단하고있을 무역선의 선장도, 취재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낯익은 얼굴들도 새해의 이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삼가 설인사를 드릴것이다.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 70만 재일동포들의 마음도 그리고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축원의 마음도 지금 이 언덕으로 굽이쳐올것이다.

우리는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들이 쏠리는 만수대언덕으로 올라갔다.

위대한 손길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휘
황히 밝혀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
며 우리 가정은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담아
설인사를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
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설인사를 올리는 막내딸의 귀여운 두눈도 초롱
초롱 빛났다.

어느덧 한줄기 붉은 해살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와닿았다.

티없는 백설이 덮인 온 누리는 바야흐로 장엄
한 해돋이를 맞이하고있었다.

조선의 새해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위대한 수
령님께서 손길을 높이 드시여 빛나는 앞길을 가
리키시는 이 만수대언덕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을 따라 네굽을 안고 날
고있는 천리마동상이 가까이 보인다.

이 시각, 지구는 다시금 타원궤도를 그리며 또
한고궤의 공전을 시작할것이다. 드립없는 궤도
를 따라 태고적부터 반복되어온 천체의 운동을
계속할것이다.

그러나 하늘가를 날고있는 청동빛의 저 천리마
는 한층 더 억세진 비약의 나래를 펼치고 새해의
창공을 날르고있는것 같다. 더 높은 속도로 더
밝은 앞날을 향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펼쳐주신
조국의 앞길은 얼마나 휘황할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천만리로 달려갈 우리의 로정에서 새해는
더욱 빛나는 승리를 아로새길것이다.

조국은 지금 1986년이라는 장엄한 력사의 장
을 펼치고있다.

동녘하늘가에 떠오른 새해의 태양은 류달리 찬
연한 빛을 뿌린다.

그의 말

허린정

그는 언제나 말이 없더라
떠들썩한 음성도
호탕한 웃음도
더구나 류창한 연설은
그에게서 들을수 없더라

비릿한 해풍에 절은
벗을줄 모르는 작업복
갑판우에 휘뿌리는 파도
쨍쨍 고드름지는 겨울에도
흠뻑 젖어있는 바지가랭이

깊은 밤에도 그의 방엔
자물쇠가 무겁게 걸려있고
그가 언제 눈을 붙이는지
함께 살면서도 보기 드물더라
그는 40년 바다와 함께
눈물도 웃음도 나눠온 선장

...

배전에 밀려오고 밀려오는 파도는
못잊을 옛추억을 실어오는가
곡성이 잦을줄 모르는 부두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발을 일쿠던 더벅머리소년

찬바람 몰아치던 오동지달

소금절은 가마니 짝 지붕새로
차디찬 별들을 바라보며
새우잠자던 움막집은 어디로 갔느냐

아, 주렁주렁 일곱자식들을
끝끝하게 키워준 당의 고마움
말로서야 무슨 소용 있으랴고
사시장철 바다에서만 사는 선장

사나운 파도 삼킬듯 맞받아 와도
끄떡없이 쏘아보는 그 눈길
기망마다 그물이 터지게 물고기 오를 때면
느슨히 피어나는 그 미소

바다기슭에 덩실한 집이 있어도
조타실이 제집보다 더 정깊고
넓은 어장이 제집뜨락처럼 정들어
언제나 심장으로 토하는 그의 말
《출항!》

아, 만경창과 헤가를 때면
고기떼 찾아 번개치는 그의 눈빛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가슴속 천만마디 말을 대신하여
천리어장에 그의 목소리 울리더라
《투망!》...

평양행 급행열차에서

김관일

1

맨처음...우리의 좌석에는 모두 네사람이었다.
휴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한 청년과 극상
해서 서른두셋 안팎으로 나보이는 젊은 녀인과
그의 딸애, 그리고 나...

미구하여 우리가 탄 평양행 급행열차는 한여름
의 무더위가 서린 시발역을 서서히 미끄러져 달
리기 시작하였다. 취재길에서 익히 보아오던 낮
익은 풍경들이 차창밖으로 연줄연줄 흘러갔다.

나는 차창을 밀어올렸다. 숨이 켜 막히도록 상
쾌한 맞바람이 쓸어들어왔다.

《안돼요, 손님! ... 여긴 상급차칸이라고 하잖아
요...》

불시에 귀전을 치는 웬 녀인의 청높은 목소리
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글쎄 안되다니까요, 그렇게 무거운 짐은 선반
위에 올려놓지도 못해요...》

보이지는 않으나 승강대쪽에서 열차원인듯한
처녀의 목소리가 예까지 쨍쨍하게 울렸고 그에
뒤따라 사정하는듯한, 분명치 않은 말소리가 웅
얼웅얼 들려왔다.

그다음에는 그들의 말소리가 흐리마리해지고
조금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그에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우리의 좌석에서는 곧 이야기가 벌어졌다.

나의 맞은편에 앉은,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청년은 첫 인상에도 매우 푸짐종교 활발한
젊은이였다. 나와 통성을 하고난 그 청년(그는
어느 외사부계통에서 승용차운전사로 일한다고
했다.)은 한층 더 스스럼없는 시선을 녀인의 딸애
에게로 옮기는것이였다.

《이름이 뭐지?》

《김은경이예요.》

《은경이? ...이름이 참 좋구나. 그래 어머니와
함께 어딜 가는거냐?》

《평양에 가요.》

《저-런! ...》

운전사청년은 은경의 구슬같이 맑은 눈동자와
말할 때마다 오동통한 볼에 피어나는 보조개를
보는것이 사뭇 즐거웠던 모양인지 계속하여 물었
다.

《평양에 외할머니네 집이 있는 모양이구나. 어
때, 내가 바로맞혔지?》

《아니, 평양엔 친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린 해
마다 이렇게 당의 배려로 평양견학을 하군한답니
다. 온 가족이 함께말이예요.》

사랑과 행복에 겨운 어조로 녀인이 딸애대신

대답하였다.

《그래요?! ... 어디에서 사십니까?》

《등대섬에서 산답니다.》

《!! ...》

녀인의 대답은 한마디였다. 그이상 더 말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그이상 더 묻지 않았다. 하지
만 녀인의 그 한마디 대답에서 우리는 많은것을
헤아리고있었다...

열차는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선 협곡을
달리였다. 차굴, 협곡 그리고 또다시 차굴의 련
속... 문득 그것을 벗어나자 눈앞이 확 트이며 일
망무제의 바다가 펼쳐졌다.

가없이 푸르른 하늘, 그것처럼 끝간데없이 푸
르른 바다... 가슴이 시원히 열리였다.

《아니, 이 손님이 정말... 어찌자구 그래요! 》

불현듯 아까의 그 쨍쨍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
졌고 웅얼웅얼하는 말소리가 또 그에 뒤따랐다.
열차안의 승객들이 이제는 어지간히 짜증이 섞인
눈길로 그쪽을 돌아보았다.

《어디 촌놈은이가 보파리를 잔뜩 걸머지고 오
른 모양이군요.》

운전사청년이 느닷없이 중얼거렸다.

이때 객실문이 벌컥 열리며 문체의 그 승객이
들어섰다. 늙은이는 아니였다. 그러나 허우대가
큰 그의 량손에는 커다란 짐이 들려있었고 얼굴
과 목덜미에는 땀발이 번지르르 내돌아 상기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로 쏠린 승객들의 비난어린 시선
들에 죄송스러워하는듯한 미소로 대답하고는 돌
아서서 열차원에게 무슨 증명서인가를 내보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그와 몇마
디말을 주고받던 열차원은 마침내 성가시다는듯
이 한손을 내저으며 《됐어요...》 하고는 돌아섰
다.

대신에 허우대 큰 그 승객은 열차원처녀가 지
나가고 올 때마다 무진 성화를 받지 않으면 안되
였다.

《저리 좀 비켜요! 문어구를 막고 서있으면 어
떡해요. 원, 눈치두 없지...》

《이 짐들을 어디다 치우세요, 어서요. 발길에
걸레우지 않도록!...》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나는 온몸의 피로가
풀림과 함께 전신이 허공에 둥 떠서 가는것 같은
무중력감을 느꼈다.

맞은편의 운전사청년도 줄리는 모양인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는 눈을 감고있었다. 해
안선을 따라 달리고있는 열차가 가끔 이리저리

흔들거릴 때마다 청년의 고개도 차체의 움직임에 고스란히 순종하고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던 그 자리없는 승객이 우리쪽으로 다가오다가 맞은편 좌석옆에 주춤 멈춰섰다.

《저… 동무, 자리를 좀 좁힐수 없습니까?》

자리를 넓게 잡고앉아 졸고있는 청년을 그는 딱한듯이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청년은 대답이 없었다. 조는것이라고 단정한 그 승객은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서 책을 꺼내들었다.

몇줄 글줄을 더듬던 그의 시선이 다시금 청년에게로 쏠렸으나 이어 그는 자기의 부질없는 기대를 털어버리려는듯 고개를 돌리고 책을 열심히 들여다보는것이였다.

누가 자기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 종착역까지라도 그렇게 서서 갈 잡도리인듯했다. 나는 그를 불렀다.

《여기 와 앉으십시오.》

그러자 책에서 시선을 떼면 그는 나의 권고가 분명 자기에게 해당되는것인가를 확인이라도 하는지 한참이나 초점이 분산된 얼떠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고 자기 주위에 자리없는 승객이라고는 자기 혼자뿐이라는것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자리에 와앉았다.

《고맙습니다.》

사례의 대답과 함께 후끈한 땀내가 물씬 풍겼다.

그는 가방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등산가의 배낭처럼 큼직하고 무거운 배낭은 자기의 발치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의복 뒤잔등은 온통 밤에 젖어있었다.

《이건 무슨 짐입니까?》

내가 묻자 그는 어쭙은 미소를 띠며 대답하였다.

《글쎄요… 이곳에 왔다가 우연히 시료들을 좀 채취하였는데 쓸모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으로 가늠해보건대 무슨 광석들인것 같았다.

(연구사인 모양이군…)

렬차는 경성역에서 잠시 머물렀다.

역구내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붐비지 않았다. 아무 역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려행가방과 트렁크를 든 려객들… 그중에서도 이채로운것은 해월에 번쩍거리는 금관악기들과 트렁크를 들고 플래트홈의 한쪽에 질서정연하게 려을 짓고 서있는 《경제선동대》 배우들이였다.

잠시후 려차간으로 새로운 려객들이 올랐다. 트렁크를 들고 다가오던 한 승객이 우리의 맞은편에 멈춰섰다. 《경제선동대》라는 완장을 낀 처녀였다.

《저… 혹 자리가 좀 없을가요?》

《…》

여전히 청년은 반응이 없었다.

처녀는 더 기다리지 않고 물러섰다. 이때… 처녀는 뒤에서 울려온 목소리에 다시 돌아섰다.

《동무, 자리가 있소. 여기에…》

나는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나쁜만이 아니라 녀인과 은경이도, 자리없던 승객도 이제 그 목소리의 임자가 청년의것이 분명한가 의심하기라도 하듯 놀라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

2

이리하여 우리의 좌석에는 자리없던 승객과 경성역에서 새로 오른 처녀까지 하여 모두 여섯명이 되였다.

그리고 이제 와서 좌중의 분위기는 확실히 눈에 띄이게 달라졌다. 활기를 띠기 시작한것이다.

다만 나의 옆에 앉은 승객만이 책읽기에 열중하느라고 침묵을 지켰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런 무관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로는 되지 않았다.

운전사청년은 줄음기가 말끔히 가셔진 흥미있는 눈길을, 그러면서도 걸으로는 령담해보이는 시선을 처녀의 팔에 낀 완장과 얼굴에 던지였다.

배우인듯한 처녀는 무척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있었다. 그때문에 청년은 일종의 구속을 느끼기까지 한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동무넌 순회공연을 갑니까?》

《그래요.》

《어느 예술단입니까?》

《도예술단이에요.》

《음… 동문 성악배운가요?》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직이 대답했다.

《예.》

청년의 얼굴에 갑자기 희색이 어렸다.

《글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보니 동무를 텔레비죤화면이나 극장무대에서 본것 같군요. 저, 이름을 어떻게 부르니까?》

《??…》

처녀는 의혹이 실린 깔끔한 눈초리를 치켜뜨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바람에 청년은 체풀에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저, 난 알아들을수 있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자기 소개를 안해서 그렇니까, 난 외교단사업총국에서 운전사로…》

《하지만 그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중도에서 말꼬리를 잘리운 청년은 한순간 어리둥절해졌으나 재빨리 자기를 수습하고는 룡담조로 말을 받았다.

《상관이 있지요. 유명한 배우와 한자리에 앉아서 려행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지나친다는건 불행한 일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전 그런 유명한 배우가 못된답니다. 그러니 참 안됐어요.》

처녀가 웃음을 머금고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어

조로 말하자 청년은 말문이 막힌듯 머쓱해지고 말았다.

우리의 좌석에는 가벼운 웃음이 떠올랐다.(물론 나의 옆에 앉은 독자가 승객은 제외하고였다.)

나는 통을 맞은 그 청년에게 동정의 미소를 건넸었다.

《동문 우선 방법이 안되겠소. 속도가 지내 빠르거든...》

청년은 면구해하였고 녀인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소리없이 웃었다.

눈을 내리깔고 열적은 표정을 짓고있던 청년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동문 걸보기하구는 판관이군...》

《어쨌서요?》

《뭐 그저 그렇단말입니다... 난 뭐나 아름다운 것이라면 별로 신용하질 않습니다. 꽃두... 고운 꽃에는 향기가 없는법이지요.》

《아마도 동문 그런 고운 꽃들때문에 톡톡히 욕을 본 모양이군요.》

청년은 비양기가 어린 처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쏘아붙이듯 말하였다.

《그렇소. 지금도 보다싶이... 알겠습니까! ... 하지만 그까짓 나의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역사의 갈피에는 헬렌이라고 하는 한 미인때문에 스파르타와 트로이의 두 나라 사람들이 10년동안이나 죽을내기루 싸운 일도 있으니깐요. 말하자면 역사가 한 미인때문에 톡톡히 욕을 본 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동지.》

그는 동의를 구하는듯한 눈길을 나에게로 돌렸다.

나는 그의 말에 선뜻 동의할수가 없었다. 그의 말은 실제적인 역사적자료에 근거한것이라기보다 고대의 한 서사시에서 유래된 신화에 가까운 것이었다. 허나 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다. 중요한것은 처녀앞에서 자기의 유식을 시위하려는듯한 그가 바로 나에게 지지와 응원을 바라고있는 그 표정에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저도 모르게 대답해버렸다.

《글쎄... 그런것 같소.》

나의 지지에 고무를 받은들 청년은 의기양양하여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때 줄곧 책만 들여다보고있던 그 말없는 승객이 우리들의 이야기에 불쑥 끼여들었다.

《미안하지만 동무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가 헬렌을 유혹한것이 전쟁의 원인으로 뵈다는것은... 설혹 그 서사시가 사실이라구 한대두 그것이 결코 전쟁의 본질적인 원인으로서는 안되는거요.》

《예? ...》

청년은 그의 말자체보다도 대관절 어수룩해보이기가 그지없는 그 승객이 자기들의 이야기에 참여한것이 더욱 놀라운듯 입을 하- 벌렸다.

《가령 바깥에 물이 차면 넘치는법이요. 이미 전에 물이 계속 채워져서 이제 한방울만 더 떨어지면 물이 넘쳐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한방울은 물이 넘쳐나게 된 진정한 원인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다만 한 계기에 불과한거요...》

청년은 시무룩해졌다.

《물론 논리적으로야 그렇겠지요. 전 그런걸 가지구 감론을박하고싶진 않습니다. 력사학자들이나 그런걸 논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렇다면 동문 정확치 못한 얘기를 하지 않는것이 더 좋을걸 그랬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 처녀앞에서 너무 가혹하게 무시해버리는 데는 좀 지나친감도 없지 않았으나 어쨌든 그는 나에게 비하면 매우 솔직하고 정확한 사람이었다. 하긴 그것은 과학자들의 직업적인 습성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걸보기에는 비록 어리숙해보여도 일단 자기의 사업권내인 과학에 들어서는 단 한미크론의 허용오차도 과학 그자체의 완전한 부정으로 인정할만큼 철저한, 또 그만큼 정확한 사고방식이 몸에 폭 배인 연구사라는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열차는 궤도를 따라 한본새로 꾸준히 달리고있었다. 어찌보면 차창밖으로 명예위병대원들을 편상케 하는 철도연선의 나무들이 정연하게 줄을 짓고 우리를 향하여 마주 달려오는듯도 했다.

나는 은경이를 안아 자리에서 일으켰다.

《자, 이젠 은경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가, 학교엔 입학했겠지?》

《예, 인민학교 1학년이예요.》

《오, 그럼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봐라.》

그러자 청년도 흥이 나서 려행가방에서 하모니카를 꺼내들며 은경을 부추겼다.

《자, 내 반주해줄테니 어서...》

좌중이 한결같이 자기를 바라보며 눈짓하자 은경은 치마기슁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를 보았다.

《어서 부르려무나, 집에서 아버지앞에서랑 부르던 노래 있잖니.》

녀인이 정겨운 눈매로 팔애를 애무하며 눈을 깜빡해보이자 마침내 은경은 볼우물이 패이도록 방긋 웃고나서 노래를 불렀다. 청년도 하모니카로 그럴듯하게 반주해주었다.

머나먼 포구에 배고동소리

못잊어 또다시 나를 부르네...

《저런, 노래도 어른 노래만 부르는군.》

누군가 감탄하였다. 차칸이 들썩해졌다.

처녀도, 연구사도 은경이를 바라보며 못내 대견스러워하였다.

《애가 참 똑똑하군요. 공부도 잘하겠지요?》
너인은 자기 딸애에 대한 못사람들의 관심을 고맙게 여기듯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아마 그런가봐요. 얼마전에 학부형회의에 갔는데 글썽 선생이 어찌나 이 앨 칭찬하는지 전 그만 몸둘바를 몰랐답니다. 선생이 그러기를 이애의 기억력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수재형이라나요...》

《그래요! ... 어디 한번 시험쳐볼가?》

부쩍 호기심이 동한 너는 인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애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동요동시집을 가방에서 꺼내 은경에게 주었다.

《자, 이 시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읽어봐라. 그리고 얼마나 따로 외웠는지 좀 보자.》

은경은 책을 받아들고 눈으로 말없이 더듬었다. 그리고는 1분도 채 못되어 그 책을 돌려주는 것이었다.

《다 외웠어요.》

《벌써?! ...》

연구사는 자못 미심쩍은 표정으로 책을 받아들이고 펼치었다. 은경은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거침없이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책이 만일 입이 있다면
책은 이런 말을 할거야요

나는 나는 정말이지
나를 소중히 해주고

아침 저녁 읽어주는
그런 동무를 좋아하지요...

은경의 시랑송은 계속되었다. 승객들은 차츰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며 은경의 돌레에 모여들었다.

...책이 만일 입이 있다면
책은 이런 말을 할거야요

나는 나는 정말이지
함부로 마구 더럽히거나

나를 그래 무슨 꽃인양
책장에만 꽂아두는... 동무한테는

나는야 입을 꼭 다물고
아무것도 얘기 않을테야요

드디어 시의 마지막 음절이 끝났다.
사람들은 은경이가 외운 시구절이 맞는가를 묻듯 연구사를 바라보았다.

책을 펴들고 은경이가 읊는 시구절을 따라 글

줄을 더듬던 연구사는 책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은경이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뚫어지게, 그리고 너무도 오래동안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은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흥분하였다. 한참후에야 그는 나직이, 사실말이지 너무도 낮은 목소리여서 사람들이 문득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할만큼 그렇듯 나직하게 말하였다.

《이건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자도 안틀리고 따로외우다니! ... 정말 이건... 놀라운데요! ...》

우리도 물론 은경의 비상한 기억력에 감탄하였다. 하지만 더욱 놀란것은 여적 별로 말이 없던 그 연구사가 그토록 흥분하여 기뻐하는 모습이였다.

너인은 연구사의 그 흥분한 모습에서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고 방임해두었던 자기 딸의 그 어떤 놀랍고 새로운 점을 발견한듯 어리둥절해하였다.

《아주머니, 딸애를 잘 키우십시오.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이런 애들을 적극 찾아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려서부터 잘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시켜야 할지?...》

너인은 정녕 자기 딸애의 미래에 대해 조언을 바라는듯한 눈길로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은경의 장래에 대하여 가지가지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펼치었다.

한결 화기롭고 유쾌해진 우리의 좌석으로 렬차원처녀가 다가왔다.

《저, 씨원한 탄산수를 가져다 드릴가요? 기차동지.》

코끝이 약간 쳐들릴사한, 오히려 그때문에 더욱 명랑하여보이는 들창코의 렬차원처녀는 마치 구면인듯 친절한 어조로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무츄 나의 옆에 앉은 연구사를 발견하고는 약간 새침해졌으나 그것은 한순간뿐이었다.

《난 괜찮소... 헌데 동문 어떻게 나를 아오?》

《아이참, 렬차에 오르실 때 저에게 신분증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렬차엔 기자선생님들이 자주 타고다니답니다. 얼마전엔 우리 렬차의 경옥동무가 신문에까지 났는걸요...》

렬차원처녀는 이렇게 말하며 생긋 웃어보였는데 무릇 그 말의 내용보다도 그 인상적인 미소에 더 많은 뜻이 포함되어있는듯했다.

나는 그 명랑한 렬차원에게 침대권을 부탁하였다. 연구사의것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자 처녀는 쾌히 받아들이며 다른 승객들을 향해서도 《더 요구하실것이 없으세요?》 하고 깉듯이 묻는 것이였다.

《참 상냥한 렬차원이로군요.》

그가 돌아섰을 때 너인이 탄복하여 하는 말이였다.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녀인이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물었다.
 《지금 몇시나 됐어요? 태엽주는걸 잊었더니 그만...》
 《정각 일곱시입니다.》
 청년이 대답하였다. 청년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자기 시계를 맞추던 녀인이 탄성을 올렸다.
 《아니?!... 시계에서 무슨 노래소리가 나는군요!》

《뭘 별게 아닙니다.》
 청년은 팔소매로 시계를 슬쩍 가리웠으나 녀인이 한사코 구경하자는바람에 벗어보였다.
 워낙 감탄하기를 잘하는 녀인은 난생처음 보는 물건이거나한듯 희한해하며 이리저리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처녀도 호기심에 못이겨 슬며시 넘겨다보았다. 청년은 그에 무관심한듯 심드렁한 얼굴을 지어보였으나 그 인위적인 표정뒤에는 억제할수 없는 희색의 미소가 껴비치고있었다.
 한참이나 시계의 품위를 두고 감탄을 연발하던 녀인은 자기의 그 찬사가 시계에 대한것인지, 아니면 그 시계의 임자에 대한것인지 제자신으로서도 종잡을수 없으리만큼 혼동되어버렸을 무렵에야 부지중 일을 다물었다. 그리고는 면구하여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다. 제혼자 말하고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점찍해났던 모양이었다.

왜그런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연구사는 변함없이 책에 열중하고있었고 처녀는 자기의 통제권을 벗어나 그 청년의 팔목에 쓸렸던 시선을 꾸짖거나 하듯 황급히 거두어들이고는 어쩐지 쓸쓸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아주 우연한 일치였지만 우리는 눈길을 돌리다가 서로 시선들이 부딪쳤다.
 표정들이 저저끔 이상하였다. 허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다들 묵묵히 제나름의 생각만을 쫓고 있을뿐이었다. 그리고 제각기 좌중에 떠돌고있는 그 야릇한 변화를 모르는척하고있었다. 한때도에 몸을 실은 우리의 각이한 려객들은...

3

우리의 앞좌석쪽에서 떠들썩하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금 있으려니 그곳에서 은경의 구슬같이 맑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그쪽에 간 은경이가 그곳의 승객들한테서도 인기를 끌고있는 모양이었다.

녀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청년이 녀인에게 말하였다.

《은경인 앞으로 예술가로 키우십시오.》
 《그래도 우리 은경이 아버지 그 앨 과학자로 키우겠다고 하시던데요. 녀류학자로말이에요.》
 나는 녀인의 말에 동의하였다.

《내 생각에도 그게 좋을것 같습니다. 은경의 그런 놀라운 기억력과 사고수준은 보통 그 나이의 아이들에게 흔히 있을수 있는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앞으로 자기의 성실한 노력에 습관되도록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수 있을겁니다.》

그러자 청년이 나의 의견에 반대해나섰다. 은경은 과학자로서의 능력보다 예술가로서의 천성을 더 타고났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의 좌석에서는 때아니게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즐거운 논쟁이었다. 자라나는 세세대들의 장래를 두고 논한다는것은 기쁜 일인것이다.

청년이 말하였다.
 《아무튼 녀자는 녀자답게 키워야지요. 녀자가 과학을 해서 무슨 크게 빛을 내겠다구요... 공연한 생각입니다. 과학이란 따분한 분야지요...》
 여기서 청년은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듯 말을 끊었다. 자기를 쏘아보는 연구사의 시선을 얼굴에 느꼈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연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년은 변명하는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전 그저 예술에 취미를 가지구있구 또 예술을 사랑하기때문에 그런 말을 한겁니다. 전, 예술이야말로 신성하고 고상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계속됨에 따라 청년은 차츰 녀인이 아니라 자기의 옆에 앉은 처녀를 녀두에 두고 말하고있었다. 처녀 역시 경계하면서도 한편 선의에 넘친 눈으로 청년을 돌아보았다. 청년은 분명 그에 만족해하였으나 그렇다고 자기의 기본화제에서 탈선하지는 않았다.

《훌륭한 열매도 처음엔 자그마한 싹으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은경이에겐 벌써부터 예술가로서의 천품이 보인단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동무.》

《예. 정말 은경의 목소리는 훌륭해요. 앞으로 성악배우로서도 손색이 없을거예요.》
 《목소리뿐이 아니지요, 인물도 잘났겠다. 또 멀리도 비상하겠다. ...딸애에게 꼭 음악공부를 시키십시오. 틀림없이 쟁쟁한 가수로 될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가요?》
 녀인은 청년의 말에 귀를 솔깃이 기울였다. 순박한 녀인이였다. 만일 내가 이제라도 당장 녀인에게 딸애는 체육에 특별한 천성을 타고났으며 앞으로 체육선수로 키우라고 한대도 역시 믿기 잘하는 녀인은 《정말... 그럴가요?》 하고는 나를 바라볼것이다.

청년은 신이 나서 자기의 주장을 력설하였다.
 《예술이란 인간의 가장 순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일뿐더러 광범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성스러운 창조사업입니다. 그러니 은경이의 장래에는 벌써 영예가 약속되어있는셈이지요. 은경의 그 미모, 아름다운 목소리, 뛰어난 두뇌는 화려한 극장무대와 수많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위해 마련된것입니다. ... 아주머니라

고 한뼉을 그 적적한 섬에서 딸을 끼고 보낼수아 없지 않습니까. 예로부터 소는 길러서 산으로 보내구 사람은 키워 도회지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요.》

청년의 어조는 류창하였다. 그의 말투는 자기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씹어말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별로 생각 없이도 말을 엮을줄 아는, 그리고 자기의 억양에 음악적인 틀조를 덧붙일줄 아는 사람들의 그런 빠른 말씨였다.

나는 그의 말을 구태여 반박하고싶지 않았다. 설사 예술가로 되면 어떻고, 과학자로 되면 어떤 단말인가, 그리고 더구나 우리의 이 논쟁은 어디까지나 여행의 무료한 시간을 보다 더 즐겁게 보내기 위한 룡담에 가까운것이다.

룡담, 그래, 이젠 룡담이다... 아니 룡담이라도 그것은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이 아닌가, 순수한 재능... 영예... 도회지...

나는 뭔가 그에게 말하려고 했으나 렬차원처녀가 다가와 우리들의 화재를 중단시켰다.

《저, 아까 기자선생님이 침대를 신청하셨지요?》

《예.》 내가 대답하였다.

《두분이 신청하셨지요?》

《그렇소.》

《그런데 현재 빈 침대는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렬차원처녀는 딱한듯 말끝을 흐렸다. 그는 내심 망설이는듯한 눈길로 나와 연구사를 번갈아바라보았다.

《저- 연구사동진 량해해줘야겠어요... 그리고 기자선생님은 차표를 인주세요. 침대번호를 적어드리겠어요.》

렬차원처녀의 말은 억양이 각이하였다.

첫마디는 쌀쌀하게 울렸고 두번째 음조는 저으기 정중하고 부드러운데. 그리고 그 말뒤끝에는 그 어떤 숨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순간 나의 머리속에는 뭔가 짝이는것이 있었다.

《...우리 렬차엔 기자선생님들이 자주 타고다니답니다. 얼마전엔 우리 렬차의 경옥동무가 신문에까지 났는걸요...》

렬차원처녀의 미소는 바로 잠전에 나에게 지어 보이던 그 미묘한 웃음을 련상시키는것이였다. 나는 렬차원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안가십니까? 차표뒤에 침대번호를 적어드렸어요.》

《한데 어째서 연구사동무의것은 안됐소?》

나는 따져물었다. 렬차원처녀의 들창고는 이 순간 더욱 오탁하게 쳐들려보였다.

《이미 말하지 않았어요. 빈 자리가 하나밖에 없다구요! ...》

《그렇다면 난 이 침대표를 연구사동무에게 양보하겠소.》

그러자 연구사는 황급히 밀막았다.

《아니 그러지 마십시오. 전 괜찮습니다.》

...그러하여 결국은 나도 침대를 거절하고말았다. 렬차원처녀의 호의를 접수한다는것이 어쩐지 부당하게 느껴졌던것이다.

우리의 좌석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이번의 침묵은 먼저번보다 더 뚜렷해졌다.

우리들은 서먹서먹해졌고 서로 말을 꺼내기를 주저하였다.

차바퀴의 고르로운 음향만이 일정한 틀조를 가지고 우리들의 침묵을 메꾸어주고있었다. 갑자기 우리의 렬행이 퍼그나 지루하게 느껴졌다. ...

단지 무슨 말이든 하기 위해 녀인이 입을 열었다.

《언젠가 한번은 은경이 담임선생이 배를 타고 우리 등대섬에 건너왔었는데... 글썽 어찌나 반가운지 그만 눈물이 핑 돌질 않겠나요... 선생이 그러기를 그 앤 머리가 비상하다면서 앞으로 과학자감이라는거겠지요...》

녀인은 이미 한 말을 다시 곱씹고있었고 우리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이거나 한듯 거의나 위선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러나 녀인의 그 보람없는 수고도 결국은 우리들의 따분한 분위기를 더욱 강조해주는것으로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래도 운전사청년이 그중 기운을 내어 녀인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고있었다.

《과학자감이라구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또 백설희영웅과 같은 훌륭한 녀성과학자가 있는것두 사실이구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집 장롱속에 대학졸업증을 물어놓은 녀성들도 대낮에 집안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 때로는 방송으로 숨은 영웅들의 보도기사를 듣기도 하지요.

<참 훌륭한 과학자야. 정말 대단한 노력이인걸!

> 하고 그들은 감탄합니다. 지어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합니다. 허나 그러면서도 역시 손에 쥔 뜨개바늘은 멈추지 않지요! ... 사람들이란 그렇게 살아가는겁니다.》

《음... 그렇군?!...》

연구사가 보던 책을 덮으며 수궁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의아쩍은 눈길로 연구사를 돌아보였다.

그러나 연구사는 그저 입속말로 조용히 뇌이였을뿐이였다. 만일 그의 조용한 말마디속에 숨어있는 몹시 억누르며 자제하는 억양만 아니었다면 그는 흔히 사람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그렇게 보였으리라.

청년은 계속하였다.

《저도 고등전문학교시절엔 공부를 꽤 한축이였습니다. 뭐 그리 애쓰진 않았어도 아무튼 졸업중의 성적란에 9점짜리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졸업후엔 자동화기구연구소의 연구조수로 배치되었는데 같은 졸업생들가운데 이런 특전을 지닌 사람은 나까지 해서 두사람밖에 안됐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운전사로 되었어요?…》
너인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의혹을 금치 못하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뭐 그거… 그렇게 됐지요… 솔직히 말해서 과학탐구란 어떻게 해서 성공하면 그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누가 뭐 일러주거나 합니까… 그런데 창박을 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고도 즐겁게들 살지요…》

《그렇군… 현대 일러주지 않는다는건… 그건 무슨 소리요?》

아무래도 나는 그의 말을 그대로 넘기고싶지 않아 캐여물었다.

《그야 뭐… 멀리 생각할것두 없지요. 바로 이 열차에서만 하더라도…》

청년은 뒤가 켜기였는지 인차 말꼬리를 사리며 연구사쪽을 흘끔 바라보았다.

나는 그가 채 끝맺지 못한 그 말이 무엇을 암시하고있는가를 곧 알아차렸다.

몹시 불쾌하였다.

그는 바로 잠전에 열차원이 연구사의 침대권을 거부한 사실을 녀두에 두고 말하고있었던것이다.

안면과 리해관계에만 눈이 어두운 일부 사람들의 과학자들에 대한 물리해를 그는 사회일반의 평가로 오인하고있었다.

더우기 오뉴월 삼복더위에 무거운 광석배낭을 메고 땀으로 온통 미역감듯하면서 운동화뒤축이 닳도록 걸어다니는 이 연구사, 이 무명의 연구사를 그는 《성공 못한 연구사》로 치부하고있었다.

만일 성공한 연구사라면 이렇게 앓을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있는것이였다.

나는 연구사를 돌아보았다. 그는 못들은척하고있었다. 그러나 의자모서리를 짝 움켜쥔 그의 손에는 시퍼런 피줄들이 살아올랐다.

운전사청년은 공연히 연구사의 눈치를 보며 구속을 느끼는 자기의 비겁한 처사에 스스로 화가 난듯 도전적으로 말을 이었다.

《나에게도 재능과 심장이 있구 그 재능으로 말한다면…》

별안간 탕!… 하고 차락을 후려갈기는 소리에 청년은 흠칫 굳어졌다.

딱 틀어진 주먹을 차락우에 놓은채 푸들푸들 떨며 연구사는 운전사청년을 쏘아보았다.

《수-단-군-같으니!…》

꼭 다문 이새로 그는 이 《수단군》이라는 말을 씹어내뱉듯 뜨직뜨직 발음하였는데 필경 그것은 그가 평생을 두고 할수 있는 육지거리가운데서 가장 험악한 육지거리임에 틀림없었다.

청년의 낮은 해쓱하게 질렸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다 하실수가 있습니까!》

연구사는 격분하였다. 그러나 분개할수록 그는 이상하리만치 어조가 조용해지며 말투가 푹푹해지는 사람이었다.

《동무한텐 당과 국가의 배려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정에 눌러앉아버리는것두 의례히 있을수 있는 일이고… 명예와 리익이 있는곳을 끌라가며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숨씨있게 바꾸는것도 역시 정당한것이겠소? 당이 무엇을 요구하든 관계없이!…》

재능이란… 자본이 아니요!… 사적인 리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리윤이 많은곳에 투자하거나 필요에 따라선 바꿀수도 있는 그런 자본이 아니란말이요. 치부를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구도 재능이란 말을 욕된것에 함부로 갖다붙일수가 없소!…》

《그럼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구사동지의 론리대로 한다면 자기의 의사나 희망에 따라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바꾼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레외없이 다 수단군들이겠군요?》

《…》

연구사는 대답을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한참후에 그는 지친듯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다.

《동문 상당히 푹푹한 사람이요. 아주 령리하구… 오늘 우리 사회는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고있구 선택의 자유를 주고있소.

동문 그걸 리용할줄 안단말이요. 음… 아주 그럴듯하게 자기를 변명할줄두 알구… 말재간두 있구…》

《…》

창백해졌던 청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붉어진 목덜미의 단추를 활활 열어제꼈다.

《에 이 참… 여기는… 공기까지 다 답답하군요.…”》

4

《좀 너무하지 않았을가요?…》

청년이 벌떡 일어서서 승강대로 나갔을 때 나는 연구사에게 던지시 말을 비쳤다. 그는 느닷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공연히 분위기를 흐려놓았군요. 참는다는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줄은 몰랐습니다.…”》

억양이 없는 연구사의 웅글은 목소리는 몹시 갈려있었다. 나는 그의 심정을 리해하였다.

얼마후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연구사동문 어느 연구소에 있습니까?》

《흑색금속연구소에 있습니다.》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지금까진 내화물을 전공했습니다.》

《내화물이랑요? 내화물... 저, 미안하지만 이름은 어떻게 부릅니까?》

《김승호라고 합니다.》

(김승호?!...) 어딘가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이름을 기억해둔바가 있는듯했다. 그가 누구였던가? ...나는 어둠에 휩싸인 차창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유아동의 불빛에 주의를 집중하려 애쓰며 기억을 되살려보았으나 허사였다.

마침내 단념한 나는 허리를 좀 펴기 위해 승강대로 나갔다. 거기에서는 아직도 그 청년이 덩덤히 서있었다.

《왜 아직 여기에 서있소?》

홀깃 나를 돌아본 그는 이내 외면하고는 볼루는 소리를 했다.

《바람을 좀 쏘이려구요. 거기야 뭐 어디 앉아 있을 재미나 있습니까.》

《왜 노했소?...》

그는 대답없이 그냥 서있더니 불쑥 되물었다.

《그 따분한 손님은 아직도 내리지 않았는가요?》

《그렇소, 아마 고원까지 가야 한다니까...》

《꽤나 먼데두 가는군요.》

《그렇게 말하면야 안되지...》

《어쨌든 전 그 사람과는 영 흥미가 없습니다. 글썄 생각해보십시오. 전 다만 우리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 흥이 난김에 몇마디 말을 좀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따분한 손님은 말끝마다 트집을 잡고 걸고든단말입니다. 그 사람하군 논리학파서를 퍼놓구 말하던가 해야지. 그 따분한 손님은 논리적으로 따지지요. 그런데 난 학자선생이 아니란말입니다.》

《이것 보오. 그 연구사와 동무간의 차이는 단지 감성적사고와 논리적사고의 차이만은 아니요. 그리고 동문 우선 사람들을 정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할것 같소... 그건 그렇구...》

그는 이번엔 또 무슨 비난이냐는듯 경계하는 눈초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다음으로 동문 제자리에 가앉아야겠소. 밤새 이렇게 서있을수는 없지 않소.》

《하긴 그렇습니다. 계속 서있을수는 없지요. 우선 다리가 아프니까요.》

그는 얼마간 누그러져서 제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집스레 입을 꼭 봉하고 연구사쪽에는 아예 눈길조차 던지지 않았다. 아마 연구사에게 언질을 잡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듯 했다.

다시금 진저리나는 침묵이 우리 좌석에 군림하였다.

너인이 안타까이 입술을 움직거렸다.

《글썄 얼마전엔 은경이 담임선생이...》

이미 실밥이 끊어진 화제를 다시 기우려던 너인은 그만 열결에 입을 다물고말았다. 자기의 이

야기때문에 또다시 언쟁이 벌어질가봐 더럭 겁이난 모양이었다.

또다시 집요한 침묵... 밤은 깊어갔다.

하르르한 나일론머리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처녀는 졸고있었고 연구사는 자기 얼굴이 되비치는 차창에 묵묵히 시선을 던지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

혼미해진 머리속에 뜻도 갈피도 없는 여러가지 환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났고 비몽사몽간에 어디에선가 삭막한 차륜의 소음이 들려왔다.... 차바퀴... 차바퀴소리... 흑색금속연구소... 내화물... 내화물? ... 난데없이 내화물은 웬 내화물... ...나는 렐차에서 내렸다. 흑색금속연구소를 찾아갔다.

하늘이 건듯 들린듯 쾌청한 가을날...

나는 연구소의 소장과 마주앉았다. 취재수첩을 펼치고 부지런히 만년필을 움직였다.

새로운 연구성파로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소내의 연구사들, 과학계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문제들에 론문을 던져 당당한 학위학직을 수여받은 과학자들... 한마디로 성공한 연구사들에 대한 취재를 하였다. 성공한 연구사들을...

《저를 제철소로 보내주세요.》

문이 열리고 땅에서 솟아나듯 한 처녀가 우리의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소장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던 말을 계속한다.

《저를 그곳에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처녀의 말은 집요하다. 그제서야 소장은 나에게 하던 이야기를 끊고 이마살을 찌프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젠 나를 좀 그만 괴롭히지 않겠소... 그리구 또 지금은 동무문제를 토의할 겨를도 없소. 지금 이렇게 손님이 와 계신걸 보면서도 그러오.》

《그럼 오후에 다시 오겠어요.》

《오후엔 회의때문에 평양에 가야 하오.》

《그럼... 역에라도... 따라나가겠어요.》

《에이참...》

소장은 성가신듯 손을 내저었고 처녀는 방에서 나갔다.

《저 동무가 무슨 일로 그러니까?》

내가 사연을 묻자 소장은 량미간을 좁히고 난처한듯 한동안 덩덤해있다가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 연구소에 5년전부터 내화물을 연구해온 동무가 있었지요. 참 꾸준하고 진지한 사람이긴 했었지만 연구성파는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소장이 그 사람에 대하여 현재형으로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있는데 대해 주의가 미쳤다.

《그 동문 지금 이 연구소에 없습니까?》

《예, 그 동무의 연구안을 도입한 첫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정도가 아니라 엄중한 사고였지요. 그가 연구해낸 xx내화재로 용광로의 로벽을 쌓았는데 800℃계선에서 내화물이 침식되고

철피에 균열이 생겼지요. 심각한 사고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말하기조차 괴롭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그 시험을 단념하고 그 동무의 연구집단을 현지에서 소환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만은 부득부득 고집을 쓰면서 거기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그 동문 자기 혼자서 이래쩌나 그 가망없는 연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방금전의 설계원 처녀는 바로 그곳에 자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

《설계원처녀는 그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사랑하는 사이겠지요.》

그이상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날은 나의 취재계획의 마감날이어서 나는 떠나야 했던 것이다.

렬차에 몸을 실었다. 또다시 덜렁거리는 차륜 소리…

그 소리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췌, 별난 환상도 다 있군…

나는 어이없이 중얼거리며 기연가미연가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창밖이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앞을 바라보니 운전사청년이 옆에 앉은 처녀에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갑자기 나의 시선을 포착하고는 말을 얼버무렸다. 처녀는 고개를 외로 돌리고 무표정한 빛을 짓고있었고 청년은 분이 치민듯 푸르딩딩한 기색이었다.

그런데 연구사는… 제자리에 없었다. 둘러보니 그는 저쪽 불빛이 밝은곳에 걸터앉아 여전히 책을 읽고있는것이였다. 곰곰히 글줄을 더듬다가는 연필을 들어 무슨 표식인가 기입해넣고 생각에 골몰하는 그의 모습…

불현듯 나는 방금전의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환각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거의 10여년전의 일이였다.

하늘이 건듯 놀린듯 청명한 그날 오후에 나는 그 연구소의 소장과 함께 역으로 나왔다.

그 설계원처녀는 빈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플랫폼에 나와 렬차를 기다리고있을 때 개찰구쪽에선 입장권을 손에 든 그 처녀가 나타났다.

《저를 제철소로 보내주세요!…》

처녀의 말은 여전히 한문새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더 강경하였다.

소장은 기가 막히다는듯 한숨을 후- 내쉬고는 그를 사람들과 좀 떨어진곳에 데리고가서 나직이 말하였다.

《동문 지금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고나있소? …털어놓구말해서 우린 상급의 소환조치를 거부하구 이래쩌나 거기에 눌러있는 그 동무의

생활조건을 보장해줄 아무런 담보도 없게 됐소.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그를 믿지 않는단말이요. 지금은 그가 그저 고립무원한 처지에 놓여있지만 앞으로는 사태가 더 험악해질수 있다는것도…》

《알고있어요. 죄다!…》

처녀는 소장의 말을 가로채며 거의 필사적으로 말하였다.

《그런 각오를 저에게 준비시킬 필요는 없어요. 전 그 동무의 명예도, 그 어떤 학위학직도 바라지않아요. 성공 못한다 해도 좋아요…

전 다만… 그 동무가 가장 곤난한 탐구의 길을 걸을 때 그의 인간됨을 안 사람이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이예요.

그 동문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의 철문제때문에 가장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오직 그 때문에 자기의 개인생활을 다 잊어버린 동무예요!

…그 동무가 가장 괴로운 처지에 빠진 지금… 제가 그를 돕지 않는다면… 그를 저버린다면… 소장동지… 솔직한 말이지만 전 더 살아갈 힘이… 없을거예요… 전 더 …》

처녀는 더말을 잊지 못하고 돌아섰다. 사람들이 불비고있는 역구내에서 처녀는 입술을 모질게 깨물고 강인히 자기를 견잡고있었다. 소장은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몰아쉬고나서 기진한듯 말하였다.

《보내주겠소. 참 동무두… 할수 없지… 수속을 하도록 도와주겠소.》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여 소장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돌아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내려가면 전 승호동무와 함께 xx내화재로 다시 로역을 쌓도록 하겠어요.》

《그건 안되오. 만약 그렇게 했다가 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꼭 제대로 될거예요.》

《동문 무엇으로 그걸 담보할수 있소? 거기에 대해 무슨 대답을 할수 있나말이요?》

처녀는 들고 온 가방을 열어제꼈다. 그안에서 한뭉치 잘되는 종이장들을 꺼냈다.

《이것이 승호동무의 계산용지예요. 800℃계산에서의 벽돌팽창계수를 그 동무는 밤을 새우며 여러가지 각이한 방법으로 수십번이나 계산했지만… 이것 보세요. 답은 매번 한가지였습니다! … 사고의 원인은 조작의 비정확성에 있어요. 이견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 종이장들보다 승호동무의 깨끗한 량심을 믿습니다. 당에 대한… 과학에 대한 그의 순결한 량심을 믿어요. 이견… 대답이 안됩니다! …》렬차가 은은한 기적소리를 울리며 역구내에 들어섰다. 그러나 소장은 정신없이 종이장들을 뒤적이고있었다. 마침내 나에게 다가온 그는

열에 뜬 얼굴로 말하였다.

《아무래도 기자동문 혼자 가서야 할것 같습니
다. 난 이 길로 돌아가 심중히 재토의해야 할 문
제가 있습니다.》

나는 렬차에 올랐고 그들은 되돌아갔다.

그후 나는 그들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그후
의 소식을 그곳에 갔던 다른 기자를 통해 알았
다.

그가 연구해낸 내화재는 지금까지 쓰던 내화재
보다 몇배나 더 효과성이 높았고 나라의 강철생
산을 훨씬 늘리게 했다. 그리고 몇년전 나는 중
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흑색금속연구소의 김승호
연구사에게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는것을 알
았다.

그렇다, 그의 이름은 분명 김승호였다.

그에 대하여 안 때로부터 10여년... 그 허구한
세월을 그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그 문
제를 풀기 위해 자기가 선택한 고행의 길을 변함
없이, 성실하게, 묵묵히 걸어온것이다. 마치도 하
나의 궤도를 따라 진함이 없이 꾸준하게 달리고
있는 렬차와도 같이...

× ×

우리가 탄 평양행 급행렬차는 고원역에 들어섰
다.

연구사와 처녀가 내리기 위해 서둘러 짐을 내
리었다. 자기의 트렁크를 든 처녀는 연구사를 도
와 짐을 나누어들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꽤 혼자 가시
겠어요?》

《괜찮소, 이게 나의 일인걸...》

김승호연구사는 우리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그와 앉자마자 곧 헤어져야 했다.

나는 그와 주소를 교환하였고 후일에 한번 꼭
찾아가겠노라 굳게 약속하였다.

렬차에서 내리기에 앞서 연구사는 녀인에게 은
경의 학교주소를 물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주소를 적어주고난 녀인은 잠시후 나에게 물었
다.

《기자선생님은 그 손님을 아세요?》

《예. 알지요...》

《? ...》

좌중의 묻는듯한 시선을 몸으로 느끼면서 나는
그 연구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그의 인간됨을 규정지을수 있는
말마디가운데서 나는 그에 대해 가장 정확히 표
현할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뿐이라는것을 알았
다.

《그는 로력영웅입니다!》

《예?!...》

모두들 깜작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나

가던 렬차원처너도 소스라치듯 놀라며 그자리에
우뚱 굳어졌다.

《아니, 누가... 누가 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이 대답하고싶지도
않았다.

차창을 밀어올리고 나는 밖을 내다보았다. 렬
차에서 내린 예술단배우들이 렬을 짓고 서있었다.
아침해빛에 금관악기들이 번쩍거렸다. 그 눈부
신 금빛의 반사광때문에 연구사의 모습을 인차
찾을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가 보였다.

《어마나, 이걸 어찌나... 그런줄두 모르구...
전... 이를 어찌면 좋아요...》

나는 넋두리하듯 안타깝게 중얼거리는 그 렬차
원처너를 쏘아보았다. 그 들창코가 어찌지 이 순
간에는 알뜰게 보였다.

바로 저 연구사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자기의
지위와 명예에 대해 조금도 행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있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앞에서 모자를 벗어야 하며
공민으로서의 숭고한 경의를 표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것이다...

렬차는 고원역을 출발하였다.

운전사청년은 예술단대렬속의 그 처녀에 대해
서는 감감히 잊은듯 무거운 광석배낭을 등에 지
고 구부정한체 개찰구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김승
호연구사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녀인은... 무엇이나 쉬이 감탄하기를 잘
하던 녀인은 지금 이 순간 그저 멍하니 앉아있었
다. 녀인은 감탄하는 법을 잊어버린것이다! ...

그는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그리고 어찌
서인지 그 까닭도 딱히 모르면서 녀인은 축축히
젖은 눈굽을 닦으며 하염없이 그냥 손을 저었다.

《잘 가세요! 연구사동지, 저도 우리 은경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어요! 성실하고 참된 그
런 사람으로... 꼭 그런 사람으로... 그런... 그런
사람으로...》

어느덧 연구사의 모습은 다른 렬객들속에 묻혀
조그마한 재빛점으로 변하였고 그것은 다시 역
사의 푸른 지붕과 어울려 한동안 가물거리다가
마침내는 아득한 공간속에 녹아버렸다.

지금까지의 모든것이 뒤로 멀리 물러나고 렬차
는 여전히 새로운 역을 향하여 달렸다.

여전히 녀인은 은경의 머리를 다독이며 생각에
잠겨있었고 청년은 종착역이 가까와옴에 따라
불안에 싸여 안절부절을 못했다.

여전히 차장은 밀어올린 그대로였고 그리로부
터 세찬 맞바람이 쓸어들어왔으나 감각하지 못하
고들 있었다. 한계도에 몸을 실은 우리의 각이한
려객들은...

고향아!

최준경

산천이 정다워서 못잇는것인가
나서자란 품이어서 그리는것인가
다박술 푸른 전호가에서
내 조용히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속에 애뜻한 향수 풍겨주는곳-
고향, 고향이란 과연 무엇인가?

고향은 생활의 첫 요람
대대로 삶의 피줄기가 이어지는곳
거기에 허리굽은 나의 할아버지가
푸른 하늘에 머리 들 권리를 안고
첫 람홍색 국기를 꽃던 정든 집이 있이라
아침저녁 세월의 때 낄세라
할머니가 백옥같이 빨래를 헤우던
맑은 시내 푸른 강반이 비껴있어라

또 거기에 나의 아버지가
령넘어 전선으로 떠나던 날
다시금 바라보던 분여지의 살진 땅도
어머니가 모기불가에서
자식들의 먼길을 그려보며 불러주던
여름밤의 애틍어린 자장가도 스며있어라

고향
거기서 나의 삶의 첫 노래가 울렸다
뜨락에 뿌리내린 백일홍같이
나의 조국애의 첫 봄색이 움터났다
출생증과 함께
제 이름석자를 삶의 권리로 간직하고
내 축복의 첫 걸음마를 땀 때
해빛은 그 얼마나 재글재글 비쳐주었던가
송진내 풍기는 배움의 창가에서
모국어와 애국가를 배우고
백두의 전설과 조국의 옛말들을 들을 때
아, 두루미 나는 창너머 하늘가로
나의 꿈은 또 얼마나 높이 나래졌던가

고향
거기서 나의 청춘기가 시작되고
나의 삶의 모든것이 망울터쳤다
불랐던 산언덕에
문화주택 학각지붕들이 솟고
사과 배 꽃들이 구름처럼 되어 스적일 때
내 이름 다시 공민증에 옮겨 써놓고

로동으로 행복을 가꾸는 법을 배웠다
거기서 고향을 조국이란 말로
조국을 수령님 품이란 말로 이어부르며
꽃피는 락원의 향기에 취해
사랑과 은혜의 첫 시를 눈물로 썼더라
거기서 소중한 행복앞엔 반드시
총멘 수호자가 서있어야 함을 깨닫고
이웃 동갑들과 나란히
아버지 군화자욱이 찍혔던 동구길에
나의 군화자욱을 덧놓았어라

정녕 고향이란 무엇인가?
나의 군인중에
다정한 그 이름 다시 새겨안고
내 지금 전호가에서 생각하니
사무치게 그리운 그 모습
뜨거웁게 젖어오는 그 숨결
오만가지 아름다운 형상으로 떠올라라

오, 고향
너는 어머니와 아기의 피줄이 이어지고
시내물이 큰 바다와 하나로 합쳐지듯
해와 별 빛나는 조국의 큰 품으로
내 운명의 숨결을 값높이 이어준
다심한 모성애의 집
너는 벗과 원썬을 가려보는 계급의 눈을 퇴워
푸른 산 푸른 들 너머
아버지가 섰던 조국의 대문가로
이 마음을 손저어 떠나보낸 생활의 첫 뜨락
때로는 아침 저녁 노을빛에도 어려와
조국의 한치 땅도 살점같이 아끼라고
내 심장을 다독이는 조국애의 속삭임
너는 나의 출생증과 공민증 군인중에
그리고 때묻지 않은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뉘도 지울수 없고
그 뉘도 빼앗지 못할 영원한 애정의 노래

오, 그때문에
너를 사랑하면 애국자가 되고
너를 저버리면 역적이 되나니
믿어다오
내 조국의 대문가에 위훈의 탑을 쌓고
청사의 향기높은 꽃이 되어
뿔뿔이 돌아가 다시 안길 품
고향, 고향 나의 량심이여!

조선, 그 이름은

문성락

1

해쫄는 동방에 쫄아
그 이름 조선이라더냐
해돋이 아름다워서
그 이름 아침의 나라더냐

아득히 먼 옛적부터
그대 바다우에 해가 쫄고
그대 하늘에 별이 돋았어도
한줄기 빛도 비쳐들지 않았거니

맑은 아침
눈부신 해빛을 두고
그대 이름 불러봄은
이 나라 인민들의 소원이었더냐

빛이 밝다고
빛을 따라 지은 그 이름
빛이 없어
어둠속에 잠긴 조선

빛이 없어
한떨기 꽃도 피지 못한 땅
빛이 없이
망국의 락조 비졌거니

바닥 없이 깊어가는 밤
아, 조선 그대는
한줄기 빛을 찾아
동방에 쫄아오르지 않았더냐

2

광막한 대륙의 그 한끝까지
빛을 찾아 굽어 살피라고
간절한 세기의 소망
가장 높은 지붕으로 받들어올렸는가

풍파많은
이 나라의 역사를
년륜처럼 감아안고
천년을 만년을 산 백두산

해빛을 먼저 없자고
하늘우에 쫄고
별빛을 먼저 받아안자고
산상에도 상상봉이 되지 않았더냐

하지만
세기의 밤은 깊어가고

검은 구름 휘감겼으니
그대 머리우에 한점 빛 어이 비치랴

빛이 없어
얼어든 그대 가슴
세월의 흐름속에
만년설로 덮이고

빛을 그려
안타까이 그려
그대 머리
백발로 희어졌더냐

숨막히는
어둠의 장막 헤쳐보려
지심끓는 화염을
분화구로 터뜨린 천둥소리...

아, 언제부터냐
그대 머리우에
해빛 비치고
천고의 밀림 설레이던 그날은

위대한 수령님
그대 산정높이 오르시여
누리를 밝히신 주체의 해빛
그것은
조선아, 너의 첫 해빛이었다!

3

하늘의 태양 불멸하듯
인류가 찾아안은 주체의 해빛
순간인들
이 땅우에 꺼짐있으랴

이 세상 끝까지
주체의 해빛아래 살 불타는 념원
시대의 간절한 그 념원이
또 한번
위대한 태양
세기의 창공에 받들어올렸나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는 인민의 지향안고
백두산에 높이 쫄아오르신
향도의 해빛!

영광이여라 행복이여라

빛이 없어 세상에 빛을 잃은 조선
가장 밝은 빛발에 싸여 누리에 빛나는것은

아, 력사의 그날
이 나라 조국의 산 백두산은
세월의 한끝까지 비쳐줄 빛발
머리우에 없었도다

주체의 태양아래 향도의 별빛아래
이 땅우에 지구우에
광명한 미래 찬란히 비끼고
낮에도 밤에도
창조의 무지개 아름답게 꽃피나거니

어디서 온것이나
조선의 아침은
어디서 비쳐왔느냐
영원한 삶의 해살은

아, 백두산에서 펼쳐진
주체의 하늘
백두산에서 시작된 조선의 아침

뉘라서 오늘을 내다보고 그대 이름 지었는가
뉘라서 오늘의 환희 그대 이름에 담았는가

아, 조선, 조선이여
그대 이름 맑은 아침의 나라
위대한 수령님 모시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모시려고
동방일각에 솟아난 나라

세계를 밝히는
주체의 해돋이
위대한 태양의 영원한 빛발로
그대 이름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나누나!

붉은넥타이 시절

박세일

동무들아 다 자란 오늘에도
우리 못잊어 그리운 시절
그리워 추억하는 시절이 있지
붉은넥타이 시절!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
기억에도 생생한 그 시절의 노래여
노래처럼 추억도 즐거운 시절이여

새둥지를 터는 재미 그리도 좋아
숲속에서 벌을 맞던 그런 추억만으랴
그렇다, 우리 어찌 그 시절을
철이 없던 때라고만 말할수 있으랴

지금도 둥! 둥! 그날의 북소리...
한갓 아이들의 행진이 뭐라고
말해보자 어째서 그 술한 차들이
한쪽에 비껴서며 길을 내줬나

조숙의 새날을 마중가는 세대라고
혁명의 래일을 떠메고갈 세대라고
날마다 펼쳐보던 신문도 《새날》
달마다 받아보던 잡지도 《새희망》

넋이면 투사들의 넋을 지니라
백두의 령봉에 타고르던 해불이

그 시절의 첫날부터 가슴앞에 반짝이던
소년단휘장속에 불타올라

자랑하자, 우리는 그 나이에 제법
꽃길만이 아닌 눈길도 걸었지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추억속에 한줄기 떠오르는 길

길을 가도 이렇게 뜻이 깊은 길을 가며
동무를 사귀어도 아동단원들
붉은넥타이로 하여 우리와 한모습인
그들을 마음의 첫동무로 사귀며

《항상준비!》
그 인사와 더불어
혁명앞에 조국앞에 준비해온 시절이여
붉은넥타이 시절이여

지금은 멀리 흘러갔어도
추억속에 노래속에 함께 있는 그 시절은
당을 따라 나선 우리 삶의 첫자욱을
씨앗처럼 받아들인 인생의 봄시절

다른 색을 몰라야 할 우리들의 심장이
그때 벌써 한빛으로 물들여졌구나
붉은넥타이 그 시절에
붉은넥타이 그 하나의 빛으로!

련시

한 당일군의 일기장에서

리석

꽃밭에서

꽃이 피어 벌이 날아오는가
벌이 있어 꽃이 피는가

꽃이 피어 벌이 모여오는것 아니라네
벌이 있어 꽃피는것 아니라네

향기가 있어 꽃이 아름답고
향기풍겨 벌이 날아든다네

벌이 날아들지 않는 꽃은
피여도 꽃은 아니라네
아, 내 언제면 그 언제면
비바람속에서도 향기풍겨
벌이 모여들게 하는
영원한 꽃향기
정치적향기 될수 있을까

출근길에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소리 없이 봄을 알려줄 때
배나무 두그루
공장정문앞에 심었네

물기오른 잎새들
살랑거리며 키다잡힐 때
하얗게 핀 배꽃이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낼 때
꽃을 보고 즐기는 아이처럼
내 발걸음 선뜻 옮기지 못하였네

푸르싱싱한 계절이 지나

공장 뒤산에 빨갛게 물들 때
가지마다 휘여지게 무겁게 달린 배
퇴근길에 오른 무쇠가슴 흔들어놓았네
-땅이 좋아 배가 저렇게 크다고
-밀거름 좋아 배가 이렇듯 무겁다고

아, 출퇴근길에 느닷없이 하는 말
나에겐 레사롭지 않게 들렸네
보이지 않는 땅속깊이에서
내 되리라
봄내 여름내 싹을 틔우고 단즙을 주어
알찬 열매 맺게 하는 밀거름이

생활의 한토막

사흘째 불어댄 눈바람에
굽니던 강반도 얼어붙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
-올해추위는 보기도문 추위라고

아니 저게 누구냐,
 술두께같은 얼음장까고
 얼어붙은 말뚝처럼
 낚시대 드리운 저 사람은
 -이 추운 날씨에 얼음장우에 앉아
 고기잡이하다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했으나 들었는지 말았는지

그 누가 또 한마디
 -하구싶지 않은 일은
 여름에도 손발이 시리지만
 하구싶어 하는 일은 살을 에이는 추위도

봄바람처럼 느껴진다오
 ...
 ...

아, 추운 겨울날.
 강반에 홀로 앉아있는 낚시꾼을 두고
 사람들이 즐겁게 주고받는 말
 이 가슴 깊이깊이 울려주누나

-너에겐 천만심장 끌어당길줄 아는
 크나큰 힘이 있느냐
 -너에겐 무슨 일이든 하고파하게 하는
 저렇듯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느냐
 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인상깊은 겨울날이어

저녁노을 붉게 비낀 강변에서

저녁노을 붉게 비낀 강변에서
 내 바라본다
 이랑이랑 밀려오는 물결을

 철썹철썹 처절썹-
 약속한듯 어김없이 하루 한번씩 찾아와
 하이얀 화강암층계를 때리는 물결이어

어머니 없이 순간도 살수 없어
 그 품을 떠나갔다가는
 다시 찾아와 안기는 아이던가
 흰 물갈기를 일으키는 강바람은
 다심한 어머니의 뜨거운 입김이던가

강 량쪽기슭에 하이얗게 다듬어
 층층이 쌓아올린 저 눈부신 돌층계는
 찾아오는 아들을 한품에 그리안아주는

어머니의 두팔이런가

 밀려오고 밀려와
 강기슭에 뿌려지는 물보라 물보라
 주절주절 어리광부리며
 풍만한 어머니젖가슴에 안기는듯

저녁노을 붉게 비낀 강가에서
 내 생각한다
 하루 한번씩 밀려가고 밀려오는
 저 썰물과 밀물의 흐름을 바라보며

안아주는 그 품이 따사롭고
 안겨사는 그 품이 못건디게 그리워
 온 나라가 찾아오고
 온 세계가 달려오는
 아, 은혜로운 품, 우리 당의 품을

빛나는 삶

리일복

길었던 짧았던간에 한 인간의 한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같이 지내보지 못한 사람, 벌써 세상을 떠난지 오랜 사람에 대해 말한다는것은... 복잡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 그려하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작가 김사량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들중의 그 누구도 그와 전인생행로를 함께 걸어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삶의 구간구간마다에서 함께 지내온 사람들, 단편적이거나 그의 생활을 목격할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국 작가 김사량의 삶의 모든 행로가 다 알려질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쓴다 해서 거칠다고만 생각지 말아주기 바란다. 서툴게 꾸민 이야기는 오히려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것보다 못하기때문이다.

1. 빛이 그리워

《김사량동무는 나의 입당보증인이였습니다.》

마가울의 해빛이 진한 단풍빛에 물들어 빨강계비쳐드는 산골짜의 아담한 방에서 희곡작가 박동무는 이야기꼭지를 이렇게 떼었다.

김사량보다 여덟살이나 나이가 아래라는 그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짙게 내려있었다. 류달리 담배를 즐겨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는것이 먼 추억, 잊지 못할 사람에 대한 생각을 쉽게 불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인지 그는 련속 줄담배를 피워물며 이야기의 실꾸리를 풀어나갔다.

《내가 그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것은 그의 처녀작 단편소설 <토성량>을 읽은 때부터였습니다.

소설은 일제강점하에서 짓밟히고 천대받던 최하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을 진한 사실주의적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내고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후 그의 출세작인 단편소설 <빛속으로>와 단편소설 <물오리섬> 등 일련의 작품들을 읽으며 나는 작가가 침략자에 대한 반항정신이 강한 민족주의자이며 못살고 천대받는 인민대중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랑심적인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나는 그를 찾아가 만났고 서로 뜻이 통하여 그후 오랜 기간을 가까이 지내게 되

었던것입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사이로 건너다보이는 박동무의 얼굴엔 사뭇 깊은 감회의 빛이 어려있었다.

그는 아직도 젊은 시절의 패기가 엿보이는 활달한 동작으로 손세까지 써가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의 이야기에 끌려 우리의 생각도 어느덧 작가 김사량의 젊은 시절로 거슬러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것처럼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일제침략자들에게 조국을 잃고 아무런 사회정치적생명도, 자주성도 가지고있지 못했던 김사량동무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자기를 두고 일찍부터 통탄해왔습니다.》

김사량은 평양에서 학교에 다니던 어릴적부터 일제를 미워하는 정신이 강했다.

공부를 잘해도 우등상을 주지 않았고 글을 잘 써도 일러주지 않는 세상, 일제놈들이 판을 치는 그 세상이 저주로왔다.

집을 떠나있을 때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구절에도 그러한 심경은 표현되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 나는 어쩐지 많은 사람들앞에서 상을 탈 팔자가 아닌것 같애요. 소학교를 나올 때 일이 생각납니다. 졸업식연습할 때는 우등상을 타게 되어있었는데 막상 졸업식날에는 타지 못했지요.》

이것은 공식출판물에 발표한 편지이기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힐수 없었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강한 반항의식이 여실히 나타난 하나의 작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바로 이런 반항과 울분의 감정을 가지고있었기에 그는 학생들의 동맹휴학투쟁에 적극 참가하였고 후에 그 주모자로 지목되어 학교에서 출학처분까지 당하게 되었던것이다.

향학열에 불타는 가슴을 식힐수 없어 밀선에 몸을 싣고 일본땅으로 건너갈 때 그의 가슴은 얼마나 쓰리고 답답했던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니던 시기에도 그의 가슴속에서 이 울적함은 사라질줄 몰랐다.

문학공부에 여념이 없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짓밟히는 동포들에게 향해있었고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밝은 빛이 비쳐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반일감정과 민족적자의식이 강했던 그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창작적관심이 사회의 최하층에 돌리지고 작품들에 민족의 울분과 하소가 담겨지게 되는것은 응당한 일이었다.

단편소설 《빛속으로》나 《토성랑》 등 그의 초기작품들에 진하게 채색된 감정은 빛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김사랑이 자기의 첫 단편집 후기에서 자기의 이 애타는 심정을 밝힌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현실의 무거운 고통에 짓눌리어 나의 눈길은 아직도 어둠에만 쏠리는듯싶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언제나 빛과 어둠속을 헤매고 긍정과 부정사이를 누비면서 휘황히 타오르는 빛을 찾으려고 모대기고있다.

빛속으로 어서 나가고싶다. 그것은 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빛을 우러르기 위하여 나는 혹시 아직도 더 오래 어둠속에 몸을 움츠린채 눈만 반짝이고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작가 김사랑의 좌우명이랄가. 하여튼 당시 그가 바란 간절한 소원이었지요. 그의 소설들에는 로골적이든 은폐된 형식이든 이 빛에 대한 강한 갈망이 어려있었습니다.》

희곡작가 박동무는 옛기억을 더듬는듯 잠시 말을 끊었다.

창밖에서는 어느덧 참오동나무가 자기의 넓은 잎들을 차례로 한잎두잎 땅우에 떨구고있었다. 마치 자기의 잎새들을 단번에 다 떨구기가 아쉬운것처럼, 떨어지는 잎들 역시 어머니나무에서 떨어지기가 서운한듯 곧추 떨어지지는 않고 갈지자로 이리흔들 저리 흔들하면서 마치못해 땅에 내려앉는것 같았다.

《조국을 떠나있으면서도 김사랑은 늘 조국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고향의 보통사람들의 생활을 생각했고 글로 썼지요. 일제에 대한 항거가 천대받는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으로 굴곡되어 표현된셈이지요.

단편소설 <토성랑>만 보아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원삼이나 선달이와 그의 안해 그리고 덕일로인 등 토성랑사람들은 다 일제에게 짓밟힌 삶에 대한 울분으로 가득찬 사람들입니다. 원생원같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사회에 항거했지요.

덕일로인의 로친이 양복쟁이만 보면 발작을 일으킨다는 설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장마에 움막집들이 보통강물에 금시 떠내려갈 위험에 처해있을 때 양복쟁이가 두사람이 바로 그 지대세를 받으러 나타나 돌아치는것을 보여준것은 밀없이 독자들로 하여금 주먹을 부르치게 하는것입

니다.》

《단편소설 <물오리섬>도 같은 경향성을 띤 작품이 아닐까요?》

《<물오리섬>은 <토성랑>에 비해 그 경향성에서 농도가 좀 약하긴 하지만 이것 역시 천대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착취자들에 대한 반항정신을 보여준데서는 일맥상통하는데가 있다고 봅니다.

애인을 빼앗아간 지주놈에 대한 주인공의 분노와 그 앙갚음으로 애인을 탈출시키는것, 장마물에 집도 안해도 다 떠내려가버렸지만 물오리섬을 떠나지 않고 살고있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해 침략자와 계급적원수들에 대한 항거가 여실히 표현되었습니다.

김사랑의 초기작품들인 <풀이 길다>나 <천마> 그리고 <무궁일가> 등에도 이런 사상은 크나 작으나 다 반영돼있습니다.

물론 아직 빛을 찾아 헤메던 작가의 처지에서 자기의 그 사상미학적제약성으로 하여 본격적인 항거와 투쟁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러한 상태에 있던 김사랑이었기때문에 그의 초기작품들도 그런 모대김의 흔적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었다. 사회에 변한 적극적인 반항과 더우기는 혁명적인 진출을 생각할수 없었던 그는 그때로서는 그것이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40년대초 일제의 악랄한 파쑈폭압은 그의 창작활동에서 우여곡절에 찬 동요와 굴절의 쓴맛을 안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민족의 참된 빛을 그리는 그 하나의 강렬한 열망만은 그의 가슴속에서 지워버릴수 없었으니 복잡한 생활경로를 거쳐 마침내 그의 발걸음은 빛을 찾아 중국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여기저기 널려져 떠돌아다니던 《우국지사》들도 여러명 만나보았고 조선독립을 위해 싸운다는 《독립운동자》들속에도 들어가보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빛을 찾을수 없었다.

빛에 대한 그리움은 그럴수록 더욱 강렬했다.

그러던중 마침내 그의 시선은 조국의 북변에 민족의 기상을 담아 거연히 솟은 백두산으로 쏠리게 되었다. 순간 섬광처럼 번쩍이는것이 두눈에, 뜨거운 가슴에 어리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조종의 산 백두산! 바로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참된 희망의 빛이 온 조선에, 온 누리에 발산되고있음을 발견했을 때 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른 활화산과 같은 격정의 분출을 무엇으로 누를수 있었으랴!

마침내 이제야 김사랑은 것처럼 그리고그리던 민족의 참된 빛을 발견하고 격동에 휩싸이게 된 것이었다.

《백두산에서는 김일성 장군부대가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옆구리에, 심장에, 미간에 불덩어리를 퍼

붓고있지 않는가.

…**김일성**장군부대는 백두산밀림을 꿰뚫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르내리며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고 적의 간담을 썩늘케 할뿐아니라 한편으로는 국내인민들을 더없이 고무하고 지도하고 영향을 주고있다.

이와 함께 천재적인 전략전술과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조직력, 거기에 군중에 대한 헌신적복무를 다하여 그 은위를 국내에까지 뻗치고있다.》

그러면서 그는 격조높이 **김일성**장군을 《우리들의 조국을 빠짐없이 비치는 태양》에 비유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태양부대>라고 썼다. (1945년 7월에 쓴 장편기행문 《노마만리》에서)

《그러니까 김사량은 마침내 자기가 그토록 찾던 빛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면서 받아안게 되었군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때 벌써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러보게 되었으며 그이께서 이끄시는 항일유격대를 <태양부대>로 보게 되었던것입니다.》

《<태양부대>! 참 꼭 들어맞는 멋진 표현이군요.

그토록 빛을 그리었던 김사량이었던만큼 이 위대한 태양과 <태양부대>를 발견했을 때의 그의 격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감이 있다면 복잡한 생활경위때문에 그가 그 원대한 태양의 빛을 너무 늦게야 받아안게 된 그점이지요.》

《그러나 늦은감은 있지만 그가 그 빛발을 받아안은 그때부터 그의 삶에선 전환점이 마련된것이 아니겠습니까.》

《웁습니다. 이때로부터 작가 김사량의 정신생활에서 그리고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었다고 볼수 있지요.》

그것은 정녕 새출발의 중요한 계기였다.

김사량은 새로운 신심을 가다듬고 백두산을 우러러보았다.

바로 그무렵 그는 조국해방의 경사로운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그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조국땅으로 향하였다.

그가 장가구를 거쳐 열하땅 승덕에 이르렀을 때는 1945년 10월중순경이었다.

그는 무선기를 리용하여 해방된 조국의 첫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방송보도를 통하여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반만년 오랜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그리고그리던 위대한 민족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모란봉공설운동장(지금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개선연설을 하셨다는 희소식은 작가 김사량의 가슴에 류다른 감흥과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고향집이 바로 그 모란봉공설운동장 근처에 있었던것이다.

그는 저도 모르게 두볼로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달리는 렬차안에서 수첩을 꺼내어 격동된 자기의 감정을 글로 써내려갔다.

그것이 바로 수필 《소년고수》였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썼다.

《3.8도선의 장벽과 국내의 혼란상이며 반동의 흉모를 전하는 소식에 짓눌렸던 울적한 가슴속에 휘황한 해발이 비쳐움을 느꼈다.

…

<장군이 돌아오셨다! >

<령도자께서 나타나셨다! >

장군의 이야기로 차안이 흥성거렸다. 해방의 기꺼움이 더욱 가슴속에 벅차오르는듯하였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실수 있다는것은 참으로 행복하고도 영광된 민족이기때문이다.》

이 한대목의 글을 놓고서도 우리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 위대한 령도자로 우러러따랐는가를 알수 있으며 수령님의 조국개신소식을 얼마나 크나큰 격동속에 접했는가를 알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것은 지시나 강요에 의해 끌어당길수 없으며 예측과 억누름으로 틀어질수는 없는것이다.

만민이 흠모하며 따르는 위인은 사람들의 심혼을 틀어잡는 최고로 정화된 인간다운 품모를 지니고있으며 대중을 위해 자신을 바침으로써 대중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는것이다.

사심이 없이 인민대중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령도자는 자연히 의리의 힘으로 대중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작가 김사량이 벌써 일제의 압당한 통치시기에 희망의 빛을 주는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따르게 된것은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위한것이 결코 아니였다.

그는 식민지민족의 뼈아픈 노예살이속에서 자기의 실제체험을 통하여 이 짓밟힌 민족을 구원하실분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밖에 없으며 민족의 희망, 밝은 앞날은 오직 그이께서 비쳐주시는 그 찬란한 빛발속에 있음을 심장으로 공감했기때문에 스스로 그이를 우러러따르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이께서 개선하신 해방된 조국 북반부로 찾아오게 되었던것이다.

하기에 김사량은 조국에 돌아온 첫순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희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쏠리는 그의 마음은 너무도 강렬한 것이어서 일각이 천추같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사량의 이 간절한 소원을 헤아리시고 그가 조국에 돌아온지 얼마 안된 어느날 친히 그를 만나주시었지요.》

가을의 푸른 하늘에서 내려쬐이는 해빛이 넓은 창문으로 비쳐들자 방안은 점차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졌다.

희곡작가 박동무는 이제는 아예 담배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이야기를 회상해낼 수 있다는 듯 담배갑을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열정에 넘쳐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도 흥분되는 가슴을 다잡으면서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당, 건국, 건군의 그 바쁘신 사업을 잠시 뒤로 미루시고 김사량을 매우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대견히 그를 바라보시며 김사량동무는 일제의 식민지탄압속에서도 량심과 지조를 지킨 지식인라고 높은 치하를 주시면서 그의 가슴에 웅이진 상처를 쓰다듬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일제를 반대하여 쫓겨온 그의 행동을 애국적소행이라고 평가하시면서 문화인은 새 조국 건설에서 로동자, 농민과 함께 세계의 큰 기둥으로 되어야 하며 문화인중에서도 특히 작가들은 선전교양자적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나뵈고 귀중한 교시까지 받은 김사량의 영광과 행복은 참으로 컸겠군요.》

《아무렴요. 그 감격과 기쁨이야 하늘끝에 닿았었지요.》

나는 그후 그의 창작수첩에서 그날의 감격을 적은 다음과 같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강철같은 의지의 사람인 동시에 태양같은 정열의 사람이다.

처음 대할때 아무 수식도 없는 덩덤함에서 장군의 인간성의 순진함을 느꼈다.

그이는 말하자면 명예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받는 분도 아니요. 또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일부러 겸손을 꾸미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위세를 부리는 분도 아니다.

장군은 무인으로서의 강직한 한편에 비상이 능

숙한 수완과 지론을 가진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순진한 한편 팔면명룡한 재기를 가진 사람이다.

또한 리론적전개는 한결 더 빛나는바가 있었지만 그 인간적광휘는 영체를 돋우는 찬란한 빛발이요. 아니 태양이라 함이 천만지당하다.

...장군의 성격이 비상이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이의 과단성이 정의와 선이라는 심리미에 의하여 화음화되어있기때문이다.>

보십시오. 얼마나 꾸밈없이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입니까. 이것은 김사량이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고 얼마나 감격하였으며 얼마나 그이를 우러러 흠모하게 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술회라고 생각됩니다.》

《웁습니다. 말하자면 이제야 김사량은 그토록 바라고바라던 광휘로운 태양의 빛발속에 들어선 것이며 불멸의 광원인 태양의 품에 안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번 안기기만 하면 영원히 사람답게 사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 자손만대 행복을 주는 은혜로운 어버이품에 김사량은 안기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당이 창건된 직후에 곧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당의 당원으로 되었던것이며 그후 나의 입당을 보증하게까지 되었던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자로부터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자라났던것입니다.!

창문에 닿을듯 드리운 단풍나무가지에서 단풍잎들이 어찌나 빨갭게 타던지 방안은 노을빛에 물든듯 붉은 색으로 가득찼다.

우리는 말없이 그 단풍잎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어느 시인이 쓴 단풍에 대한 노래의 가사가 떠올랐다.

꽃도 열매도 부러움없이 봄, 여름 성실히 자라고자라서 마침내 가을에 이르러 모든것이 시들어갈 때 단풍잎만은 해빛을 받아 붉게붉게 탄다는 그 가사의 내용을 새겨보니 무엇인가 김사량의 인생행로가 그와 비슷한데가 있는것 같았다.

광풍 모질던 그 수난의 시기에 꽃도, 열매도 없이 시달리다가 해방된 그때에야 태양의 빛발아래 붉게붉게 피어난 그의 운명과 같이...

가없이 맑고푸른 하늘중천에서 태양은 더 밝게 빛을 뿌리고 풍년든 대지에서 트랙토르소리가 가락맞게 들려왔다.

(다음호에 계속)

제 2 의 벗

리호선

제법 어른이 다 된듯 흥겨운 노래를 들판이 째저라고 부르며 우리는 황혼에 물든 동쪽길을 즐겁게 걸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에 비구름이 뿔다. 애국렬사묘로 올라가는 자갈 깔린 넓은 길옆에 꽃밭을 만드는 작업은 저녁녘이 거의 돼서야 끝났다.

퍼런 물줄기가 긴 칼로 대기를 죽죽 찢고 천둥소리는 하늘을 두드렸다. 비방울은 성근 채불사이를 빠지듯 후둑 후둑 땅에 떨어졌다.

나는 작업총화를 지으려고 학급 동무들을 길한쪽에 정렬시켰다. 그런데 동무들의 눈길은 대렬앞에 선 나를 보는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곳을 바라보고있었다. 저기에선 비가 쏟아지기전에 마저 작업을 끝내려고 조급해난 녀학생들이 정신없이 돌아치고있었다.

나는 《헛!》 구령을 치고 그들에게로 뛰어갔다. 녀학생들의 손에서 곡괭이들이 남학생들의 손으로 옮겨지고 삽날이 번쩍거렸다.

학교에선 복도에서 마주 오가며 만나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던 그들이 갑자기 무슨 말이 그리도 많아졌는지 작업장은 왁작 끓었다.

어느 작업조를 보나 예없이 흥성거렸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다.

녀학생들은 수집은 얼굴로 소랭이마다 가득 담긴 맑은 물을 우리 남학생들앞에 놓아주었다.

우리는 굳어져 서로 등을 밀며 누구도 먼저 소랭이에 손을 담그지 못했다. 그러나 비줄기가 굵어지자 와- 달려들어 흙물은 손을 절벽거리며 씻었다. 동작이 굼떠 마지막에 남은 친구들은 소랭이 흙물을 쏟아버릴 생각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 황황히 달아났다.

녀학생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그들의 등뒤에서 울렸다.

벌써 채찍같은 비줄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또한 물보라가 일고 도랑물이 소리치며 흘렀다.

나는 하숙집을 향해 비속을 걸었다. 어깨에 작은 보자기 한개 걸치지 못한 나는 고스란히 비를 맞았다.

옷속으로 스며든 선득선득한 비물이 몸을 타고 줄줄 흘러내리고 옷은 살에 붙어 끈적거렸다.

얼마쯤 걸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비가 미치는것 같아 주춤 걸음을 멈추는 순간 나는 머리우에 받쳐진 까만 우산을 보았고 다음은 옆에 다가선 녀학생의 해맑은 얼굴을 보았다.

(영숙이!)

한학교 같은 졸업반이어서 얼굴과 이름은 알고도 인사말 한마디 건넨적 없는 그였다. 나는 어디서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것만 같아 당황하여 한걸음 우산밖으로 나섰다. 그러자 그는 더 가까이 다가서며 나에게 우산을 내밀고 자기가 비를 맞았다.

《아 옷이...》

나는 어쩔줄 몰라 그에게로 우산을 기울였다.

우리는 한 우산밑에서 걸었다. 비줄기가 우산지붕을 요란스레 두들겨댔지만 나는 소란스러운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동무네가 아니면 우린 아직 작업을 끝내지 못했을거예요.》

...그날부터 영숙은 나에게 있어서 가까운 동무로 가슴속에 자리잡혔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호수가에서 만났다. 황혼이 깃든 저녁길을 걸으며 동무들과 함께 부르던 《열아홉살 산간에서 고이고이 자란 저녁》라는 노래구절이 떠올라 나는 영숙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생각없이 흰 덧이를 드러내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

《그 반에선 대학 몇명 가요?》

《다섯명.》

《어느 대학 지망했어요?》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나의 그 대답에 영숙은 갑자기 얼굴색이 확 밝아져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아이 그래요? 난 어문학부예요.》

나도 즐거웠다.

아직은 인생의 먼길을 떠나 첫걸음에 만난 길손파도 같았지만 그래도 어쩐지 우리는 서로 가깝게만 느껴졌던것이다.

《집은 어디 있어요?》

그가 또다시 나에게 물었다.

《멀지요. 봉산은 밤나무그늘이라는 노래 들어봤습니까?》

《알만해요. 인심 좋고 산수 아름답다는 황해도 봉산... 아버지랑 다 거기 계세요?》

《아버진 적들에게 피살되고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있지요.》

나의 그 말에 왜서인지 영숙은 먼곳을 이윽도록 바라보더니 낮아진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했다.

《우리 아버지도 일전에 우리가 꽃밭을 만들던 그 려사묘에 안치돼있어요. 우리 집에도 어머니 하구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 자꾸 앓아요.》

그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그가 측은하게 느껴져 나는 청하지도 않은 우리 가정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영숙은 새삼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철수동무네 고향은 예서 먼가요?》

《여기서 200리 떨어진 신골에 있지요. 산속깊은 마을이어서 안골이라고 한답니다. 전쟁때 여기 안악땅에까지 왔다가 전후에 다시 고향으로 이사했지요.》

《그때 왜 어머니랑 같이 안갔어요?》

《우리 마을은 산골이어서 고급중학교에 가자면 80리가 넘는 읍에 나와야 되지요. 그럴바하군 여기 동무들을 떨어져 가고싶지 않더군요.》

《안가길 잘했어요.》

영숙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부끄러웠던지 얼굴을 살짝 붉혔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바위우에 앉아있었다.

그후에 영숙은 나를 찾아 더 자주 하숙집으로 놀러 왔다. 우리는 책상에 마주앉아 외국어단어를 익혔고 수학공식을 풀었다. 공부에 싫증이 나면 집앞을 흐르는 내가로 달려가 모래판에 앉아서 이야기관을 펴곤하였다.

내가 전설이나 애국명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영숙은 정기 그윽한 눈매로 나를 바라보며 시간 가는줄 몰랐다.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어린애처럼 졸랐다.

나중에는 《왜 나만 하라는거요?》 하고 내가 되물곤해야 그는 웃음을 터치며 자기도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소설이야기였다.

어느날 나는 학급동무들에게 이끌려 사진관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뜻하지 않게 너학생들도 와있었다. 그들속에서 영숙을 보는 순간 나는 동무들이 왜 여기에 모였는가를 대뜸 알아차렸다.

너동무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나서 나는 생각에 잠겼다. 뿔을 찢 때면 반칙을 놓고도 아니라고 억지를 쓰던 나의 동무들, 풀밭에선 풀물이 들도록 불안고 돌아가던 우리 동무들의 가슴에 언제 이처럼 소중한 꿈이 깃들게 되었을가...

졸업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가슴은 희망으로 더욱 들떴다. 어떤 동무들은 들끓는 관개건설장에 나가 힘껏 일할 꿈을 꾸었고 어떤 동무들은 공장으로 들어가 로동계급이 되겠다고 주먹을 흔들었다.

나도 입학시험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날도 나는 아침밥을 먹고 나갔기 바쁘게 책상에 마주앉아 눈을 감고 수학공식을 외웠다. 갑자기 문두드림 소리가 나더니 문가에 영숙이 나타났다.

방안에 들어선 그는 웃기부터 하더니 종이로

네모지게 쓴것을 내앞에 내밀었다.

《세면주머니인데 대학 가서 써요.》

순간 나는 그 가룩한 마음에 가슴이 후터워져 한동안 말없이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진정에 넘쳐 웨쳤다.

《대학에 입학하는날 이 값으로 대동강 꽃배에 태워줄테요.》

《정말이야요?》

《정말 아니문.》

《그럼 약속하자요.》

그는 내앞에 손가락을 펴들었다. 나도 서슴없이 손을 내밀었다.

(꼭 지켜줄테다.)

나는 그때 이렇게 속다짐하며 그의 작은 손가락을 걸고 흔들었다. 영숙은 어린애처럼 즐겁게 웃었다. 나도 따라웃었다.

바로 그날이었다. 집에 찾아온 우편통신원은 어머니 병이 급하다는 전보 한장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 나는 그 순간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날 나는 영숙의 바래움을 받으며 하숙집을 떠나 20리가 넘는 길을 밤낮 걸어 고향땅에 들어섰다.

8년만에 보게 되는 꿈결에도 그림던곳이었다. 록음이 우거진 아아한 산밭은 옛모습 그대로였고 소꿉시절 미역 감던 시내물은 그때처럼 소리치며 흘렀다.

산 좋고 물 맑아 산수면으로 불리운 고향, 바라보면 볼수록 산촌은 더 유정하고 아름다웠다.

고향집앞에 이르니 옛집은 이전처럼 밤나무밑에 아담하게 서있고 터밭 울바자에는 호박꽃이 노랗게 피었다. 나는 문득 어려서 부르던 노래가 떠올라 마당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각담에 호박꽃 노랗게 피면

지붕에 박꽃도 하얗게 피조

닐리리 봄나비 날아들어오는

개울옆 우리 집 제일 좋아요

내가 대문을 열고 뜰안에 들어서니 마침 뜰안 가득찬 닭들에게 아침모이를 뿌려주던 어머니는 놀란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건강한 어머니를 보게 되니 기뻐 벅글거리며 어머니한테로 다가갔다.

《않는다더니 어떻게 된거예요?》

어머니는 모이든 바가지를 던지고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방안에서 누이동생이 뛰쳐나와 어린애처럼 매달렸다.

《오빠 놀랐죠? 전보는 내가 쳤어요. 리당위원 장아저씨를 만나보랴요. 계획이 요란하지요...》

《말두 많다. 어서 닭알을 삶아라, 노란결루 팔라서.》

어머니가 누이동생을 나무람하듯 말했다.

나는 그날 한낮이 되어 십리가 넘는 리소제지

로 나갔다. 리당사무실에 들어서니 앉은뱅이책상에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있던 리당위원장아저씨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저씨, 철수예요.》하고 내가 말해서야 그는 펄쩍 일어서서 넓은 품에 나른 와락 끌어안았다.

《네가 왔구나 철수! 이렇게 컸구나 어디 보자... 꼭 아버지구나... 그래 아버지야! 이게 몇년 만이냐? 12년이지. 넌 그때 아홉살이었어. 외삼촌 결혼식날 내가 너한테 술을 한잔 먹었는데 넌 최서 넘어지고 난 너의 아버지한테 욕을 먹었지.》

리당위원장아저씨는 나의 손을 잡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내가 어린시절 회억에 남긴 아저씨 얼굴은 지금보다 꼭 흰것 같았다.

그때 아저씨는 마을 누나들에게 그네를 매주러 높은 밤나무아지에 기여오르던 젊은 아저씨였다.

그때는 넓은 이마에 주름살들이 없었고 턱밑에 패인 흠집도 나지 않았다.

나는 생각에 잠겨 아저씨 얼굴을 지켜보았다.

《내가 늙었지. 네가 소년으로부터 청년이 된것처럼 나는 한고개 넘어졌지.》

아저씨는 빙긋이 웃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고향에 돌아오니 가족두 너희두 다 없어졌지 마을엔 농사지를 소 한마리 안남았지 정말 그땐 앞이 캄캄했다. 그래도 이 땅을 뜰수가 없어서 세대배당을 베풀어놓고 무너진 집터를 닦았다.》

아저씨는 가슴아픈 그때를 회상하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한동안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얼마후에 아저씨는 말머리를 돌려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참 내가 손님 접대를 잘못 하는군.》

《아닙니다. 오늘중으로 학교에 갈래요. 아저씨 만나보구...》

나의 그 말에 리당위원장아저씨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지켜보다가 웃는 얼굴로 말을 꺼냈다.

《김일성 종합대학 력사학부에 추천받았다지... 꿈같은 일이다. 숯구이 아들이 대학이라...》

그리고는 일어서서 한동안 방안을 거닐었다.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다.

《너하구 토론해보고싶은 일이 있어 불렀다. 지금 당은 어려운 초소로 청년들을 부르고있다.

전쟁에서 파괴된건 복구했어도 새로 건설할것이 얼마나 많은냐. 판개공사도 계속 해야지 큰 공장들도 지어야지 철길들도 더 많이 놓아야지. 우리 농장만 보더라도 청장년들이 지금의 다섯배는 더 있어야 돼... 그러나 농사일은 한사람이 열몫을 해서라도 밀어가겠는데 네가 꼭 말을 일이 있어 그런다. 당에서는 안쪽에 열다섯명 아이들을 위해 이 바쁜 속에서도 학교 하나를 새로 세

워주었는데 사람까지 내라고 손이 나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나는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라 머리를 숙였다. 아저씨는 내가 대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것이다. 말은 내치하지 않아도 아저씨의 말속에는 또 다른 말이 울리고있었다.

《그만큼 당에서 키워주었으면 인젠 너두 당에서 어려워할 때는 도와나서야 될게 아니냐.》

아저씨가 나한테 이 말을 하자고 결심하기까지는 얼마나 생각이 많았으랴... 나를 자기처럼 믿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수가 없는것이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 아저씨앞에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다.

나의 눈앞에는 나를 따라나서던 영숙의 얼굴이 삼삼히 어려왔다. 언제쯤 오겠는가, 올 때도 이길로 오느냐고 묻던 그의 맑은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히 울려왔다. 나는 좀처럼 희망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한동안 말이 없자 아저씨는 일어서서 창가로 다가가다. 그는 창너머 어딘가를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희망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 정 내 결심이 그렇다면 막지 않겠다. 더 배우는것도 중요해. 참 너 우리 연화 못봤지? 중학교 3학년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아저씨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를 하면서도 아저씨는 나에게 고향의 앞날에 대하여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고향 사람들에게 흰쌀밥 먹일 이야기, 산에는 양떼가 흐르고 풀마다 황금과일이 무르도록 할 이야기를 하며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무렵 연화가 나에게로 다가와 뜻하지 않은 말을 꺼내는바람에 즐겁던 분위기가 깨어졌다.

《철수오빠 고향보다 대학이 더 좋나? 난 학교 졸업하면 여기서 일할테야. 철수오빠가 대학 마치고 오면 그때는 우리한테 와서 절해야 되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하구 말이예요.》

식구들이 모두 웃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연화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 말했다.

《까불면 못써. 철수오빠가 대학 마치고 와서 일 많이 하면 되지뭐》

《홍 대학 졸업하면 다른데 가지뭐. 여기 올게 뭐야.》

연화의 말에 리당위원장아저씨는 딸을 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기상에 질려 연화는 입을 다물고 입술만 삐죽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어쩐지 이집 식구들만이 아닌 고

향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돌림을 받는것 같아 외로운 감이 들었다.

그날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당은 지금 어렵고 힘든 초소로 청년들을 부른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날이 새도록 모대기던 나는 더 배워가지고 못한 일을 봉창하리라 결심했다.

다음날 나는 마을사람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고향을 떠났다.

리당위원장아저씨는 나와 헤어지며 웃고있었으나 그 웃음은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표정이었다.

《가서 공부 잘 하거라, 기다리겠다.》

어머니는 헤어지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쳐너들하구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 철이 되면 고사린 꺾기마련이야.》

이때 누이동생이 어머니 말을 막았다.

《젯, 어머니두 그 언닌 사진만 봐두 마음이 고울것 같애. 그 언니랑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평양 가서 신세 진만큼 다 갚아주겠어요.》

어머니는 어이없어 허거프게 웃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운 꽃은 언제나 먼저 꺾이는 법이란다.》

나는 다음날 저녁이 되며 하숙집에 들어섰다.

마침 혹시나 해서 들렀던 영숙은 나를 보자 어린애처럼 뽀뽀를 하며 내 손을 잡고 돌아갔다.

영숙은 내 말을 듣고나서 또다시 내 손을 쥐고 흔들며 열정에 넘쳐 웨쳤다.

《하마트면 다시 못만날번하군요. 》

한동안 웃고 떠들던 영숙이 돌아간 다음 나는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왜서인지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어릴적 동요와 꿈이 깃든 고향을 다녀온 기쁨보다 그 무엇에 배반당한듯한 기분이 앞섰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일가친척들을 모두 잃고 외로움에 모대졌다는 리당위원장아저씨의 모습이 떠올라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나를 바래우며 섰던 아저씨의 서글픈 눈빛이 가슴에 맺혀와 잠들수 없었다.

한끼만이라도 같이 식사를 나누자고 저저마다 이끌던 마을사람들이 생각나서 뒤척였고 대학을 마치고 돌아오면 허리 굽혀 절 해야 한다던 철부지 연화의 목소리가 귀가에 쟁쟁해 잠이 오지 않았다.

예전 그대로 6월이면 밤꽃이 하얗게 피고 시원한 박우물 맛은 잊지 못한 그대로지만 어린 나의 두손 가득 달콤한 산딸기를 익혀주고 맑은 맑은 물로 물장구 치는 나를 즐겁게 해주던 옛날의 고향은 생각보다 많이 변했다.

웃집 순이와 들에 간 부모들을 기다리며 마당에서 흙을 빚어 돌집을 짓고 풀잎모를 심던 소꿉시절의 꿈이 오늘은 현실로 꽃피고있다. 그 시절

흙장난에 해저무는줄 모르던 순이는 오늘 고향 청년들의 앞장에 선 민청위원장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고향산촌에 나무 한대 심은적 없고 넓어진 길에 돌 한개 빼지 못했다.

내가 대학 강의실에서 꿈을 익힐 때 고향사람들은 산과 들에 얼마나 많은 땀을 뿌리며 그 땅을 더 살찌우고 더 단 열매를 익힐것인가.

남이 땀들여 가군 꽃밭에서 감히 한송이 꽃을 꺾을수 없고 꽃의 향기를 몇몇이 마실수 없듯이 다 꾸려진 고향에 내 그 땅에 태어난 아들로서 가책없이 들어설수 있단말인가.

원썬들에게 아버지 잃은 우리들의 얼굴에 그들이 질세라 친어버이심정으로 새교복을 입혀 9월 초하루면 학교로 불러주었고 나의 목에 소년단 붉은넥타이를 매여주었으며 야영의 백사장에서 내 키를 자래워주고 오늘은 당의 후비대인 민청대렬에 나를 세워준 우리 당!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며 사랑의 한품에 안아 키워준 당의 부름에 내가 귀기울일줄 모른다면 나는 살았어도 인간이 아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몇번이고 그 말을 되풀이했다.

(가자. 모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가자. 2년 아니 3년만 고향을 도와주고 대학에 가자.)

나는 마음이 편안해져 잠은 잠에 들었다.

다음날이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떴다. 나는 학교에서 하숙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낮에는 바람에 설레던 길옆 버드나무도 작은 잎 한개 흔들지 않고 고요한 정적을 지켰다.

학교선생님들까지 리해시키고나니 그렇게 격동했던 나의 마음에도 정적이 깃들었다.

나는 고적한 생각에 잠겨 달빛속을 걷고있었다.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였다. 뜻밖에도 길옆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인 영숙이 서있었다.

밤이슬에 함초롬히 젖은 그를 보니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말이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속에 달빛을 밟으며 한동안 걸었다.

얼마쯤 걸었을 때 그는 격해진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모두 대학으로 가는데 왜 동무는 떨어지려고 해요? 동무는 큰 일이나 칠것처럼 고향고향 하는데 동무 혼자 고향을 꾸리나요?》

《...》

《동무는 지금 무엇인가 편협하게 생각해요!》

《...》

《꽃배를 태워주겠다고 하구선...》

《그 약속은 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됐어요. 이제는 더 동무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것을 받아두세요. 동무가 집에 다녀오면 시험 공부가 떨어질가봐 만들었던 물리공식집이에요.》

그 순간 무거운 그 어떤 부피 큰 물체를 받듯 나는 선듯 손을 내밀지 못했다.

(아 이 수백수천개의 공식과 부호들을 외우느라고 내가 새운 낮과 밤은 그 얼마였던가... 나도 대학에 갔으면...)

나는 피로운 마음을 누를길없이 수첩을 두손에 받아 가슴에 꼭 대고 나직이 말했다.

《영숙동무 먼저 가오. 인차 나도 대학에 갈테요.》

그 순간 그의 긴 속눈썹끝에 매달렸던 맑은 이슬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고향에 들어선 날 우리 마을에선 경사가 난듯 벽작 뿔었다.

리당위원장아저씨는 절절 웃고나서 내 어깨를 짚고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안골에서 나서 한우물을 마신 이 사람이 아무때라도 꼭 돌아오리라는것을 나는 의심치 않았습시다.》

...나는 6개월 도교육간부학교를 마치고 교단에 섰다.

마을사람들은 나를 도와 밤을 밝히며 학교 운동장을 넓혔고 철봉대를 세우고 꽃밭을 가꾸었다.

열다섯 아이들앞에서 나는 온종일 글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교편물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나를 따라 높은 목소리로 글을 읽고 풍금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때면 마을사람들은 들일을 나가다가도 학교로 들어와 한동안씩 대견한 눈길로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어느시기 어느때 이 산간에 이처럼 기쁨의 노래가 울리고 창창한 미래를 담은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울려퍼진말인가.

살길을 찾아 이 산속에 들어와 숲을 굽고 산열매를 따서 끼니를 예우던 조상들이 하나 둘 모여 마을을 이루고 하늘을 믿고 산다고 천덕리라 불렀다.

한해가 지나 내가 말은 분교 열다섯명 아이들은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었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다. 마을사람들도 바쁘고 나도 짬이 없었다.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마을청년들의 씨클을 지도하고 한밤을 새우며 일도 했다.

대를 물린 박우물에 뚜껑이 덮이고 길들에 흰자갈이 깔렸다. 어느 집이나 마당가에 꽃밭을 만들고 앞뒤뜰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마을로인들은 철수가 고향에 나타나더니 《한꺼

풀 벗긴다.》고 우스개말을 하였다.

록음이 우거진 여름이 되자 양무리가 마을로 들어왔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떨어진 밤알들을 산다람이들이 주어 굴속을 끌어들이던 깊은 산골짜기에 새끼양들과 어미양들이 서로 찾고 부르는 화답소리로 가득 찼다.

이런 속에 세월도 흐르고 생활도 끝없이 흘러갔다. 어느덧 들과 산관이 황금색 옷을 입더니 흰눈이 내리는 계절로 바뀌었다.

또 한해가 지나가고있었다.

나는 깊은밤 소리없이 내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사진을 꺼내보았다.

(내가 고향에 온지도 어느덧 두해가 지나간다. 동무들은 벌써 대학 2학년이겠지. 언제 가면 그들을 만나게 될가...)

그러나 이런 사색을 깨치려는듯 책상우에 정히 놓인 사진앨범속에서 박속같은 흰 이를 드러낸 나의 학생들이 방긋방긋 웃고있었다. 나의 가슴속엔 새로운 기쁨이 소리없이 갈마들었다.

그 이듬해 무더운 여름이었다. 뜻밖에도 학교 문가에 영숙이 불쑥 나타나 소리없이 웃고있었다.

나는 놀랍고 꿈만 같아 그자리에 굳어졌다.

그러나 매혹적인 하얀 덩이를 보는 순간 수업시간이라는것도 잊고 나는 달려나가 그의 손을 덥석쥐었다.

영숙의 모습은 그 사이 퍼그나 변했다. 두눈엔 사색이 깃들고 어깨까지 굵이쳐내린 머리태는 의젓한 처녀의 모습을 자아냈다.

《어떻게 여길 왔습니까?... 여길?!》

나는 흥분에 넘쳐 웨쳤다.

《뭇올데인가요워. 차도 타고 걷기도 하면서 왔지요워 호호호...》

영숙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즐겁게 웃었다.

《정말 뜻밖인데요. 학교때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다 잘들 있겠지요?》

《네.》

순간 영숙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달밝은 시내가로 나갔다.

흘러가는 시내물을 말없이 바라보던 영숙은 나직이 속삭였다.

《하숙집앞 그 모래밭이 생각나는군요. 2년전이에요. 꽤두 빠르죠?》

《생각과는 다르군요. 해놓은 일없이 2년을 보냈습시다.》

《아니예요. 철수동문 2년동안에 일을 많이 했어요. 리당위원장동지를 만났는데 날더러 동무를 데리러 왔는가고 물으며 크게 웃으시더군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더니 이제 대학으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영숙은 푸른 잔디밭을 뜯어 한잎 두잎 내물에 던졌다. 풀잎들은 물위에 동동 떠서 재롱을 부리다가는 인차 물결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시야에서 벌어지는 풀잎들을 바라보며 우리 두사람 사이도 점차 저렇게 벌어지면 어쩌나 싶어 머리를 돌렸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영숙은 다시 조용조용 속삭였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제 말을 듣고 나무람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 어려워요. 나는 리상이나 전도가 어떤 것인지 다는 몰라요. 그러나 멀리 연구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대학교 정원을 거니는 젊음은 박사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나는 늘 동무 생각을 했어요. 학과성적도 좋고 머리도 비상하다고 늘 동무들이 부러워하던 동무에겐 이 모든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믿고 싶었지요.

그럴수록 여기에 묻혀있는 동무가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또 뭔가 깨우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모두 방학에 집으로 갔지만 저는 여기로 먼저 왔어요.》

나는 험하고 먼 산골길을 걸어 나를 찾아온 그가 더없이 고마와 한동안 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웨치듯 말했다.

《고맙소. 새학기엔 동무결로 꼭 갈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머리를 들고 나를 마주보는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고 입가엔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날 나는 영숙을 멀리까지 배려워주고 돌아오며 생각에 잠겼다.

(새학년도엔 내가 떠나도 돼. 연화가 교원대학을 마치고 여기로 올테니까. 리당위원장아저씨도 다 생각이 돼있구나. 몇달만 참자.)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학교로 나를 찾아온 민청위원장 순이는 방긋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학교일이 잘돼요? 요구되는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 걱정 말구 농사나 잘 지으라구...》

나의 대답에 순이는 썩썩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러면 나도 부탁을 못하겠는데요...》

나는 그때야야 그가 나를 찾아온데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순이하구 빛을 계산한적 있는가...》

《호호호 하긴 그래요. 어려서 밤판에 가도 동문 밤을 주어 내 주머니에 넣어주었죠... 물고기 잡이가선 나한테 바구니를 들려가지구 다니구.》

나는 철없던 동요시절이 떠올라 웃었다.

《철수동무가 수고해서 예술씨클이 많이 발전했는데 한번 본때있게 추켜세워보고 싶어 그래요.

리기동대를 다 안골에 데려다놓고 매일밤 한 1년만 내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도에서 경연이 있어요. 당선되면 평양으로 간대요.》

그 말에 나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대학은 또 뒤로 미루라는가...)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나는 학교에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나의 모든 힘을 바쳐 그들을 도와주리라 마음먹었다.

지금까지 저녁이면 밤새의 울음소리, 숲에서 풀벌레소리만 울리던 마을이 청아한 가야금소리, 나팔소리, 북소리로 벽작 끓었다.

노래소리가 마을에 넘쳐나자 아이들은 자지 않고 골목을 뛰어다녔고 집들에선 밤길도룩 이야기꽃을 피웠다. 생활은 새로운 활력을 안고 들끓었다.

나에게 있어서 또한 기쁜것은 마을청년들이 나를 더없이 친절히 따르는 것이었다.

내포래들은 너나들이로 불렀고 어린 축들은 나를 형님이라 불렀다. 처녀들은 《철수오빠》라고 부르며 자기집 뒤뜰안 딸기와 물앵두를 한웅큼씩 따들고 와서는 내앞에 내밀었다.

로인들이 나를 만나 수고가 많다며 손을 잡아주고 가끔 별식을 해놓고 청할 때는 가슴이 뜨거웠다.

청년들의 예술훈련은 점차 판이 커졌다. 화술조, 기악조, 음악조, 무용조가 정연하게 꾸려지고 조별지도가 맹렬히 진행되었다.

우리는 먼저 도예술축전에 내놓을 다채로운 종목들을 모두 우리 생활이 반영된 실감있는 이야기로 작품을 만들었다.

매 출연종목들은 향토애가 넘치고 산촌의 정서가 풍겼다. 도축전 참가를 앞둔 어느날이었다.

농장원들앞에서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합창이 끝나고 시와 노래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군중들속에서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산촌이 걸어온 피눈물의 역사를 담은 작품이 사람들을 공감시켰던 것이다.

공연이 끝났을 때였다.

산속 숲구이막에 다섯살 난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가 짐승에게 잃고는 독을 품고 쪼기를 놓아 범을 잡았다는 《쪼기령감》이 무대에 나섰다.

그는 긴 수염을 흔들며 마디 굵은 손을 들고 웨쳤다.

《내 할말이 있소... 이젠 마을에 우리포랜 다 죽고 없수다. 마을 밤나무와 버드나무는 내가 열일곱살때 심은게요. 이젠 그 나무들도 60이 지났소. 우린 그때 나무들을 심으면서 이런 좋은 세월이 오리라고는 생각못했소. 이 산촌이 지나온 수난을 회고해보니 이 좋은 세월을 못보고 간 사람들이 생각나서 난 울었수다. 우리 대를 이을 젊은이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제 조상들의 뼈가

묻히고 피가 절은 이 땅을 정말 잊지 말고 락원으로 꾸리라는거웨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자 민청위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할아버지 알겠어요. 마을을 본때있게 꾸리겠습니다. 동무들 어떻습니까?》

《꾸립시다.》

청년들이 웨쳤다. 이리하여 공연은 회의 절반 공연 절반으로 끝났다.

그날저녁 리당위원장아저씨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난 만족하다. 큰 성과야 철수! 그래서 내가 너하구 조용히 토론하고싶은것이 있다. 나는 오늘 사람들의 저 끓는 열정이 식기전에 어지돈수로에서 물을 끌어 저 고려등발을 몽땅 적시자는게다.

일부 일꾼들은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 공수가 많이 들고 돌 원천도 적고 운수수단도 문제야. 그렇다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언제든지 이 모양대로 살아갈수밖에 없지.》

나는 리당위원장이아저씨가 나를 믿고 마주앉아 마을일을 토론하는것이 고마와 아저씨를 돕고싶었다.

《아저씨 내가 말하면 웃지 말아야 돼요.》

《웃다니 우리 마을 선생앞에서.》

그러면서도 아저씨 입가엔 벌써 웃음발이 퍼져 입술이 흐물거렸다.

《난 학교때 학급장을 하면서 고집쟁이로 소문났었어요. 한번은 관개공사장에 나가서 학급별 경쟁이 붙었는데 동무들은 질통으로 흙을 나르자거니 나는 손달구지를 만들어 나르지거니 옥신각신했지요. 내가 고집해서 우리 반은 손달구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 경쟁에서 졌지요 뭐. 허지만 그후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기계화를 했다가우린 속보판에 나구 작업능률은 몇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결심했으면 밀자는게지?》

《지휘관의 결심이 흔들리면 전투야 망하지요. 탄광에 말해서 고려산 바위들을 까서 씹시다. 길도 넓힐겸... 그대신 노동자들한테 밤이나 한달구지 실러보내자요. 그리구 돌운반은 달구지로 하면 돼요. 탈곡이 끝나면 돌격대를 못고 전투를 합시다.

기술방조는 군에서 받구요.》

나의 말을 듣던 리당위원장은 내 이마를 딱 소리가 나게 두겨주었다.

《이 까꾸머리가 쓰긴 쓰느구나. 탄광이라... 좋은 생각이야.》

나는 어느날 영숙에게 편지를 썼다.

...영숙동무! 그리움속에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금년에는 대학강당에서 영숙동무의 웃는 얼굴

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리라고 믿어의심치 않았는데 오늘도 나는 여전히 가슴속 깊이 간직한 한장의 사진에서만 동무의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동무가 다녀간다음 우리 마을에선 또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거의나 밤을 새웠습니다. 그 보람이 있어 도예술축전에서는 우리 마을 청년들이 1등을 하고 지금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 열정으로 발들을 논으로 만드는 대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공사만 끝내면 래년 새학기에는 꼭 동무결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듬해 농사철전으로 공사는 예정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끝났다. 우리가 예견치 못했던 주변 군부대 군인들과 농업기술학교 학생들, 군당이 보낸 다른 리의 청년들이 도와나섰던것이다.

공사과정에는 많은 미담들과 위훈들이 창조되었다. 많은 청년들이 평가를 받았다.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입당청원서까지 쓰게 되었다.

내가 군당집행위원회에 참가한 날 군당위원장은 둘러앉은 일꾼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동무들, 이 동무가 대학추천서를 받고도 고향으로 찾아온 동무입니다. 당의 부름을 받들고 힘든 전투장으로 자진해왔습니다. 지금 일부 청년들은 산골이 싫어서 대학이나 공장에 보내달라고 울며불며 조르는데 이 동무는 반대입니다.

이 동무는 와서 3년 일했는데 분교를 모범학교로 꾸려놓았지, 마을을 문화농촌으로 만들었지, 리예술선동사업도 추켜세우고 이번 공사에서도 청년들을 불러일으키는데 한몫 든든히 했습니다.

이런 동무들이 당에 들어와 우리들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동무는 종합대학에 시험칠 준비가 다 되었지만 그것을 미루고 우리 군의 사업을 위해 여기로 왔습니다.

이처럼 청춘들의 리상도 혁명사업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동무입니다...

철수동무! 우리는 동무를 믿소. 일을 잘하오. 알겠소?》

나는 군당위원장의 말을 들으며 지금까지 내가 것처럼 평가받을 일을 했다고는 한번도 생각지 못했던지라 가슴은 새로운 긍지와 자부심으로 부풀어올랐다.

그 당시 우리 조국은 천리마의 대고조로 들끓고있었다. 논밭들은 기름진 옥토로 되고 폭탄자리메운 논과 밭에 관개수가 흘러넘쳤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들이 런던아 일어서고 제철소, 제강소, 공장들이 솟아올랐다. 해주-하성간 철길공사를 청년들은 75일동안에 끝낸 나라를 놀래웠고 보람찬 건설장소에서 청년들을 부르는 선전화들이 집집의 담벽들과 속보판에 나붙었다.

당원증을 받아안고 흥분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한테서 온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꽃송이가 수놓아진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이렇게 썼다.

...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철수동무의 편지를 받을 때가 제일 기뻐요. 편지를 받고나면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져 밥도 먹고싶지 않답니다.

나에게 빨간 앵두를 따주던 누이동생과 온밤 모밀국수를 누르던 어머니가 보고싶습니다. 제 어머니, 제 동생같아요. 작년 여름 그곳에서 받은 인상을 영원히 잊을수가 없어요. 이가 시리도록 차거운 박우물 맛은 물론, 산딸기며 단복숭아 맛을 어떻게 잊을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산촌이에요. 거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내물은 더 맑고 산천은 것처럼 유정한지...

저는 새학기를 앞두고 매일 력사학부에 찾아갔어요. 철수동무의 추천문건이 왔나해서말예요. 시험응시자명단을 보고서야 락망해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할수 없지요. 고향을 위해 떠나간 철수동무가 것처럼 큰일을 뒤두고 올수 없는것이 리해돼요.

그러나 새학기에는 꼭 저에게로 오겠다니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새해면 졸업해요. 그러나 저는 동무앞에서 상급생이라고 우쭐대진 않겠어요. 저는 언제나 하급생이니까요.

새학기에는 꼭 와야 해요. 내가 학습교재들과 자료들을 다 준비해두었어요. 이것이 그때처럼 값이 없이 되면 저는 쓰러지고말거예요. 기다리겠어요. 동무들 곁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어요.

동무의 친근한 벗

영숙 올림.

나는 영숙의 숨결이 깃든 편지를 몇번이고 곱씹어 읽고 소중히 접어 책장속에 깊숙이 넣었다.

《가야지 꼭 가야지.》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다른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철수동무 우리는 동무를 믿소. 일을 잘하오.》

순간 나를 믿음에 차 바라보던 엄숙한 눈빛들이 안겨왔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아주던 군당위원장의 뜨거운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저도 모르게 당원증이 없혀있는 가슴을 두손으로 짚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고향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각이 들었다.

한해나 두해, 기껏해서 세해가 지나면 대학으로 가리라 마을 먹었건만 그사이 고향땅의 채취, 사람들의 우정, 들끓는 조국의 숨결이 나의 몸배에 배이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나는 그때 미처 깨

닫지 못했다.

나는 영숙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당원이 된 기쁨과 이 땅에 한생을 바칠 결심을 써보냈다.

그후 여러날이 지나도록 영숙의 회답편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나의 립장에 대한 그의 불만이라는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한 고독감으로 자주 생각에 잠기곤하였다. 그럴 때면 3년간 뛰놀던 교정이 그리웠고 헤어진 동무들이 보고싶었다.

철없이 목청껏 흥겨이 노래를 부르며 걷던 들길이 눈앞에 어려왔고 소낙비 쏟아지던 그날 녀학생들의 일을 도와주던 못잇을 그날이 떠올랐다.

나는 어느날 평양에 교편물을 구입하러 갔던 길에 영숙을 찾아갔다.

우리가 걷는 대동강 유보도엔 짙은 그늘이 드리우고 푸른 강물우에는 남녀 청년들을 태운 놀이배들이 까맣게 떠있었다. 그 배들을 보느라니 4년전 하숙집에서 손가락을 절고 영숙이와 약속했던 일이 생각나 나는 선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우리가 탄 배는 강북판으로 들어갔다. 서늘한 강바람이 우리의 이마를 스치고 지나갈뿐 주의는 고요했다.

영숙은 머리를 숙이고 술렁이는 강물에 손을 잠근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졸업해요. 국제관계대학 찬석동무는 조뽕해운회사에 갈것 같구 향숙동문 외교부로 간대요, 전 출판계통에 가려고 해요, 강동무는 지질학 연구소에 가겠대요.》

《동무들이 다 발전하니 기쁩니다.》

나의 말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꼭 농촌에 남아야만 되겠어요?》

《네.》

《력사공부는...》

《지난날의 력사를 공부하기전에 오늘의 새력사를 먼저 창조하려고 합니다.》

영숙은 다시 말이 없다가 애원에 찬 눈길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동무의 편지를 받고 결심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한번 더 충고하고 싶어요, 철수동무는 더 배워야 해요. 앞길이 멀지 않아요. 동무는 동무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 기다리고있는지 아직 모를거예요. 나는 동무의 친근한 벗으로 동무가 돌아올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젠 영영...》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는 예리한 그 무엇에 가슴이 찢리듯 강한 아픔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조용한 강물우에 영숙의 가느다란 흐느낌소리가 울려갔다.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상봉이었다.

그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먼 후날 철이 들며 점차 모든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청춘의 첫기슭에 서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모든것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삭막해져갔다. 유년시절의 아름다운 환상도 청년시절의 낭만적인 꿈도 점차 기억에서 멀어지고있었다. 잊을수 없던 영숙의 천진한 모습조차 소중한 추억으로 흐르는 세월속에 묻혀지고있었다. 그러나 간혹 조용한 강변길을 걸거나 홀로 있을 때면 문득 청춘기의 문어귀에 들어서던 그 시절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되살아나 생각에 잠기곤한다.

(만약 영숙이가 그토록 나에게 간절히 권하던 그의 《리상》대로 따랐다면 우리 두사람사이에는 더 가까워졌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때 바로 그것은 청춘들이 것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꽃피우는 첫사랑의 새싹였으리라. 그러나 날을 따라 변모되는 고향을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고싶은 생각, 들끓는 건설장에 몸을 잠그고싶은 시대적 순결과 의무에 대한 자각이 사랑도 청춘의 꿈도 뒤로 미루고 현실을 돌아오도록 나를 이끌어주었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택한 길을 두고 후회하지 않으며 언제나 내 사업에 대한 긍지, 영예, 자부심을 가진다.)

×

그후 영숙은 나에게 한장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다.

20년 거창한 시대의 변혁속에 모든것은 더더욱 기억에서 멀어가고 인젠 한갓 아름다운 추억으로서만 고이 간직되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일이란 어쩌면 그리도 묘한지...

그날은 과일향기 짙은 가을날이었다. 참관대상인 우리 농장을 견학하러 도안의 농업일꾼들이 배스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다. 도책임일군은 손님들을 나에게 소개하며 녀성기자까지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오늘은 실컷 자랑하오. 도에 내려온 기자동무를 겨우 모시고왔소.》

그런데 나를 한동안 유심히 쳐다보던 녀성기자는 갑자기 《어마나》하고 입속으로 놀란 소리를 내며 주춤 뒤로 물러섰다. 순간 나도 어디선가 그를 본듯한 인상이어서 녀성기자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몸이 날사하여 더 의젓해보이는 40대 부인의 어글어글한 눈매, 흰살결, 부드러운 인상은 그어디서 보았던지... 그때 무엇인가 말하려는듯 입을 여는 그 녀성의 두입술사이로 흰 덧이가 드러났

다.

(영숙이!)

순간 뇌리를 치며 그 이름이 불꽃을 통기듯 머리속에 피곳 떠올랐다.

《영숙동무!》

《철수동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서로 다가서며 두손을 마주잡았다.

영숙은 너무 기뻐 어린애처럼 그 자리서 뽀뽀를 하였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켜보는것이 쑥스러워 손을 놓고 얼굴을 붉혔다.

《나를 용케 알아보는군요.》

《왜 몰라요... 그러나 아직 여기 계시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점심을 먹고나서 마을을 돌아본 영숙은 몹시 놀랐다.

그날에 보았던 이영집은 간데 없고 200여호의 문화주택들이 골안 가득 들어섰다.

한창 무르녹아 달콤한 향기가 풍기는 산과일밭에서 그는 취한듯 발길을 옮기지 못했고 지나가는 가을바람에 절로 후득후득 밤알들이 떨어지는 밤나무밭에서는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며 밤을 주었다. 그날에 쓸모 없던 돌밭이 오늘은 기름진 땅으로 변하여 황금바다로 미풍에 실려 넘실댄다.

어디를 보아도 풍년열매, 풍년이삭, 사람들의 마음조차 만풍이던가 얼굴마다 웃음이 넘친다.

보는것 모두가 의미 깊은듯 산촌에 흐르는 양떼를 보고도 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달밝은 시내가에서 20년전 그날처럼 마주앉았다. 시내물처럼 흘러 아득히 멀리간 그날을 회고하는듯 영숙은 달빛이 너울거리는 시내물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밤새의 울음소리가 울려오고 돌들 시내물 흐르는 소리만 여돌차게 들렸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던 영숙은 머리를 들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무엇하겠어요. 허지만 마음속에 묻어두고싶지 않군요. 지난날 저는 동무를 <리상도 전도도 모르는 사람>, <큰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하찮은 일때문에 앞길을 망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우정이 사랑으로 꽃피지 않은것을 오히려 다행한것으로 여겼지요. 저는 지금 다시 돌아올수 없는 지난날을 생각하며 저의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가를 느끼게 되고 그 시절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귀중한것이였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진정 동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리상을 안고 산 사람이며 자기의 전도와 자기의 위치를 잘 아는 사람이며 우리 시대 청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무같은 사람을 리해하지 못한 제가 동무의 제1의

벗이 될 자격이 없지요. 이런 말을 하는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세요.》

《영숙동무! 무슨 소릴 하오. 동무는 대학을 나오고 어엿한 기자로 되지 않았소. 나도 농촌의 한 초소를 책임진 일군이 되고… 그러고보면 우리가 어려서 꿈꾸고 노래부르던 그 모든것이 현실로 꽃핀셈이요.》

《철수동무! 저는 동무를 정말 진심으로 존경해요. 동무는 땅에 씨앗만 묻은것이 아니라 우리당을 받아들여갈 기동감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앗들이 지금 푸르싱싱 자라고있어요. 저 고려왕산밑에서 천막을 치고 력사유적을 발굴하는 동무들가운데 이 마을에서 철수동무가 키워낸 제자들이 여러명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철수동문 농업대학, 공산대학 2개를 나오고 지난날 우의 소환을 받고도 여기 남았는데 지금 다시 상급당소환을 받고 큰 일을 맡아하게 되었다는것도 죄다 알아요. 그러니 씨앗에 비하면 나는 한알의 씨앗이 한대의 나무로 자랐다면 동무는 수천수만의 씨앗을 뿌려 무성하게 키운 땅이고 밀거름이 된셈이죠. 같은 스무해 세월을 보냈지만 제가 해놓은 일과 동무가 해놓은 일은 저 낮은 땅과 저 높은 봉이처럼 너무도 심한 차이가 졌어요.》

나는 뜨겁고 절절한 그의 말에 하숙집에서 마주했던 그 시절처럼 진정이 담겼음을 느끼며 생각에 잠겨 말없이 영숙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왜 말이 없으신가요? 저를 욕하실테지요?》

나는 그 말에 깔린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하였다.

《내가 왜 동무를 욕한단말이요. 이렇게 뜻밖에 만난데다가 동무의 고무적인 말을 듣게 되니 너무 기뻐서 그러오. 사랑의 맹아라고 할수 있는 소중한 우정을 지녔던 우리가 이제는 혁명의 초

소들을 맡은 혁명동지가 되어 다시 만났으니 정말 기쁘오. 우리 그 시절처럼 서로 돕고 이끌며당을 받아들여가는 길에서 더 친근한 혁명동지로 살아갑시다.》

나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들고 방긋이 웃으며 나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기쁨이 실려 반짝이고 가랑가랑 고여오른 밝은 이슬이 방울져 흘러가는 시내물에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마치 20년전 하숙집앞 시내가에서 내가 들려주는 력사이야기를 들으며 때로 감동의 눈물을 짓군하던 학생시절의 영숙을 다시 보는듯싶었다.

영숙은 이어 얼굴빛을 고치고 그동안 기자생활을 하며 보고 들은 이야기를 펴놓았다. 학생시절에도 나에게 늘 소설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는 말을 참 재미있게 엮어나갔다.

하늘에선 별들이 행복한 이 밤을 부러워하듯 명멸하는 빛을 뿌리며 끝없이 무엇인가 소곤대고 있었다.

나는 황금달빛속에 우련한 자태로 끝없이 뻗어나간 새로 닦은 큰 길을 바라보며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전 그날 새벽, 저 길은 좁은 들길이었지만 보라빛 들국화 만발한 그 길로 떠나가는 영숙의 앞에서 풀잎에 맺힌 밤이슬을 털며 우리는 희망을 속삭였지… 그런데 오늘은 꿈과 희망을 꽃피운 한길에서 다시 만났으니 저 대통로처럼 우리가 걸어갈 앞길은 또한 얼마나 넓고 먼 것인가…

어디서 그 무엇을 하든 아득히 뻗어간 저 길처럼 당을 받드는 한길에서 충성다하며 우리는 서로 돕고 이끄는 제2의 벗으로 영원히 한생을 빛나게 살리라.)

나의 철갑모

리성철

이 모자 쓰면
마음속 강철날개 깃을 펼친다
궁지높이 벗어들면
주먹같은 땀방울
이마우에 번들거린다

오, 철갑모
산정의 샘터에 얼드릴 때면
물우에 어리는 붉은오각별
그 별이 부러워 소리도 없이

밤이면 이슬젖은 네우에
하늘의 못별들도 내려앉더라
용맹의 상징 나의 철갑모
무거운 세세대의 사명과 함께
맹세높이 내가 쓴 무죄철갑모

오, 벗지 않으리라 철갑모
나의 땀 충성의 땀 심장에서 솟구쳐
너의 그 무죄속에 습배이기전에는!
아, 그 무죄속에 습배이기전에는!

분옥이

김승필

아침 일찌기 출근한 분옥은 소년궁전 무용실 창문을 활짝 열어제꼈다. 저멀리 동천하늘가에 떠오른 붉은 해님이 반갑게 마주 웃어준다. 명랑한 아침해였다. 해빛은 푸른 물안개가 걷히는 대동강물결과 생활의 물결이 흐르는 옥류교우에 그리고 점차 투명하게 넓어지는 가을의 대기속으로

우렁이 떠오르는 탑식건물들의 옥상우에 비쳐들어 무수히 반짝거리기도 하고 소년궁전마당의 분수가에 령롱한 칠색무지개를 펼치기도 하였다. 창가로 불어드는 선뜩하고 신선한 아침대기는 젊음이 넘치는 처녀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 아침이여, 기쁨이여, 희망이여! ...》 하고 끝없는 서정시를 읊조리듯하였다. 무용소조지도교원으로 소년궁전에 배치된 첫날아침의 감흥은 한달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가슴을 적셔주는듯하였다.

처녀는 춤추듯 경쾌한 걸음으로 무용실을 한바퀴 돌아 커다란 벽면거울앞에 이르렀다. 그는 코노래를 부르며 긴 머리채를 거뜰히 틀어올리고 나서 까만 연습복치마하리를 잘룩하게 동이다가 거울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바야흐로 꽃과 같이 활짝 피어난 처녀의 신선미 흐르는 자태가 마주 웃고있었다.

《분옥아, 어쩌면 너는 그렇게 아름답니?》

그는 거울속의 자기를 보며 방긋 웃었다.

《너는 이제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어. 꽃리봉을 달고 비쳐보던게 어제같은데... 너도 놀라운 가부지?》

거울에 비친 분옥이의 커다란 눈에는 추억이 실린듯하였다.

맑고 시원한 벽면거울의 아래컨 왼쪽모서리에 동그랗게 붙어있는 소년궁전의 꼬마무용수였던 열두살 때의 분옥이의 사진이 또다시 눈에 띄웠다.

하얀 털방울이 달린 빨간 고깔모자에 진분홍색갈의 털세타를 꼭 맞추어입고 연한 록두빛 목도리를 감아두른 쌍둥이같은 두 소녀가 호합지게 피어난 진달래꽃처럼 웃고있었다. 분옥이와 영애였다.

아버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설맞이공연에서 쌍무 《진달래꽃 피워 원수님께 드리자》에 출연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화보에 났던 이 사진을 붙여놓았던것이 1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생생히 남아서 그날을 추억하게 하는것이였다.

분옥이는 사진속의 영애를 바라보며 부지중 한숨을 지었다,

《영애, 난 네 마음을 알아, 하지만 넌 내마음을 다는 몰라...》

사진속에서 웃고있는 감쪽한 영애의 모습은 흥연 음악무용대학졸업생 처녀로 변하여 고집스러운 까만눈으로 분옥이를 마주보는것 같았다.

음악무용대학교정의 푸른 잔디밭, 버드나무밑, 불타던 석양노을... 추억의 나날속에서 영애의 서글픈 말소리가 다시금 들려오는듯했다.

《분옥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리라고 누군들 생각했겠니, 참 네 마음을 모르겠어! ...》

대학을 졸업하는 이날이때까지 우린 쌍둥이처럼 자랐지. 남들도 우릴 두고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니.

사람들의 선망의 눈길이 쏠리는 무대우에서 영원한 쌍둥이로 꽃필 그날을 나는 기쁨속에 그리보곤했어.

분옥이, 넌 무대에 서야 해! 무용가의 표징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난 분옥이를 다시 보곤했어.

고운 몸매나 부드러운 툄동미, 높은 기교를 요구하는 동작들을 형상하는 그 능력을 두고 은근히 부러워했어. 분옥인 무용가의 천품을 타고났어...

소중히 자래워온 꽃망울을 무대우에서 꽃피워야 할 네가 그런 결심을 했다는것이 믿어지질 않는다.

또다시 어린시절로, 학생들한테로 돌아가서 그 어린 꽃망울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겠다는거지? 물론 미래들을 위한 그 초소는 무대에서 성공을 기약하기 어려운 대학졸업생이나 무대생활에서 물러난 머리흰 배우들이 아니라 네 말처럼 재능있고 유망한 사람들이 필요한곳이지, 그건 옳아, 난 그 말에는 손을 들었다. 그런 의무감앞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구나.

하지만 너는 무대예술인으로서의 의무감이나 사명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분옥이에게는 예술가다운 야심도 포부도 없단말이나? 네가 지금껏 키워온 재능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혔을 때 부닥칠 그런 후회와 절망을 두고 생각해보았니?

일시적인 충동으로 생긴 결심이 아니라고 너는 변명하지만 앞으로 후회될거야, 후회하구말구.

참 네 마음을 알수 없구나...》

안타까움에 젖은 영애의 그 말소리가 오늘도 귀전을 울리는듯했다.

분옥은 거울앞에서 가버이 머리를 저으며 심란한 기색을 털어버리고 방긋 웃음을 지었다. 그는 사진속의 영애의 얼굴을 애기손가락으로 꼭 짚었다.

《요것아, 너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거

야...》

《누가 알아준다구?! 》

커다란 거울에는 영애가 나타나며 의아해서 묻고있었다.

다급히 돌아보니 정말 영애가 찾아온것이였다. 연회색 양복으로 날씬한 허리의 곡선을 잘 살린 영애는 대학시절보다 퍼그나 숙성해보였다.

《어마, 영애가 꼭 판사람같구나.》분옥은 영애를 꼭 그러안았다.

《분옥아, 쌍둥이 짝을 떠나서 막 못살것 같애, 보렴, 내 가슴이 괴롭게 뛰는걸.》

영애는 분옥이의 손을 당겨 자기 가슴에 가져다댔다.

《호호호... 역시 영애는 여전하구나...》

그들은 창문결의 기다란 쏘파에 나란히 앉아 졸업후 한달동안에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극장에 배치된 영애는 벌써 새 무용작품의 주인공역을 맡게 되었다고 슬그머니 자랑을 펼쳐놓았다.

《첫 출발이 멋지구나, 축하한다! 》

분옥은 자기일처럼 기뻐다.

《분옥아, 사실 우리들이 대극장에 함께 배치됐더라면 틀림없이 주인공역은 네가 맡았을거야. 사실은...》

《앤, 그런 말 하면 당장 돌려보낼테야.》

분옥은 부러 깔끔한 눈매로 성난 표정을 지어보였다.

《호호호, 그럼 내 말안할게...》

《나도 큰 파업을 받았어...》

분옥이는 기쁜듯 빙긋 웃었다.

그는 며칠전에 동화무용 《꿈을 이겨낸 꿀벌들》을 안무할 파업을 맡았다. 이 작품은 지주놈과 같이 흉악하고 욕심많은 꿈이 꿀벌들이 땀흘리며 모은 꿀을 빼앗아가려다가 꿀벌들의 뭉친 힘앞에서 쫓겨가는 내용을 담은 동화무용이였다. 사실 이 작품은 설맞이공연의 기동작품이었던만큼 대학을 갓 졸업한 분옥에게는 아름답것이었다. 일부 예술위원회 성원들속에서는 관록있고 경험있는 교원들에게 맡기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신인들을 대담하게 인입할데 대한 당의 방침대로 예술위원회는 대담하게 분옥이에게 이 중요한 파업을 맡겼던것이다. 분옥이는 기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걱정스러울거야 있니?》영애는 나무라듯 말했다. 《아동무용이라구 뭐 다룰게 있니, 대학에서도 배운것처럼 우선 음악이 좋구 그다음 춤가락이 좋으면 그만이지.》

《영애, 그럼 내가 뽑은 꿀벌춤 동작이 어떤가 좀 보겠니?》

《그래 보자구나.》

분옥은 영애앞에서 며칠사이에 뽑아본 무용가

락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였다.

《꿀벌춤동작의 주가락은 바로 어떻게 하자는거야.》

분옥은 부드럽게 편 두팔을 허리아래로 붙이고 손끝을 살그머니 퍼올린후 약간 비틀어보였다. 그리고 자기의 시선을 어깨방향으로 약간 돌리고 굴신을 하였다. 그리고 고개를 각뚝거리며 잦은 걸음으로 재빨리 앞을 질어나갔다.

《호호호...참 신통해.》영애는 철없던 그 시절에 이 거울앞에서 분옥이와 함께 춤추던 때를 분옥이의 춤에서 되새겨보는지 깔깔 웃으며 손뼉까지 쳤다.

그는 분옥이를 찾아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은채 가벼운 마음으로 소년궁전을 떠났다.

채광이 밝은 소조실에서는 록음테프가 뱅글뱅글 돌리며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있었다.

분옥은 음악에 맞추어 꼬마무용수들의 동작을 바로잡아주고있었다.

《자, 꿀벌들이 맑은 하늘을 날아가는 심정으로 가볍고 명랑하게! ... 향기로운 꽃송이를 찾아 사뿐히 날아내리는것처럼 우아하게! ... 가슴을 젖히고 팔을 더 크게 벌리면서...》

모방이 사진기와 같은 아이들은 분옥이의 동작을 곧잘 따라했다. 고집스레 보이는 코마루가 오탁한 용남이도, 감쪽하고 오돌차보이는 꽃니도, 순미도 땀을 뺄뻔 흘리면서 열성을 냈다. 분옥은 성수가 났다. 아이들이 착착 받아먹는게 정말 재미가 있었다. 분옥은 음악을 끊었다.

《됐어요, 괜찮게 되는것 같아요. 자, 춤이 재미있지요?》

분옥이의 물음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대답했다.

《예, 재미있습니다.》

《애기보초꿀벌역을 맡은 꽃니는?》

《저도 재미있어요. 그런데 막 숨이 찹니다.》

꽃니는 두눈이 울롱해서 대답하였다.

《숨이 차다구요? 무용이란 원래 온몸 운동이기 때문에 숨이 찰수 있어요. 어려운 이 고비를 넘겨야 기량두 늘구 훌륭한 무용가로 될수 있어요. 자, 그럼 계속합시다.》

분옥은 다시 록음기를 틀어놓았다.

그는 더욱 연습강도를 높였다.

며칠후 소조실에서는 꿀벌춤가락에 대한 무용분과의 시청회가 열렸다. 분과장 미숙교원이 분옥이에게 여유있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고개를 끄덕여보였으나 곁에 앉은 분옥이는 긴장을 풀수 없었다.

아이들은 시청회를 앞두고 별로 몸이 굳어진듯 했다.

분옥이는 사회생활의 첫자국을 찍은 신진으로

서 자기의 첫 노력이 어떤 평가를 받겠는가 하는 초조감을 털어버릴수가 없었다.

똑똑똑… 소조실 문두드리는 소리가 팽팽한 침묵을 깨뜨렸다.

찾아온것은 꽃니 할머니였다.

《선생님. 수골합네다. 꽃니의 봄가을의투를 가지구 왔수다. …애 꽃니야! 내가 그렇게 일렸는데도 듣지 않더니… 이제 감기들면 어쩔려구 그러니, 예구 속을 태우누나.》

《할머니두 참…》

꽃니는 부끄러운듯 동무들의 등뒤로 얼굴을 감추었다.

무용실에서는 가벼운 웃음이 터졌다. 분옥이도 이젠 좀 진정되는것 같았다.

이윽고 경쾌한 음악이 흘렀다. 꿀벌춤 안삼불 장면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저리도 잘들 출가!》

꽃니 할머니는 분옥이곁에 앉아서 연신 허를 찼다. 어린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제법 똑같은 동작을 맞춰나가는것이 기특하기 그지없었던것이다.

꿀벌춤 안삼불장면이 끝나자 꽃니의 애기보초 병벌춤이 시작되었다. 점차 음악이 고조됨에 따라 꽃니는 점점 숨이 차서 할딱거렸다. 그래도 그는 기다란 창을 꼭 쥐고 아득바득 동작을 엮어나가려고 애썼다. 이마엔 송골송골 땀이 맺혔다. 음악은 더욱 고조되었다.

《애 꽃니야, 좀 쉬엄쉬엄하렴, 그렇게 숨이 차서야… 아이구 저런 변이 있나!》

꽃니 할머니는 시청회라는것도 잊고 저도 모르게 손세를 하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순간 와하- 하는 아이들의 웃음이 터지고 꽃니는 돌처럼 굳어졌다가 뿌르르 무대밖으로 뛰어나갔다. 깨지려던 춤판은 한참만에야 다시 이어졌다.

분옥이는 어떻게 무용이 마감되었는지 몰랐다. 다만 음악이 끝난 록음테프의 마지막 공회전소리가 뻑-뻑 하고 울렸을 때 정신을 차렸다.

교원들의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른들의 춤동작을 맥여났으니 저렇게 숨이 찰수밖에 없지요.》

《아직 경험이 없으니 그럴수도 있지요 뭐, 차츰 나아질거예요.》

분옥이의 얼굴은 다시금 활짝 붉어졌다.

미숙분과장은 분옥이곁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그동안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춤동작을 아이적인 동작으로 바꾸어야겠어요. 구체적이것은 무용분과실에 가서 토론합시다.》

교원들은 흥심이 없이 무용실을 나갔다.

수건을 헐 벗어 손녀의 얼굴을 닦아주던 꽃니

할머니가 마감으로 방을 나가는 미숙분과장을 슬그머니 붙들었다.

《저, 꽃니를 배워준 저 선생이 경험이 없는 선생인가요?》

《아닙니다. 그런게아니라…》

미숙교원은 당황한듯 말끝을 흐리며 분옥이를 흘끔 보았다. 세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쳤다.

분옥은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말았다.

그 이튿날 한낮이었다. 마가을날씨치고는 퍼그나 파스하였다.

분옥은 궁전의 극장앞 꽃밭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가을을 장식하는 맨드라미와 수탉번두처럼 빨갛게 피는 홍초, 연보라빛 국화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있었다.

분옥은 향긋한 국화의 꽃술에 앉아 부지런히 꿀을 들추고있는 꿀벌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꽃니의 꿀벌동작에 대한 시사를 얻을가 해서였다.

찬바람이 처녀의 랑볼 스텔을 살살 간지럽혔다.

이때 벌써 학교공부를 마치고 궁전으로 올라오는 소조원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울려왔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순미가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꽃니와 함께 오지 않았군요?》

《꽃니네 집에 가서 찾으니까 할머니가 나혼자 가보라고 했어요.》

분옥은 가슴이 죄여들었다. 주요배역을 맡은 꽃니가 결석하면 큰일이였다. 꽃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분옥은 학생들에게 자체훈련과제를 주고나서 꽃니를 찾아헤맸다.

꽃니는 집에 없었다.

복도에서 절구에 김장고추를 붓고 마늘을 까던 두 할머니가 꽃니는 할머니를 따라 아동백화점으로 갔다고 알려주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질던 분옥은 등뒤에서 들리는 할머니들의 말소리에 멈칫 서버렸다.

《그 처녀가 궁전의 선생갈구려.》

《선생속인들 얼마나 타겠소, 꽃니 할머니는 그 선생이 맘에 들지 않아서 손녀를 탄 소조에 넣겠답디다.》

《맘에 들지 않다니?》

《뭐 그 선생의 경험이 어리고 실력이 약해서 꽃니의 장래를 맡길수가 없다는거지요.》

《위낙 변덕이 심한 로친이니까…》

《선생실력두 약한가봅디다.》

분옥은 숯불을 켜듯 얼굴이 화끈거려서 그들의 뒤소리를 더 들을수가 없었다.

한동안 정처없이 발길 가는대로 걸었다.
 공중그네가 돌아가는 아동공원을 지날 때였다.
 《선생님! -》
 꽃니가 불쑥 옆으로 날아들었다.
 분옥은 놀랐다. 새 바이올린케스를 옆에 낀 할머니가 어름어름하며 다가왔다.
 《선생님, 이거 안됐수다. 우리 꽃닌 지내 약해서 그런 힘든 무용을 해낼것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조에...》
 《...》
 분옥은 인차 말이 나가지 않았다. 할머니에게 자기가 실력이 있으니 꽃니를 안심하고 맡기라는 소리를 할수 없지 않는가. 그는 겨우 입을 떼었다.
 《할머니, 꽃니를 잘 키우겠어요.》
 《선생님 말씀은 알만합니다만 이 애는 바요링을 배우게 하자고 합니다. 그게 더 알맞을것 같아서...》
 《할머니, 난 바이올린 안하구 무용할테야, 이제 선생님 따라갈래, 씨.》
 꽃니는 분옥이의 손에 매여달렸다.
 할머니는 성이 났다. 그는 무작정하고 손녀애의 손을 잡아끌었다.
 《싫어 난 무용할테야.》
 꽃니는 쿵쾅쿵쾅 울면서 이끌려갔다.
 분옥이는 할머니를 설복해야 하며 또 교육자로서 요구할수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굳어진듯 선채 파리같은 아래입술에 피가 지도록 잘근잘근 깨물기만 하였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학생소년궁전 분수가로 들어섰다. 언제 보았는지 순미가 할딱거리며 마주 달려나왔다. 개별훈련책임을 맡겼던 순미는 분을 삭이듯 잠시 짹짹거리더니 분옥이에게 하소연을 하였다.
 《선생님, 소조원들이 훈련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우리가 다른 무용소조보다 못하다고 불평을 부려요. 용남이는 연습은 안하구 지금 축구소조원들속에 끼여서 뿔을 찹니다.》
 용남이는 모자를 빼투로 돌려쓰고 마당이 좁다하게 뛰어다니고있었다. 그는 지금 뿔을 차느라고 판정신이 없었다.
 분옥은 꽃니의 일때문에 답답한 가슴에 덧쌓이는 야속한 감정을 가까스로 누르며 운동장결에 서있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다.
 전번에 용남이의 곰형상을 방조하여왔던 남철교원은 분옥이와 함께 몇번 애를 써보더니 인차 실패해버리고말았었다.
 《아무래도 용남이의 곰역이 신통치 않습니다. 용남이는 고집은 좀 있어보이지만 매우 가벼운 아이여서 육중하고 사나운 곰형상을 해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지금 내가 곰역에 책임자인 학생을

알고있는데 이제라도 바꿉시다. 사실 분옥선생의 작품은 곰역을 어떻게 형상해내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있지요.》
 분옥은 남철교원의 권고를 간단히 받아들일수가 없었다. 교육자로서 너무도 쉽게 수확을 거두는 립장에 자기를 세울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용남이를 잘 키우려 했는데 용남이 자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뿔만 차고있다. 결에 순미만 없었어도 분옥은 안타까운 눈물을 뿔꺾듯만 갈았다.
 이때였다. 용남이가 뿔을 차서 물고가가다 팔문을 향하여 힘껏 내질렀다. 공교롭게도 운동화가 벗겨져서 분옥이의 앞에 철썩 떨어졌다.
 분옥은 어이가 없었다.
 용남은 한발로 강충거리며 달려오다가 분옥이를 보고 멈칫 서버렸다.
 순미가 용남이를 쏘아보며 종알댔다.
 《넌 뭐야 자유주의자같은거, 끝내 내 말을 안듣더니 이제 혼나봐라.》
 용남이는 머리를 푹 숙이고 양말만 신은 발로 다른 발목을 긁었다.
 분옥이는 말없이 운동화를 집어다가 신겨주고 나서 웃어보였다.
 《자, 어서 차면바엔 꼴을 하나 넣으랴요. 순미, 우린 구경하자요. 》
 우물쭈물하던 용남이는 놀란듯 선생님을 슬쩍 올려다보았다. 분옥이가 머리를 끄덕여보이자 축구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얼마 안가서 연락을 받은 공을 물고 꼴문으로 돌입하다가 대여섯미터앞에서 슛- 하고 한 꼴을 보기좋게 차넣었다.
 《만세! -》 뿔뿔거리던 순미도 짹자꼴을 했다. 분옥이도 손뼉을 쳐주었다. 그러나 마음속엔 비구름같은 근심이 가득차있었다.
 그는 용남이를 남겨놓고 소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남철교원이 서있었다. 아마도 결방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통에 그 까닭을 알아보려고 온 것같았다.
 아이들은 남철교원의 눈길이 두렵기라도 한듯 목을 움츠리고 눈치만보고있었다.
 남철이는 엄한 기색을 억지로 감추며 분옥이를 맞더니 무용분과실로 그를 이끌었다.
 《분옥선생, 용남이가 보이질 않는군요, 또 밖에 나가서 놀구있을겁니다. 참 결에서 보기에다 딱합니다. 이제 곰형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곰역을 다른 책임자와 바꾸자는데도 분옥선생은 그냥 대답이 없지...》
 남철이는 체면에서 한숨을 쉬었다. 분옥이는 자기를 넘려해주는 그가 고마웠으나 용남이를 때버린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었다.
 《남철선생님, 제가 용남이의 훈련에 더 힘을

낼겠어요. 그 애의 재능을 키워주지 않고 따돌린다면 제가 무슨 교육자이겠어요. ...》

《그러니 쉽게 열매를 따고싶지는 않다는 말이군요. 그런데 이젠 날자가 없습니다. 더우기 분옥 선생은 올해 설맞이의 기둥작품을 맡고있습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요. 이 작품에 대한 분공을 이제라도 달리하든가 아니면 집체적으로 달라붙든가 문제가 이렇게 설수 있습니다.》

《남철선생님, 그래두 저는...》

《오늘저녁에 무용분과모임이 열립니다. 그때 기둥작품의 분담문제가 다시 토의될것 같...》

갑자기 남철이의 말은 똑 끊어졌다. 문밖의 복도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멀어져갔다. 문을 열어보니 엎드고있던 용남이가 모자를 돌려쓴채 뛰여가고있었다. 아마 용남이는 자기 잘못을 사죄하려고 분옥을 뒤따라 왔던 모양이었다.

그날저녁 분과모임에서는 남철이의 예견대로 기둥작품을 맡은 분옥이의 분담을 고려해보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 문제는 소년궁전예술위원회에 제기하여 더 토론해보기로 하였다.

분옥은 분과모임이 끝난후 무용실에 돌아와서 혼자 실컷 흐느껴울었다. 그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는 저울대에 올라서게 된 자신의 처지를 톡 톡히 느낀것이었다.

...

석양이 비긴 저물녘 퇴근길은 분옥이에게 별로 쓸쓸해보였다. 즐비한 아파트 창문들에서 하나 둘 불이 켜지고 푸른 가로등 빛을 밝으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발밑으로는 한잎두잎 나무잎들이 떨어져 밟히었다.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 꼬리를 물고 달리는 뺑소와 승용차들의 동음은 꿈속에서 듣는듯하였다. 그는 답답한 가슴을 펴며 머리를 들었다. 시선이 가닿은 서쪽 하늘가에 타던 장미빛 노을은 어느새 사그러지고 한열에 나타난 한두개의 별들만이 차거운 빛으로 분옥이를 굶어볼뿐이었다.

분옥이가 집에 들어서니 대극장이 그려진 한장의 초대장이 책상우에 기다리고있었다. 영애가 보낸것이었다.

《아니 벌써 영애가 첫공연을 하다니...》

서글픈 마음속에 한가닥 밝은 빛이 스며든것 같았다. 분옥은 팔목시계를 보았다.

...

드디어 대극장무대의 면막이 올랐다.

두어 종목이 지나간후 기다려던 영애의 독무가 소개되었다.

은은한 민요의 독특한 선율이 울리고 뽀얀 보라빛 국부조명속에 한떨기 꽃잎이 피여났다. 그속에서 꽃심처럼 솟아오른 무용수는 손끝으로부터 발끝까지 옮기자 흘러내리는듯 부드럽고 매력

있는 가락들을 황홀하게 엮어나가기 시작했다. 춤은 음악의 상승적인 감정을 타고 점차 높은 기교를 펼치었다. 관람석에서 고조되던 환성은 박수소리로 터져올랐다. 영애는 관중들의 눈썹은 호흡속에서 자신을 얻은듯 무대가 좁도록 바람을 감고도는 팽이처럼 돌아갔다. 이어 서정적인 음악을 타고 선녀같은 독무의 주인공이 커다란 꽃속으로 사라질 때는 재청의 우뢰같은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성공이었다. 벅찬 기쁨과 흥분으로 눈부시게 환해진 영애가 다시 무대앞으로 나와서 방금 절정을 이루었던 대목을 다시 펼쳐보이기 시작했다.

《저 배우가 올해에 음악무용대학을 나온 신진이라면서요?》

《첫출연에서 저런 성공을 거두었으니 정말 앞날이 기대되는군요.》

분옥은 등뒤에서 들려오는 찬탄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점차 자기에게로 생각이 돌아왔다. 박수치는것도 잊고 머리를 숙였다. 어디선가 먼곳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듯했다. 그것은 마음속의 목소리였다.

《분옥이 너도 영애처럼 무대우에 갔더라면 저런 눈부신 성공을 맛볼수 있었을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어느 길에서 헤매니? 걸음걸음 실패와 고심이 있을뿐이지. 만일 그것을 넘어 서서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웠다고 해도 너의 삶의 향기는 그속에서 구별되지 않을거야.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렴...》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분옥은 소스라치듯 자기 생각에 놀라며 머리를 저었다. 《그래선 안돼, 이 길에서 물러설수는 없어...》

분옥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에는 이전보다 힘이 없었다.

관람자들의 재청속에 다시금 독무를 펼쳤던 영애는 지금 꽃다발을 높이 흔들며 무대복판에서 웃고있었다.

숫구치는 부러움과 기쁨 속에 박수를 보내던

분옥이는 다른 소개자가 무대에 나오자 허공의 한점을 바라보면서 낮이 해쓱해졌다.

《아. 분옥이, 넌 어데서 헤매니? 어데서?...》

분옥은 자기의 심장이 아프게 뻘을 느끼며 커다란 두눈을 꼭 감았다.

공연이 끝났다.

분옥은 대극장홀에서 분장도 채 지우지 못한 영애를 만나 소담한 꽃송이를 안겨주었다.

《영애, 참 놀랐어, 성공이야. 난 정말 기쁘다.》

그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분옥이, 고맙다...》

영애는 영예의 절정에 오른 기쁨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때 사진을 둘러멘 기자가 그들에게로 다가

왔다. 뒤이어 년조가 있는 배우들과 다른 극장에 배치된 동창생들, 음악무용대학생처녀들이 옥 밀려왔다.

《맞구만, 독무하던 배우가! …》

키 큰 청년이 소리치자 흩어져가던 관람자들까지 모여들어 영애의 주위에 성을 쌓았다.

음악무용대학생처녀는 영애의 길고 날씬한 손가락을 슬쩍 만져보기까지 하였다.

영애는 감탄과 찬사의 물결 중심에 서있었다.

분옥이는 축하의 물결속에서 저도 모르게 밀려나서 대리석 판간결에 홀로 서있었다. 물론 그에게 관심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

분옥이는 밤이 이슬해서야 퇴근길에 오른 영애와 함께 단둘이 걸을수가 있었다.

《글쎄 내 그럴줄 알았어, 고민할줄 알았다니 까…》

영애는 분옥이의 소년무용이야기를 듣고나서 얼굴빛을 흐렸다.

《애 분옥아, 이제라도 맘을 돌려라. 뻔히 잘되지도 않는 아이들 작품을 볼줄구 쿵쿵 뛰지말구. 그러지않아두 우리 안무가동지가 네 애길 얼마나 하는지 아니?》

《너희 안무가동지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대학졸업전부터 분옥이를 자기네 극장에 데려가겠다고 뛰어다니던 안무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두 날 잊지 않구…》

《앤, 놀라진… 이제 또 새무용작품을 하나 우리 극장에서 준비하는데 거기 주인공은 꼭 네가 책임자라는거야, 지금 그 작품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있는지 아니?》

《…》

《분옥이, 모든건 네 맘에 달렸어, 누가 네 앞길을 막겠니? 며칠전에 내가 궁전에 찾아갔던 일이 생각나지? 그때 사실 너를 우리 극장에 오도록 설복하려고 갔댔어. 하지만 네가 신심을 가지구 아이들의 공연을 준비하길래 그만 단념했던거야.》

《그때문에 왔었구나…》

《분옥아,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라. 너의 그 뛰어난 재능은 꼭 빛을 보아야 해. 우리 극장에 오는데 동의하지?》

《글쎄…》

《뭐 오래 생각할게 있니》 우리 안무가동지를 만나게 해줄게. 어서 나한테 먼저 확답을 하렴! 응 요 고집쟁이…》

영애는 애원의 눈길로 분옥이의 대답을 기다렸다.

《한번…만나볼가?》

《호호… 됐어! 인젠 절대로 두말 안하지?》

영애는 분옥이를 얼싸안고 볼을 비볐다.

《영애, 뭐가된지 난 모르겠어…》

《자 이제 락착을 짓자, 네가 인차 궁전에 전화를 걸겠어.》

영애는 무작정 그루를 박아 말했다.

분옥이도 얼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

그 이튿날도 분옥은 무용소조원들의 훈련을 이 끌어나갔다. 어차피 이제는 소년예술과 헤어질것이라고 생각하니 의욕이 나지 않았다.

용남이 순미를 비롯한 아이들도 교원의 풀기없는 안색에서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을 예감했는지 무척 조심하며 동작들을 수행해나갔다. 그러나 활기는 없었다.

분옥이의 마음은 기쁘다고할지 슬프다할지 종잡을수가 없었다.

소조운영을 끝내고 아이들을 돌려보낸 그는 저도 모르게 커다란 벽면거울에 마주섰다. 거울 한쪽귀퉁이에는 영애와 함께 찍은 분옥이 사진이 여전히 웃고있었다. 이제 궁전을 떠나는 날엔 사진을 아예 떼버려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의 기억속에 불쾌한 추억으로 남을 자기의 얼굴을 남기기 싫어서였다.

분옥은 두눈에 눈물이 솟도록 길게 한숨을 짓고나서 봉인을 하고 복도를 나섰다.

복도 한구석에는 누군가 서있었다. 고개를 숙인 용남이었다.

《용남이, 왜 여기 남아있어요?》

《…》

용남이는 몇번 재촉해서야 고개를 쳐들었다

《선생님. 저는 재간이 없습니다. 잘하는 다른 애한테 곱역을 맡기고 저를 빼주십시오. 》

《?! …》

분옥은 한방 맞은듯 멍하니 서있었다. 용남이는 물기가 번뜩이는 눈을 들어 분옥을 마주보았다.

《저는 엿저녁에 사무실 문앞에서 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속태우지 말구 저를… 빼주십시오.》

《용남이! …》

분옥이는 그의 어깨를 잡고 머리를 쓸어주며 떨리는 소리로 부르짖었다.

《선생님… 속태우지 말고 저를…》

용남이는 울먹거렸다. 그는 분옥이가 지금 자기 개인의 발전문제로 고심하는줄을 알길이 없는 것이었다.

(아, 만일 용남이 네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더라면 내가 과연 이처럼 순진한 량심들을 두고 떠나갈수 있을가! …)

분옥이는 저도모르게 두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삼켰다. …

분옥이는 용남이와 헤어져 대동강가로 나왔다. 유유히 흐르는 물결은 잔주름을 지으며 밀려와 유보도를 적시고있었다. 물이랑우에서는 수도의

불빛이 떠실려 춤추고있었다. 어디선가 가까운 버들숲에서는 마가울의 여물디어문 풀벌레의 쿑딱이는 소리와 강반의 여기저기서 낚시군들이 한가롭게 먹이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장대채 언덕우에 높이선 소년궁전의 장식불빛이 번쩍거렸다.

《우리는 행복해요!》

밤하늘을 붉게붉게 물들이는 그 굴발들은 분옥이의 눈앞에 뿌옇게 흐려졌다. 그는 울고있었다.

행복한 추억은 나래를 펴고 분옥이가 열한살나던 그날에로 거슬러올라갔다.

분옥이는 소년궁전무용소조에 다니면서 준비한 독무 《꽃씨를 뿌려요》를 가지고 아버지원수님 앞에서 공연을 하였다.

아버지원수님께서는 분옥이가 춤을 잘춘다고 치하하시면서 어린이들의 공연을 보면 한 십년씩은 젊어지는것 같다고 못내 기뻐하시었다.

아버지원수님의 밝은 웃음은 분옥이의 가슴에 해빛처럼 스며들었다.

분옥은 그때 아버지원수님의 넓은 품에 안겨 마음속으로 맹세다졌었다.

《아버지원수님, 저는 이담에 크면 아동무용을 만드는 선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무용을 아버지원수님께 보여드려 원수님께서 오래오래 젊어지게 하겠어요.》

분옥이의 결심은 대학시절에 더욱 굳어졌었다. 남모르는 노력이 깔린 그 길에서 자기 삶이 아름답게 꽃피날 앞날을 그려보군하던 분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나는 어디서 삶의 향기를 찾으라고 하는가? 어디서? ...》

아, 그 누가 눈물을 슬픔이라 했던가! 이런때 흘리는 눈물을 정녕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분옥이는 자책의 눈물이 비낀 눈을 들어 소년궁전의 불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분옥은 그 길로 꽃니의 집을 찾아서 발길을 돌렸다.

마가울의 하늘은 변덕이 심했다. 초저녁까지 별이 웃던 밤하늘은 컴컴하게 흐려지고 비꽃이 소리없이 공간을 메웠다. 이어 폭우가 쏟아져내리기 시작하였다. 흔히 이런 날씨가 끝나면 빠작빠작 살얼음지는 초겨울에 접어드는것이다.

분옥이는 전차를 타고 꽃니네 집을 찾아갔다.

꽃니는 적신 수건을 이마에 얹고 누워있다가 분옥을 보자 두팔을 벌려 목을 끌어안았다.

《글쎄 내가 환장을 했지요.》 할머니는 곁에서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꽃니가 무용소조엘 가질 못하게 되자 저렇게 밥두 잘 안먹구 앓아누웠수다. 저 애가 정말 심화병에 걸린것 같기두 하구... 내가 무슨 망녕을...》

밤은 이속히 깊어갔다.

소년궁전으로 자진하여 배치된 분옥이의 마음속깊은 사연은 꽃니의 할머니를 끝내 움직이였다.

꽃니네 집 창문은 오래도록 밝은 빛을 뿌렸다.

이튿날 분옥은 안정된 마음으로 안무구도를 다시 검토하였다. 이미 그려졌던 불민한 구도들을 깨끗이 지우고 깊은 사색속에 얻어진 구도들을 새롭게 그려나가는 종이우에는 분옥이의 맹세가 새겨지고있는듯하였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영애가 걸어온 전화였다.

대극장의 안무가에 대한 고마움과 잠시나마 동요했던 자책이 엉킨 마음으로 한동안 수화기를 든채 말이 없던 분옥은 퇴근후에 만수대 분수가에서 영애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만수대 분수가의 단풍나무밑에는 두 처녀가 앉아있었다. 각양각색의 분수들이 오색령롱한 빛갈로 솟구치며 밤을 황홀하게 장식하고있는데 두 처녀의 얼굴은 점점 심각하게 변했다.

《...영애, 정말 부끄럽구나. 사회생활의 첫걸음에 벌써 흔들렸던 나를 용서해주렴... 안무가동지한테두 사과의 말을 전해줘...》

분옥은 파리해진 입술을 감쌀며 말끝을 흐렸다.

《그래 말을 다했니?》 차디찬 돌의자에 꽃꽃이 앉아있던 영애의 눈곱에는 야멸찬 빛이 어렸다. 분옥이를 도와 친우의 의리를 다하게 됐다고 환성을 울리며 달려왔던 영애의 붉은 얼굴은 찬물을 들쓴듯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기를 자제하듯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넌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구나. 앞으로 네가 더 큰 실패와 고민앞에 서게 될지 누가 알겠니? 게다가 너의 재능도 아이들속에 속절없이 묻히게 될거다. 이걸 먼 후날에 깨닫게 된다면 이미 때가 늦을거야, 늦구말구...》

《아니, 더는 후회하지 않을거야, 난 이걸 그 어떤 구슬픈 자기 희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난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싶고 또 믿고있다. 누구든 후대를 위한 초소에 서야 할것 아니냐... 영애, 앞날의 우리 예술을 위해서 숨은 노력을 바친다는 그런 공지를 나는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될거야.》

분옥은 눈을 빛내이며 영애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영애, 제발 좀 웃어주렴. 넌 무대우에서 난 앞날의 무대를 위해서 재능을 바치자꾸나...》

영애는 울먹거리며 자리를 떠나버렸다.

분옥은 안타까이 그를 불렀다.

《영애! -》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후우- 차거운 바람이 떨어져 덩구는 단풍잎들을 분옥이의 발밑으로 몰

아왔다.

×

간밤 유보도의 나무가지들에는 서리꽃이 하얗게 피었다. 참새들이 오롱조롱 모여앉아 그네를 뛰다가 포르릉 날아갈 때마다 안개처럼 날리는 서리꽃가루들이 아침해살을 받아 은가루처럼 반짝이었다.

분옥은 선뜩하고 신선한 대기속으로 발걸음 가벼이 출근하고있었다.

어제오후 무용분과에서는 설맞이공연의 기동작품을 분옥이에게 계속 말기기로 합의를 보았었다.

소년궁전으로 자진하여 배치되어온 분옥이의 속마음에 대한 미숙분과장의 이야기는 교원들을 감동시켰다. 그런 리상과 포부를 지닌 교원에게는 아직 경험이 어린것이 시간문제일것이라는데 대하여 서로 일치하게 공감하였던것이다.

《분옥선생.》

연회색 가을외투를 입은 남철교원이 지하철도역을 나서며 소리쳐불렀다.

《안녕하세요?》

분옥은 반가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남철선생님, 오늘 오후에 시간을 좀 내주시실수 없을까요? 용남이의 곰형상이 안돼서 그러는데 방조를 받았으면 해요.》

《또 용남이 얘기로군요, 난 분옥선생한테 두손을 들었습니다.》 남철교원은 유쾌하게 웃었다. 《분옥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자기를 돌이켜보게 됐지요. 용남이와 같은 학생을 때버리려던 내가 과연 교육자인가하구 의심하게 되더군요.》

《아이, 자꾸 그런 말씀만...》

《아닙니다. 내가 웅졸한놈이었지요. 사실 난 분옥선생이 재능이 없어서 우리 궁전에 밀려온줄 알았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더러 그런 얘기가 떠들기도 했지만...》

《그럼 남철선생님도 무능해서 이곳에 배치됐겠죠?》

《하하... 한फल 먹이는군요.》

《호호호...》

참으로 유쾌한 아침이었다.

무용분과 교원들은 집체적으로 분옥이를 도와나섰다.

남철은 툭툭한 몸을 가볍게 놀리며 긴 창을 뱅뱅 돌리기도 하고 앞으로 내찌르기도 하면서 시범동작을 해보였다.

《남철선생이 그대로 꼬마보초꿀벌이 되어 무대에 올랐으면 정말 신통하겠어요.》

나이 지긋한 미숙분과장이 깔깔 웃으며 한마디했다.

《예, 그제 내 키를 압축만 시켜주십시오. 그럼 어련히...》

모두 까르르 웃었다.

이번에는 미숙분과장이 복채를 잡고 남철교원은 곰역을 맡았고 분옥이는 꼬마꿀벌역을, 다른 녀교원들은 로동벌이 되어 동작들을 련결시켜보았다.

《성공입니다. 성공! 꿀벌동작은 완전히 성공입니다.!!》

남철이가 가쁜숨을 몰아쉬는 분옥이에게 소리쳤다.

《어쩐지 저는 숨이 가쁘군요! 》

《그럴박예요. 아이들의 그 짧은 호흡에 맞는 동작을 교원들이 수행했으니까요. 분옥선생이 숨이 차하는걸보니 이 촉가락들은 아이들의 호흡에 맞게 엮여졌다는것이 명백하군요. 자,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교원들은 와하고 웃으며 그에 호응하였다.

나날은 흘렀다.

분옥은 용남이의 춤을 잘 형상하도록 하려고 원심을 썼다.

그는 욕심쟁이며 흉악하기 그지없는 꿈의 촉가락을 지주놈의 본성과 결부시켜 형상하도록 하고싶었다.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술박물관으로 찾아가서 악착한 지주놈을 폭로한 미술작품들인 유화 《타작》, 《딸》들 앞에서 오래동안 해설해주기도 하였다.

분옥은 점차 자기 가슴속에서 떠오르는 행복감을 감촉하곤하였다.

×

장식등이 설채없이 번쩍거리며 엇갈리는 소년궁전의 설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꽃불들이 가득 열린 신년송들이 빙-빙-소리없이 돌아가고 새해의 축등들이 빛을 뿌렸다.

거창한 이해의 년륜은 바야흐로 하얀 눈을 들 쓴 나무들에 그리고 행복에 젖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또 한돌기를 새기고있었다.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앞둔 학생소년궁전극장은 승업한 기분속에 잠겨있었다.

아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는 폭풍같은 환호로 들끓었다.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관람자들속에는 공연을 앞두고 분옥이에게 격려의 눈길을 보내던 영애도 있었고 꽃니의 할머니도 있었다.

이윽고 설맞이 공연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랑랑히 울리자 드디어 무대 면막이 서서히 올랐다.

설맞이 노래로부터 시작되는 공연종목들은 요란한 박수갈채속에 바뀌여지다가 동화무용 《꿈을 이겨낸 꿀벌들》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다.

꿀단지들 등에 진 꿀벌들이 경쾌한 물동으로 커다란 비취색 꿀독에 달고단 꿀을 찰랑찰랑 부어담고서 멀리 호박꽃핀 동산으로 또 꿀을 뜨리

떠난다.

무대에는 애기보초꽃벌인 꽃니만 남아서 긴 창을 들고 키를 넘는 꿀독을 지키고있다. 한가로운 정적이 흐른다. 이때 건달뻥이 뚱뚱보 곰인 용남이가 덩더쿱장단에 맞춰 나타난다. 곰은 혼자 보초를 서는 애기꽃벌을 보고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고나서 닝큼 독을 훔쳐안고 뚱기적거리며 나오려 한다. 애기꽃벌이 창을 빼들고 오돌차게 맞선다. 긴 창을 휘두르는 용맹한 애기꽃벌춤의 높은 기교가 펼쳐지자 장내에는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이때 로동벌들이 달려와 힘을 합쳐 욱심쟁이 곰을 몰아내는 통쾌한 장면이 펼쳐지자 무용은 고조에 올랐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띄우시며 먼저 우렁찬 박수를 무대에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웃음이 넘치는 장내는 눈부신 해

빛에 찬란히 비친듯하였다.

숫구치는 감격이여! 행복이여! ...

분옥이의 심장은 뜨거운 불꽃속에 휩싸였다. 아버지이수령님께서 기뻐하신다. 무대우에 망울진 저 생신한 꽃봉오리들의 모습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필 조국의 래일을 보시며 벅찬 환희에 잠기신다! ...

숙연히 눈길을 든 분옥이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선을 그으며 구울려내렸다. 그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남모르는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갈것이었다....

그칠줄모르는 박수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분옥은 높뛰는 자기 심장의 박동소리를, 행복의 웨침을 듣는듯했다. 그는 눈부신 각광속에 싸인 무대복판에서 떨어진 옆막뒤에 서있었다....

용해공의 아들

한원군

내 어릴적부터
사람들은 말하더라
용해공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고

어쩌면 얼굴빛도 구리빛이고
어쩌면 목소리도 신통한가고
그럴 때면 나는 그저 기쁘더라
아버지도 따라웃더라

전야를 갈아엎는 트랙또르며
궤도우의 전기차 산중철탑이
그 모두 아버지가 뽑아낸 강철이라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내 자랑 끝이 없던 그 시절

강철계획 앞당긴 날 저녁에야
웃으며 문열고 들어서더라
그런 날엔
강철지구 불노을 더 보고싶다고
밤중에도 창문을 닫지 않았더라
쇠물에 정을 두고 사는 그 마음

아, 그 마음 모르고 자라면서도
내 아버지 닮았다 말하였던가
불속을 뚫고 시련의 언덕을 넘어
강철로 강대해진 내 나라
이제는 세월이 흘러
아버지의 쇠장대를 넘겨받은
나도 어엿한 강철용해공

쇠물 끓는 로앞에 서면

지심을 울리는 용광로의 동음
아버지의 거센 목소리갈고
용해장의 뜨거운 열풍
아버지의 심장의 열도만 같아
내 언제나 아버지앞에 선듯

목소리나 닮아서 무엇하랴
로 가득 장입한 광석을 녹일 땀
로의 숨결 기늠하며 엄숙하여도
쇠물이 잘 익어 마음 설레일 땀
불길이 확확 이는 로문앞에서
뜨거움 모르고 담배 한대 피워물던
용해공아버지의 그 성미 닮아야지

생김새나 닮아서 무엇하랴
시련의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우리 수령님의 기쁨의 미소를 안고
우리 당을 받들어 굽힘없이
강철의 대들보를 세워가던 용해공
오 거기서 가장 값높은 삶의 보람을 찾는
그 진짜배기 마음을 닮아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알게 되리라
세월이 흘러 산천은 변해도
영원히 변함없는 한마음
용광로와 같이
이 땅에 억년 뿌리 내린 강철기둥과 같이
세대를 이어
불속에서도 폭풍속에서도 흔들림모르는
한 자세 한 모습이 여기 있음을

우리의 하루

김송남

새 벽

묵묵한 하늘가
별들도 아직은 반짝이는데

어느새 커졌는가 당중앙창가에
눈부신 불빛 하나

속삭이네, 새날이 밝아온다고
불러주네, 새 기쁨 마중가자고

노을과 해살과 나를 부르는
저 불빛은 어머니눈빛

우주의 섬광 다 모아 뿌리는듯
순간에도 누리엔 광명이 가득차

아, 오늘도 이제보다 더 밝은
조선의 새벽!...

아침

누가 해살이 갈래를 세여보았더냐
천갈래 만갈래 하나의 따사로움으로
안아주고
비쳐주며
이 아침도 출근길에 밝은 해는 솟아오고...

누가 내 마음의 갈피를 세여보았더냐
천가지 만가지 그 빛갈과 음향
일시에 깨어나 일터로 내달는다

한점에 모여 불길이 되자고
한끓에 굽이쳐 강물이 되자고...

해살 천만갈래
한빛으로 빛나듯
마음 천만갈피
한뜻에 불붙어
발걸음도 하나로 합쳐지는 아침이여!

낮

시간은 흐른다 흐른다
해는 떠올라 중천을 달릴제
소리치는 기대들사이
바람 싱그러운 이랑들사이
손과 손들은 줄이 벌도록
새날의 기쁨을 들어올리며...

시간은 흐른다 흐른다
잇은듯 나도 제몹은 잇은듯
나라 위한 땀방울 바쳐갈적에

어제는 없던 꽃송이 하나
오늘은 벌써 창가에 피여
나의 기쁨으로 웃고웃으며...

아, 다투어 피는 꽃의 저 웃음속에
나의 수고 깃들지 않았다면
오늘을 내 어이 살았다 하라
나를 바쳐 내 기쁨이 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는
위대한 시간이 흐른다... 흐른다...

저녁

걸어온 자욱과
만나고 헤어진 동무를 두고
갖가지 기쁨과 즐거움
여름날의 숲처럼 뒤엎킨
하루의 한끝-

나는 별이 흐르는 창가에 서있다
아이들의 방에선
새 동화집의 책장 넘기는 소리
부엌에선 기름이 튀는 소리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날이 남겼던 마지막 시간조차
가지가지 즐거운 음향이 되어...

머리우엔 언제나
웃어주는 별이 있고
밭밑엔 내 디디고 선
행복이 있을뿐
하늘 땅 사이에 주인으로 내가 살아
조국이 이리도 고마운 저녁의 기쁨이여!

하루

하루가 어찌 길다고 하랴
해는 한송이의 꽃을 피우고
삶은 하나의 자욱을 남긴다...

하루가 어찌 짧다고 하랴
그 한찰나에 나는 생을 받았고
그 한순간들에 조국은 힘을 키웠다...

짧아서 아쉬우랴 길어서 소중하다
우리 당중앙의 큰 품에 안겨
순간에도 천만년이 숨쉬는 시대

백발을 없어도 청춘으로 살수 있으리
심장은 멎어도 숨결은 꺼지지 않으리
아, 이런 하루하루 우리 나이 먹었기에...!

1985. 5

사돌공 외 1 편

오재신

바람새 좋다
어서 떠나자
나의 사돌선아

간밤 달빛이 유정할 때엔
게바리로 신명 돋구었지만
이 새벽엔 또
주낙이나 거두어들여야지

배때자 어장일세
도래굽이에 들쭉날쭉
바위뿌리 하나하나
내게야 그저 좋은 일터라네

작살로 찍어내고
주낙에 걸어내고
해뜨기이전 한때
내 별써 만선일세

종구나
수령님 뜻을 꽃피워
해돋이바다에 꽃을 피워
은을 내는 나의 일터

기다리는 철 바뀌는 철이
내게야 따로 있나
출어날이 그대로 풍어날일세

양식공

은실로 드리웠네
금실로 드리웠네
칠색고운 무지개
양식장 앞바다에 실실이 드리웠네

기범선에 포옹풍
동그라미 그리는 연기
내 머리수건 한끝에 감도는 아침
3월이라 이른봄에 가을하는 아침

은실로 드리웠네
금실로 드리웠네
미역, 굴치, 다시마

바다속에 줄줄이 무지개 드리웠네

은실을 당겨라
금실을 당겨라
한끝은 바다에 걸고
한끝은 솟는 해에 걸어보자

해솟는 아침 한때
한 난가리 쌓아올리니
그제사 배들어오네
엇저녁 떠난 어로반총각들
배머리도 나란히 포구로 가자네

직포공처녀

문기창

해살처럼 파스한
조명등아래
비단필 감고도는 너의 직기
하나에서 스물이 넘어도

오리오리 한오리도 놓칠세라
한눈으로 다 지켜보는
충성의 너의 마음
꽃비단우에 어리였구나

고르로운 직기소리
기대와 함께 숨쉬며
기대와 함께 움직이는 너의 동작
어쩌면 춤추는 무용수같으나

그것은
인민의 행복을 짜는
보람찬 로동속에
네 익힌 심장의 노래
네 익힌 온몸의 룰동

피고피여
방울을 터치고싶은 꽃시절
가슴은 벅글고
꿈은 아롱져

하건만
너는 언제나 직기앞에서
네 수놓는 비단필우에
한점의 티도 생길세라

마음의 구석을 찾고찾더라

그 일숨씨 기록하다고
칭찬하는 말들에
너는 다소곳이 머리숙이며
한일보다 못한 일 더 많다고
얼굴만 붉히는 마음

그 마음
얼마나 큰것인가
15억미터 천고지에 올라서는
너의 그 걸음

앞서고 앞서도 성차지 않아
새 기술혁신의 밤을 밝히며
새 순회길 익혀가는 너
달리고 달리는 길

필필이 피어나는 꽃송이
너는 그 비단필에
자신의 마음 비쳐보며
이 땅우에 피어나는 새생활
꽃향기를 느끼는것 아니나

아, 조국에 바치는 너의 사랑
꽃나이 그 시절을 바쳐
송이송이 꽃송이를 피워가는
그 비단필보다 아름다운것
이 세상에 없으라

열정

최춘길

생산현장에 나가 취재를 하여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예상치 않았던 경우를 종종 당하곤 한다.

고심하여 정했던 취재방향과 전혀 다른 융감성과 대담성에 대한 이야기, 소박하면서도 꾸밈없는 생생한 이야기...

하지만 그때의 기쁨을 어디에 비기랴.

그 기쁨은 취재를 쉽게 할수 있게 되었다는데서 오는것일가, 혹은 독자들에게 지구가 달과 마주쳐서 깨질번했다는것과 같은 파격적인 글을 쓸수 있다는데서 오는것일가.

아니다!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사상정신적풍모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했기때문이다.

나에게도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간부들과 인민들은 자력갱생하는 데 습관되었으며 매우 융감해졌습니다. 당에서 무슨 문제든지 내놓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제격 받아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내고야합니다.》

머칠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충성의 열정을 바쳐가는 용해공들의 보람찬 투쟁모습을 본사에 소개하기 위하여 나는 용광로직장을 찾아갔었다.

빨간불, 파란불이 경쟁하듯 깜빡거리고 계기바늘들이 한들한들 춤추는 사령실에서 나는 부직장장동무를 만났다.

그는 한뼘 쇠물속에서 살아온듯 검붉은 얼굴에 큼직한 마디진 손의 50대의 무척 무뚝뚝해보이는 사나이였다.

그는 내가 찾아온 사유를 듣더니 역시 내가 처음에 받아안았던 인상 그대로 예돌지 않고 말했다.

《잡지에 내려면 청년작업반을 큼직이 내주시시오.》

나는 부직장장의 이 요구에 기꺼이 동의하여 그와 함께 3호용광로로 향했다.

우리들이 용해장을 가까이 했을 때는 마침 청년작업반이 출선구를 방금 터뜨린 때였다.

끝이 없는 샘과도 같이 출선구로 팔팔 쏟아져 나와 갈래많은 도랑으로 보물처럼 즐기쳐내리는 쇠물...

줄지어선 연도의 환영대렬처럼 긴쇠물도랑에 수억만개의 신포한 쇠물꽃을 날린다.

참으로 쇠물의 흐름은 불만하였다.

어느사이엔가 쇠물은 두번째 남비에 차기 시작

하였다.

나는 용해장에 올랐다.

확확 달아오른 용해장은 그야말로 불도가니였다. 화염이 내뿜는 출선구앞에 뛰어들어 긴 쇠장대로 쇠물길을 열어가는 용해공, 흐르는 쇠물도 더 잘 흐르라고 온 심혈을 기울여 쇠물을 저어가는 용해공, 한쪽에선 긴 호각소리에 맞추어 천정기중기가 천둥소리를 지르며 벌써 다음번 출선준비를 위해 슬라그길우에 모래를 퍼기 시작했다.

저쪽 분석실쪽으로는 빨간머리수건의 처녀가 분갈은 이마에 송골송골 땀한 땀방울을 씻을념두없이 시료를 들고 종종 달음을 친다.

처녀를 바라는 용해공들의 얼굴에도 공개될 분석수치를 두고 몇몇한 자신심과 은근한 바램이 하나로 융합되어 간절한 표정으로 떠오른다.

이글거리는 불속에서도 용해공들의 심혼은 쇠물에만 달리고있었다.

우리들이 출선구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출선의 불기운에 확 달아오른 구리빛 얼굴을 수건으로 문대며 급히 달려온 청년작업반장 방재석동무가 병어리장갑을 벗어 흔들어대며 부직장장에게 호소하듯 말했다.

《부직장장동무, 남비를 더 보내주시시오. 이거야 어디...》

알고보니 쇠물량이 많아져 녹여놓은 쇠물을 다 뿜을것 같지 못하다는것이였다.

부직장장은 땀배인 얼굴에 병글썩한 웃음을 짓더니 무선전화기를 들었다.

《남비수리장! 남비수리장!》

《예, 남비수리장입니다.》

《반장동무요? 왜 쇠물남비를 더 보장하지 못하오.》

그러자 무선전화기에서는 잠시 전류의 흐름소리만이 들리더니 당황해하는 자

거센 목소리가 울렸다.

《허, 이런변이라구야. 손에서 자개바람이 일게 만들어보내도 이 성화니... 곧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부직장장은 흐뭇이 미소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올해 신년사를 감격과 흥분 속에 받아안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용해공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참 사람들의 일욕심이 전례없이 많아졌지요.》

그 순간 나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팍 차올랐다.

《일욕심이 전례없이 많아졌다!》

이 말은 용해공들의 활력이 더욱 세차졌다는것

을 말해주는것이다.

이 말은 또한 지난해에 비해 새해에는 쇠물량이 훨씬 늘어났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 무엇이 이렇듯 넘치는 활력을 낳게 하였는가.

강철전선의 새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불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그 믿음, 그 신임, 그 행복으로 용해공들의 가슴마다는 충성의 열정으로 쇠물인양 뜨거웁다.

열정, 충성에 불타기에 불타기에 용해공들은 좁전에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하던 로조입방법으로 폭스소비양을 기준보다 훨씬 더 낮추어 교대에 한차지의 쇠물을 더 뽑아내게 하였다.

용해공이 된지 얼마 안되는 애송이용해공은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못쓰게 된 분해기를 살려 수많은 쇠물을 거저 얻어내게 하였다.

쇠물을 위해 쇠물보다 더 뜨거운 용해공들!

쇠물!

그것은 용해공들의 충성의 열정이다.

가슴에 피가 끓게 하는 이야기를 보고듣는 사이에 드디어 출선이 끝났다. 그러자 용광로는 또 다시 결전을 준비하며 출선의 단조로운 풀력거림

을 누르고 거센 숨결을 뿜아올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떠밀린듯 기관차가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묵중한 쇠물남비를 끌고 강철직장으로 향했다. 이제 강철로들마다에 용암의 분출처럼 불길이 하늘에 솟구칠것이고 그러면 압연기에서는 비단필같은 강판이 물결칠것이다.

아, 이 구내만이 아닌 충성의 열정에 이끌린 쇠물이 가당을 조국땅 방방곡곡에서는 인간들의 새라새로운 모습을 또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놓을 것인가.

막장이 들썩한 발과소리, 궤도를 구르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기계공장 구내를 진감하는 프레스의 힘찬 동음소리...

용해장을 떠나는 나의 가슴은 받아안은 새로운 충격으로 하여 마냥 높뛰었다.

정녕, 용해공들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충성의 열정, 이것으로 하여 김철의 용광로들마다에서 쇠물은 억년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없이 쏟아질것이며, 그것이 그대로 불씨가 되어 조국은 더 세찬 기적과 비약의 한길에서 열정의 활화산이 되어 타번질것이다.

탄부, 그대 이름은...

윤명숙

재롱부리는 아기들이
사철 그대들의 어깨우에서 웃고
사람들의 옷자락에 꽃잎이 스칠 때
서리돌힌 갱벽이 탄부와 옷자락을 스친다

서늘한 푸른 숲과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안겨들 때
쏟아지는 탄덩이들이
은금의 보화처럼 탄부의 가슴에 안긴다

해종일 사람들곁에
꿀벌들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춤을 추어도
그것을 받들고 선 탄부의 머리우엔
때없이 석수가 쏟아지고 땀에 젖어도
왜 그리도 웃음소리 높은지
땅우에 사는 사람들 다는 모르리라

다는 모르리라 탄부가 아니고선
때없이 봉락에
번개같이 방틀이 쌓여지고
순간의 석수에도 돌격로를 열고야마는
아, 탄부의 삶이 이처럼 벅차고

아름다운줄 땅우에선 미처 알수 없거나

아는가 사람들이여
말없이 묵묵히 이 땅을 꽃피우며
사철 땅우에 빛과 열을 뿜어올리는
탄부의 삶으로 조국은 얼마나 빛나는것인가

갱도속 굽이굽이
끝없이 뻗어간 동발의 행렬은
탄부의 위훈의 자욱인양
한자욱을 걸어도
조국을 받들어 세워지고 받쳐진
탄부의 삶은 아름답구나

오, 그 때문에 드팀없이 받들고선
락원의 이 강산
사철 봄빛이 흘러넘치거니

그래서 어머니조국은 부른다
가장 귀한 이름으로
가장 믿음에 찬 이름으로
탄부!
그대는 공업의 척후병이여라!

형상적비유를 독특하고 진실하게

리시균

풍부한 시적형상을 통하여 시인의 폭넓고 깊은 체험세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서정시에 있어서 형상적비유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잘 선택된 비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감각적표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수많은 말을 사용한 묘사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표현력이 강할수 있다.

형상의 수법인 비유는 어떤 현상과 사물을 그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현상이나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는것으로서 여기에는 직유, 은유, 의인화과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속한다.

형상적인 비유는 개별적인 시어나 시문장에서만 아니라 시전체에 리용되어 시적형상의 독창성과 진실성을 살리는데 이바지한다.

형상적인 비유를 잘하면 시인의 사상미학적인도와 시의 사상감정을 특색있고 진실하게 깊은 뜻을 담아 잘 나타낼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에 대한 과장과 분석을 낳으며 예술적진실성을 잃고 자연주의적경향으로까지 굴러떨어지게 된다.

△ 진실하고 특색있는 비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판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의 수법인 비유를 비판복적으로, 독특하고 진실하게 살려쓰는것은 시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형상적비유를 독특하고 진실감이 나게 쓸줄 알아야 시의 사상정서를 독창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낼수 있다.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노래 《조국의 진달래》(박필모 작사)의 가사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내면세계를 비유적으로 노래한 형상적발견이 있는 명가사이다.

그립던 내 조국에 붉게 핀 진달래야
찬바람 눈속에도 억세게 피었구나
짓밟힌 강산에 새봄을 주려고
장군님 뒤를 따라 네 품에 샀노라

노래에는 진달래 만발한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화폭과 진달래의 향기를 조국의 성취로 감수하는 투사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가 비껴있다.

그리운 조국땅에 붉게 핀 진달래, 찬바람 눈속에도 억세게 피여난 진달래- 그것은 조국땅을 밝

는 투사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조국의 모습이었으며 모진 시련속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억센 기상인 상징이었다.

가사는 2, 3절에서 《한송이 꽃에도 한줌의 흙에도 전우들의 피가 스민 어머니품》, 못잇을 조국강산을 한품에 안아보며 《해방된 조국의 그날》을 그려보는 투사들의 아름다운 광만과 정서, 그리고 《원썬을 몰아낸 금수강산 삼천리에 장군님 밝은 해발 영원히 비쳐가》려는 투사들의 열렬한 지향과 의지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조국강산에 붉게 핀 진달래에 의탁하고 비기여 총을 잡고 아버지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는 항일혁명투사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구체적인 생활화폭속에서 독특하고 진실하게 노래한 바로 여기에 시인의 형상적인 발견이 있으며 노래의 개성적특성이 있다.

시형상의 독창성과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적비유의 구사에서 언제나 독창적인 발견이 있어야 하며 새맛이 나게, 진실하게 해야 한다.

개성적으로 진실하게 표현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리 비유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최근에 나온 가사 《단풍은 붉게 타네》와 《심장이 말해다오》가 독특한 시적형상으로 개성적인 특성을 보여주고있는것은 다같이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생활체험을 노래하면서도 비유법의 구사에서 독창적이며 형상적인 발견이 있기 때문이다.

가사 《단풍은 붉게 타네》(배헌평 작)에서 시인은 시전체에 독창적이고 형상적인 비유의 수법을 적절히 리용하여 생활의 본질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다운 내면세계를 독특하고 진실하게 잘 표현하고있다.

꽃이 피는 봄이면 꽃이 그리워
단풍나무 한그루 하소연하네
봄이여 봄이여 내 잎새에도
한떨기 꽃을 피게 해주렴

꽃피는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며 풍성한 가을이면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더욱 설레이는 단풍나무의 애절한 소원과 그것을 풀어주는 따사로운 해빛에 대한 형상적비유는 사람들에게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뜻을 새겨보도록 암시와 여운을 주고있다.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 (1절)과 가을에 열리는 향기로운 열매(2절)에 대한 미적표상을 불러일으

키면서 전개되는 가사의 밝고도 부드러운 서정은 따사로운 해빛에 대한 고마움과 믿음의 승엄한 서정세계(3절)에로까지 확대되고 승화된다.

봄가을에 바라던 단풍의 소원
따사로운 해빛이 풀어주었네
열정의 그 잎새 붉게도 타데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아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가사에서는 따사로운 해빛아래 꽃도 열매도 부럼없이 붉게 타는 단풍에 대한 생동한 시적화폭을 통하여 고다운 당의 사랑과 믿음을 서정화된 시적정서로 노래하였다.

참으로 이러한 시적화폭에는 따사로운 해빛을 두고 어머니당의 품을 느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더없이 뜨겁고 승엄한 체험세계가 끝없이 높고 웅심깊게 펼쳐져있다.

가사는 형상적비유의 진실성과 생동성, 비반복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정서적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현상을 의인화하여 노래한 가사 《단풍은 붉게 타네》는 시전체가 그대로 비유의 한 형태인 은유의 수법으로 이루어진 특색있는 시작품이다.

가사 《심장이 말해다오》(리범수 작)는 비유의 한 형태인 의인법을 리용하여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정을 진실하고 참신하게 노래하고있다.

한없이 따사른 당의 그 품을
그 누가 불렀나 어머니라고
내 진정 그 사랑 다 알길 없어
나 홀로 심장과 이야기하네
아 심장이 심장이 말해다오
어머니 그보다 다정한 그 이름
세상에 더는 없는가

높뛰는 심장에 두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이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목소리에는 당의 은정을 가슴뜨겁게 느끼는 우리 인민의 진정이 담겨져있다.

가사에 쓰인 의인화된 대상에 대한 부름말과 물음의 수법은 당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감동깊이 표현하면서 가사의 독특한 양상을 살리고있다.

형상적인 비유는 가사에서만 아니라 서정시들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훌륭한 서정시들은 다양한 비유법의 구사에서 시인의 능숙하고 세련된 기교를 잘 보여준다.

서정시 《우리는 배낭을 벗지 않으리》(리광재 작)는 항일유격대원들이 불러준 배낭을 지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

한 비유적형상을 통하여 험한 진펄과 사나운 강물이앞을 막아나서도 그 누구의 힘을 빌지 않고 제발로 그것을 기어이 넘고 헤쳐가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혁명의 바다에 꽃을 달고
먼길 떠난 항일의 선렬들
깨끗한 미소 간직한채
눈덮인 산밭에 청춘을 묻었다.
이 배낭 넘겨주며

이 시에서는 항일의 선렬들이 넘겨준 배낭을 받아메고 준엄한 전쟁의 불비속과 거치른 폐허를 헤치고 넘으며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달려온 우리인민, 당과 수령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80년대 혁명전사들의 거세찬 진군의 발구름 소리가 힘있게 울리고있다.

전사의 불타는 심장으로
혁명앞에 미래앞에
수령님 위하여
당중앙 위하여
다시금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는 영원히 혁명의 려장을
벗지 않으리!

생동한 비유로 표현된 가사의 정서와 감정은 얼마나 명백하고 열렬하고 예리한가!

시인들은 개별적인 시어를 선택하고 시문장을 구사하는데서도 비유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시의 사상정서를 살리고있다.

서정시 《우리 가는 길》(차영도 작)에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고있는 당에 대한 혁명적 신념을 비유적으로 생동하고 웅심깊게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다.

가슴속엔 다만
억척같이 뿌리 내린 하나의 기둥
그것은 당만을 믿고 당만을 따르면
우리는 이긴다는 그 신념이었다!

...
그것이면 아 그것이면
한 너인의 작은 가슴에서도
그렇듯 불같은
락원의 웨침소리 터져나왔고

그것이면
이름없는 길가의 초가지붕밑에서도
당을 대들보같이 받들어나선
태성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을 그 어떤 다른 말로 이처럼 생동하게 노래할 수 있겠는가.

시인은 하나의 표상을 주기 위하여 그에 알맞는 특징적인 비유를 선택하고있는것이다.

《가슴속엔 다만 억척같이 뿌리내린 하나의 기둥》이라는 당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에 대한 은유적표현도 재치있거니와 《억척같이》, 《불같은》, 《대들보같이》를 전통적인 직유법을 살려쓴 시구들은 또 얼마나 생동한가.

이 시에서는 《불같은 락원의 웨침소리》, 《당을 대들보같이 받들어나선 태성할머니의 목소리》, 《불덩이같이 팍팍은 가슴들의 그 고동높은 숨결》, 《건설장마다에 불길처럼 나뭇기던 그 기발》과 같은 인상깊은 비유적표현들이 시문장에서 빛을 뿌리고있으며 땅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힘있게 부각시켜주고있다. 시인은 《같이》, 《처럼》이라는 보통적인 단어를 리용하여 형상적인 직유법을 살려쓰으로써 시의 사상감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표현하였다.

형상적인 비유의 효과적인 활용은 시의 사상을 훌륭히 표현해주면서 우리 말의 표현적풍부성과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비유법을 적절히 활용하고있는 시로는 《무산이라 철산은》(오재신 작, 《조선문화》 1985년 1호)을 또한 들수 있다.

이 시가 담고있는 생활정서의 진실성과 생동성은 운률의 효과적인 탐구와 함께 비유의 적절한 활용으로 하여 그렇듯이 잘 표현되고있다.

...

고마운 당의 햇빛
따사로이 넘쳐
정깊은 고장

발파의 메아리
령 넘어 울려와
마음속엔 언제나 가까운 고장
아, 무산이라 철산은
김철의 생명선!
떨어져선 못사는 고장이라오

이 시는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들어 가까운 고장으로 된 무산철산땅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음이 끌리도록 은근하고 부드럽게 노래하고있다.

소박하고 진실한 서정속에 무산철산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은 시의 결구는 의심할바없이 생활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주고 시의 정서적고조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독특하고 세련된 형상적비유이다.

우리는 백마디의 설명을 대신하게 되는 이러한

형상적비유에서 시인의 참신한 기교와 시적형상의 독창성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형상적비유의 특성은 정서적으로 채색되어있으며 극도로 집약되고 함축된데 있다.

시에서 형상적비유는 최대한의 형상성과 간결성, 함축성을 보장하여야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시의 세계에 깊이 끌어들이수 있는것이다.

△ 인위적인 부정확한 비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요즘 서정시들에 자연주의적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위험한 요소입니다. ...비유한다고 하여 아무데나 다 비유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는 자연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은 시창작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적문제의 하나이다.

우리의 시작품들에는 아직도 형상적비유를 잘못함으로써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리해를 낳게 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최근에 나온 적지 않은 시작품들에서는 진실감을 주지 않는 인위적인 무의미한 비유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일부 시들에서는 비유가 시인의 생경한 주장을 해설하는데 바쳐짐으로써 진실감이 덜하며 지루하고 따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시 《백두산에 눈보라칠 때》(동기춘 작, 《조선문학》 1985년 4호)는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생활을 지나치게 꾸미고 분식함으로써 생활적타당성과 예술적진실성을 잃고있다.

《사방 얼음조각들의 아우성소리, 귀뿌리를 스치며 흘날리는 조약돌》-이렇듯 지독한 눈보라에 휩싸여 《쓰러지는 순간에 바위를 끌어안》자 몸도 마음도 든든해졌는데 《꿈결인양 씻은듯 파란 하늘》을 기쁨에 넘쳐 돌아보니 《백두산이 나를 안고있》다는것이다.

시에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사상은 결구에 있다.

오, 그 순간에 심장을 치는 생각
이렇듯 백두의 품에
그 언제나
우리 운명을 안고오지 않았던가

처음에 백두산의 세찬 눈보라때문에 쓰러지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바위를 끌어안았다고 주면서도 불현듯 날씨가 개인후 돌아보니 《백두산이 나를 안고있었》다고 백두산을 의인화하여 노래한것은 시인이 백두의 품이 그 언제나 우리 운명을

안고있었다는 주장을 살리려는 의도때문이었다고 본다.

시에서 쓰인 이러한 형상적비유는 시인이 체험한 생활감정의 진실에 의거하지 못함으로써 구경에는 생활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을뿐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위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해석을 낳게 되었던것이다.

이 시인이 쓴 일부 시들은 형상적비유가 별스럽게 까다로운 말로 표현됨으로써 구체적인 감각적 표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으며 시적형상의 직관성을 살리지 못하고있다.

붉은 기폭이 휘날려 스쳐간
저 울창한 숲의 바다 하늘끝엔
그날에 빛받친 진리를 새겨안고
밀림은 글발인양 력사의 언덕에 줄줄이 푸르다
(시 《즐기쁨은 그끝을 내 몰라라》에서)

누구든 태어나자부터 너의 신세 입었더라
이 땅도 너의 신세로 살찌왔더라
쇠물은 이 세계 활력의 숨줄
강철을 떠난 창조를 나는 모른다
(시 《쇠물》에서)

먼저 인용한 식구는 까다로운 형용어와 비유로 하여 론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문맥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의 표상을 주기 위하여 그에 적중한 특징적인 비유를 선택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여러가지 말을 자기 취미에 맞게 적당히 갖다붙인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 비유는 그만큼 시상을 흐리게 할뿐이다.

특히 이 시에 나오는 《밀림은 글발인양 력사의 언덕에 줄줄이 푸르다》, 《성스런 밀림의 검푸른 날개를 펴고 뻗은 산발》, 《달려오는 마음들을 품으며 창창 뻗어간 그 끝》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뒤에 인용한 시구에 쓰인 《활력의 숨줄》이라는 숨은 비유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을 표현하고있으나 그 뜻을 쉽게 알수 없게 되어있다.

원래 비유는 대상이나 현상의 어떤 표식을 두드러지게 하며 보다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묘사하거나 표현하는데 필요한것이다.

강철이 나라와 인민에게 주는 혜택을 표현한《태어나자부터 너의 신세 입었더라》, 《너의 신세로 살찌왔더라》 같은 시구절들은 거치른 비유적표현으로 생활의 본질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시적형상의 품위를 낮추는 결과를 낳고있다.

특히 이 시에 쓰인 《강철의 붉은 액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쇠물》이라는 아름다운 고유조선말을 공연히 한자어휘를 엮어서 길게 늘어놓은것 같은 억지스러운 느낌을 줄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시어의 형식적미를 추구하면서

내용보다 형식적기교에 편중하는 경향을 응당 지적해야 할것이다. 시 《나도 그 별 하나》(럼우봉 작) 《조선문학》 1984년 8호)는 번다스럽고 특징이 없는 비유로 서정적주인공의 인위적인 감정을 노래함으로써 그 뜻을 쉽게 파악할수 없게 하고있다.

인차를 타고 갯밖에 나온 서정적주인공- 광부의 느낌은 하늘을 보면 《축하의 꽃보라인가 밤하늘의 별무리》, 땅을 보면 《간데라불을 들고가니... 흘러가는 별무리》, 강물을 보면 《하늘땅의 못별 내려 강물속은 별천지》와 같다.

결구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이 밤에 느낀 별에 대한 시적체험을 이렇게 토로하고있다.

쇠관간에 기대여 강을 보니
저 별 하나는 나... 아, 나도 그 별 하나...

결구까지 읽어도 시인의 사상미학적의도를 종잡을수 없다.

이 시는 마치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하는 아이세계와 같은 기분을 반영한듯한 인상을 준다.

물론 이 시는 밤교대 퇴근길에서 느낀 서정적주인공의 희열과 랑만에 대하여 노래하였다고 볼수 있으나 까다로운 비유와 시적표현으로 하여 진실감이 없고 설득력이 없는것이다.

서정시에서 시자체내용의 빈곤과 공허감을 수다스럽고 부정확한 비유로써 메꾸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형상적인 비유는 어디까지나 생활적인 타당성을 가져야 하며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해야 한다.

서정시 《구름아》(김정철 작)도 형상적인 비유를 진실감이 나지 않게 서툴게 쓰고있다.

이 시는 하늘높이 떠가는 흰구름을 아무런 의지도, 방향도 없이 제마음대로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로 타매하고는 《내 결코 너로 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구름의 운명》과 대치되는 서정적주인공의 지향과 의지를 토로하고있다.

어디에나 맘 내키면 비를 쏟고
제멋에 겨워 우뢰울리며
생활의 즐거움이 여기에 있노라는...
부럽지 않노라, 구름아, 너의 운명

내 결코 너로 되지 않으리
살아도 죽어도 나의 길은 한길
달디단 봄비는 벼들의 터전에
퇴성벽력은 원쑤의 정수리에

이 시의 비유가 견실하게 안겨오지 않는것은 인생의 뜻깊은 진리를 생활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정처없이 떠가는 구름을 상대로 하여 그것을 응

변적으로 선언하고있기때문이다.

형상적인 비유의 수법을 독특하게 구사한다고하여 인위적인 무의미한 비유를 만들어내서는 의의가 없다. 자연이나 사물현상들에 의탁하고 비기여 인간의 내면세계를 노래한 생활적인 짧은 시들에서 이러저러한 자연현상을 화폭으로 제시해 놓고 《나도 너처럼 살리》 혹은 《내 걸코 너로 되지 않으리》와 같은 형식으로 결구를 맺는것은 안일한 창작태도이며 이러한 수법은 도식주의와 류형성을 낳는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랑을 노래한 일부 생활적인 서정시들은 격에 맞지 않는 어색한 비유를 람용함으로써 시적형상의 진실성과 소박성을 잃고 천박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있다.

시 《푸른 잔디 빨간 꽃》(장문필 작, 《조선문학》 1985년 3호)은 청춘의 사랑과 삶의 보람에 대하여 노래하고있으나 진실감이 없는 어색한 비유와 과장으로 하여 생활에 대한 시인의 저속한 미학적취미와 기분을 드러내고있다.

화력타빈공총각이 방직공처녀에게 한송이 꽃을 꺾어주며 하는 말과 《그 꽃 주는 총각의 손 담썩 쥐었다 얼른 놓고》 속삭이는 처녀의 말- 그들의 대사는 시인의 주관적의도에 맞게 꾸러진 부자연스러운 비유로 이루어지고있다.

-아무리 끌라도
비단꽃보다 더 고운 꽃 못찾겠소!
...
-아이참 동무 손엔
타빈의 전기가 흐르나봐!
내 기대 썩썩 돌려주는...

이러한 대사에서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고상한 성격과 사상적지향을 느낄수 없으면 청춘남녀의 재담과 같은 림기웅변의 재치있는 말재간을 보게 될뿐이다.

서정시에서는 대사는 성격의 특징을 예리하게 드러내면서 정황에 맞으며 생활에서와 같이 진실할때라야 힘있게 울릴수 있다.

사랑과 행복에 겨운 청춘남녀의 내면세계를 비유의 수법으로 노래한 시의 결구를 더 살펴보자.

사랑에 겨운 처녀의 얼굴
비단꽃처럼 붉게 타고
행복에 겨운 총각의 가슴에
화력타빈은 뽀뽀 도네

붉게 타는 처녀의 얼굴을 《비단꽃》에 비기고 총각의 뛰는 가슴을 《화력타빈》에 비긴것은 그들의 직업에 맞게 비유하려는 시인의 의도를 짐작하게는 하나 알맞는 표현은 아니다. 《비단꽃처럼

붉게 타고》라는 표현도 부정확한 비유(모든 비단꽃이 붉은 빛갈만이 아닐것이다.)이지만 《총각의 가슴에 화력타빈은 뽀뽀 도네》라는 표현은 얼마나 거칠고 어색한 비유인가.

표현적인 시어와 비유로 간결하고 함축성있게 서술되지 않을 때 진정한 서정과 정서적여운을 기대할수 없다.

진실감이 없는 비유는 특히 직유법의 리용에서 많이 나타나고있다.

시 《간석지의 물소리》(리재준 작, 《조선문학》 1985년 2호)는 간석지에 흘러드는 물소리를 듣고 느끼는 서정적체험을 노래하고있으나 수다스럽고 어색한 비유로써 시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있다.

뜨락또르바퀴에
구슬저내리는 물방울은
그대로 기대에 걸어주는 꽃목걸이인듯
논판으로 흘러드는 물결은
내 가슴에 노래의 금선을
제먼저 튕겨주고 달려가는듯

형상적비유는 어디까지나 사상감정의 진실성과 생동성, 명료성과 간결성을 보장하는데 그 형상적 의의가 있다.

진실감을 주지 않는 인위적인 무의미한 비유, 지나친 과장과 수식사를 늘어놓은 번다스러운 비유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며 사상에술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가질수 없다.

형상적비유를 선택하고 구사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뜻을 정확히 표현할수 있는 적절한 시어를 골라서 올바르게 쓰는것이다.

어떤 비유든지 그 표현이 정확하고 섬세하고 예리해야 뜻이 명백해질수 있으며 시적감정의 진실성은 물론 정서적색갈까지도 두드러지게 나타낼수있다.

일부 시작품들에서는 뜻이 잘 맞지 않는 부정확한 비유들이 쓰이고있다.

시 《당의 목소리》(김석주 작)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지향과 의지를 노래하고있으나 부정확한 비유들을 리용함으로써 서정적주인공의 양양된 체형세계를 제대로 옮겨 전달하지 못하고있다.

불타노라 불타노라
우리 당의 구호를 받아안은 심장들
뻗어가고 솟아오르며 들끓어번지노라
날바다엔 갑문언제가
언땅우엔 무쇠기둥들이...

이 시련에서는 《들끓어번지노라》라는 비유에 문제가 있다.

갑문언제와 무쇠기둥들이 뻗어가고 솟아오른다

는것은 옳은 표현이지만 그것들이 들끓어번진다는것은 전혀 뜻이 통하지 않고 앞뒤가 동이 닿지 않는다.

들끓어번진다는 이 말마디는 견잡을수 없이 몹시 설레여 움직임을 나타내는것으로 어떤 심리적 작용이나 흥분된 분위기를 두고 쓰이는것이다.

일부 시들에서는 형상적비유를 쓰면서 두 사물의 표식의 유사성을 비교하는데서 비유하는 대상 및 현상과 비유받는 대상 및 현상들이 논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앞뒤관계가 빈틈없이 맞물리지 못한 결합들이 나타나고있다.

실례로 시 《내 마음엔》(신형길 작, 《조선문학》 1985년 3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탄, 이 탄의 빛같은
내 진정 꽃향긴줄 아오

여기서 탄의 빛같은 꽃냄새에 비긴것은 두 사물 사이에 표식의 유사성이 없는데로부터 사람들에게 게 리해될수 없다.

비유법은 말그대로 어떤 사실을 다른것과 비교하는 수법으로서 본질적속성이 서로 다른 두 사실사이에는 인상적인 어느 한 표식이 같아야 하는것이다.

우리 시인들은 그 어느 창작가들보다도 세련되고 생동한 형상적비유를 탐구하여 적절히 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형상적비유의 수법을 숨씨있게 구사하자면 무엇보다도 언어와 형상수법에 정통하여야 한다. 우리 말의 우수성과 풍부성을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생활의 본질을 뚜렷이 밝혀주며 내용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안겨주는 특징적인 비유를 선택하는데 힘써야 한다.

시인들을 독창적인 기지와 감각이 번뜩이는 참신한 형상적비유를 탐구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지혜가 깃든 훌륭한 전통적인 비유를 널리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뜻이 깊은 시, 짙막하면서도 누구나 다 외우고싶은 훌륭한 시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승강기 내려가네

김종백

수직갱 승강기 내려가네
광부들과 함께 비좁게 올라탄
새 안전모 쓴
낮선 손님들

부르는이 없이도 스스로 찾아온
그들은 개성의 방직공
평양-금골행 열차승무원들과
차레진 60육생일상을
그대로 들고온 단천할머니

승강기 내려가네
나서 처음 내려보는 막장길
천정을 때리는 석수소리 들으며
짹- 울리는 귀청을 어루만지며

아니온다고
탓할사람 그 누구며
와보지 않는다고
허물될 일 그 무어랴만

우리 당이 마련하는 행복

그대로 앉아서 반아안기엔
그것이 너무도 송구스러워
돌파구를 열어가는 검덕의 큰 걸음에
제 작은 자옥도 남기고싶어
마음이 앞서가는 천길막장

승강기 내려가네
휴가온 군인, 향산골의 판매원도
북통을 안고온 소년단원들도
부전고원 사양공이 들고온 꽃다발에
함께 실려온 풍년벌의 가을빛도

제 손으로 캔 한덩이 쇠돌로라도
검덕이 울리는 자랑찬 보고에
빛을 더해줄 뜨거운 마음들이
제살림 나라살림 쇠돌로 고여
당의 구상 빛내일 그곳으로
밝은 앞날 꽃피날 그곳으로

아, 승강기 내려가네
온 나라가 내려가네

백두산을 내리며

김정곤

백두산을 내릴 때에는
내 마음 그지없이 깨끗해져라
내 생활의 갈피갈피
머리 흰 어머니앞에처럼 숨김없이
천지의 맑은 물에 다 비쳤으니

가슴은 뜨거워져라
길섶에 점점이 만병초 한송이에도
조국의 진정한 모습이 눈시울 젖도록 안겨오고
그 어디 한줄기 오솔길에도
가슴 메이게
혁명의 만리길이 굽이쳐와라

길가의 가벼운 부석 하나
마음에 무거워 선뜻 쫓을 수 없노라
넘어진 진대나무 한그루도
차마 밟고넘을수 없노라

백두산을 내릴 때에는
아득한 옛시절에 깃든 전설도 노래로
걸음걸음 숭엄히도
내 넋을 불태워라

...내어린시절
장수별 우리러 멍석우에 누워도
백두산쪽에 머리 두고 잠들던
그 밤하늘이 가득가득 안겨와라

백두산!
피바다를 씻어내린 맑은 물도
저 천지의 물굽에서 시작되곤
암혹을 밀어낸 푸른 하늘도
저 말기에서 열려졌나니

저 물길에 내 마음 젖어

가슴 들끓어라
저 노을에 내 가슴 물들어
심장 불타라

이처럼 불타는 넋과
이처럼 맑아진 마음으로
백두산을 내릴 때에는
내 걸음걸음 삼가
사령부 귀틀집에 다가가는듯
조용히 문이 열리고
백두의 흰눈송이 밝으시며
김일성장군님 나서시는듯

아아!
두손 가슴에 얹노라
태양을 받들어 이처럼도 높아진 백두산상
여기 내리는 한송이 흰눈은
녹아서도 한방울 천지의 물이 되고
여기 피고지는 하나의 나무잎은
떨어져도 백두기슭 태양아래 쌓이나니

내 세상에 태어나고 숨을 쉬고
걸으며 달리며 불을 헤치며
반생을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굽이쳐와
이제야 닿은듯

아,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을 내릴 때에는
이제야 진정 삶의 첫자욱을 내짚는듯
조국의 산과 들
온 우주가
새 모습으로
내앞에 열려지도다

간절한 소원

-국제 친선전람관에서-

김중실

창밖엔 향산천 물소리, 물소리
진렬대엔 만민의 소원어린 뉘시대 하나
한번도 풀리지 않은 뉘시줄이
내 걸음 조용히 멈춰주네

눈앞에 흐르는 향산천 그리도 멀던가

꽃잎만 날아들어도
산천어때 모여드는
이 좋은 가을날
우리 수령님 오시였으면

수령님 오시여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었으면
마음은 단풍으로 타는데
긴긴 낚시줄은 풀릴줄 모르니
이내 소원도 풀리지 않네

산 좋고 물 좋은 묘향산을
천금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인민의 유람지
행복의 절승으로 꾸려주소
우리 수령님

물이 좋으면 물이 좋아
거기에 용해공들 불러주시고
두봉화 붉게 피면 꽃이 고와
거기에 방직공들 불러주시고

아, 우리 수령님
언제 한번 편히 쉬실사이 있으셨던가

이슬젖은 농장길 천리
해저무는 공장길 천리
외국방문의 길 수천수만리
가시는 길 자옥자옥 더듬어보며
가슴속에 드리워보는 낚시줄이여

오늘도 향산천 맑은 물에 실린
꽃단풍은 제 소원담아 타는듯 흐르고
바위를 안고 흐르는 물결도
그저는 흐를수 없어
아름다운 무지개 빛나거늘

언제면 아, 언제면 풀리라
온 나라의 소원
온 세상의 념원
향산천 맑은 물은 눈앞에 흐르건만
오늘도 마음속에만 드리워보는
아, 풀리지 않은 낚시줄, 낚시줄이여!

철의 도시의 밤

권강일

잠든 마을을 지나
불꺼진 도시를 지나
먼 여행길에서 한밤중 돌아와도
철의 도시여, 너만은 불이 밝더라
반겨웃는 눈빛처럼
불야경, 불야경의 창문들
구내로 뻗은 넓은 길에
흐르는 말소리, 자전거종소리

종더라
교대를 넘겨주고 들어오는 용해공들
그 열띤 이야기에 끼여들어
함께 밤거리를 걷는것도

즐거웁더라
남편의 후야근길 차비하며
늦도록 창문가에 얼른대는 너인의 모습
그 살뜰함에 내 마음 아득히 젖어드는것도

사품치며 끓는 쇠물을 안고
들먹이며 숨쉬는 용광로를 안고
낮과 밤 따로없이
철야에 습관된 나의 거리

멀리 화광이 번뜩이는 굴뚝에

치솟는 연기색갈만 보고도
로황을 가늠하며 달려가고

이웃과 이웃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부르며 깨우며
대건설장에 보내는 강철을 두고
언제나 한마음 들끓는 거리

나에게는 안겨와라
저 많은 창가의 불빛들이
하나의 정다운 눈빛과도 같이
쇠물을 두고 속삭이는 이야기와도 같이

아, 자랑하노라
머리우엔 붉은 노을 기발처럼 추켜들고
강철로 당을 받들고 조국을 받드는
성실하고 근면한 나의 철의 도시를

사랑하노라
한밤중 용해공거리에 울리는
저 문 두드리는 소리도
이런 밤에 습관된 아이들의.
고르로운 숨결소리도

민족의 슬기와 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

-괴뢰서울예술단의 이른바 《예술》 공연을 보고-

장상의

본단의 장벽을 뚫고 40년만에 마련된 평양예술단과 서울예술단의 호상 방문공연!

민족사에 대서특필할 력사적인 그 시각 온 겨레는 오고가는 그 길우에 5천년을 이어온 민족의 혈맥이 다시금 뜨겁게 흐르고 맥박치기를 절절히 바랐다.

그러나 우리가 괴뢰서울예술단의 공연을 통해 목격한것은 놀랍게도 한겨레의 피줄을 이은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매국배족의 검은 독물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항상 부르조아반동문화를 반대하는 동시에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습니다. 민족예술을 발전시킨다고 하여 결코 복고주의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복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여야 우리의 민족예술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 하여 민족의 고유한 모든것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유린당하여 양풍, 왜색왜풍에 물젖고 복고주의의 진흙탕속에 빠져있는 남조선의 《예술》은 말세의 풍조가 질게 드리워 단말마의 모지름을 쓰며 허우적거리고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이른바 《전통문화》의 대표작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종교무용 《승무》와 궁중무용 《태평성대》 그리고 《전통음악》이라는것을 통해 꿰뚫어볼수 있었다.

장삼을 걸친 녀승이 음침한 절간의 불탑을 향해 절을 하는가 하면 뒤이어 따분한 목탁소리에 맞추어 무엇을 덮칠듯말듯 목을 움츠리고 느릿느릿 돌아가는 꼬락서니... 이처럼 종교적인 신비세계를 추구하는 이 무용은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이라고 할수 없는 거칠고 위압적인 춤가락과 툄동을 취하고있으며 무용반주도 목탁소리를 그대로 리용하고있다.

특히 불탑앞에 무릎을 꿇고 맹목적으로 레배하는 녀승의 모습에는 《전세》에서 이미 정해진 운명에 순종하여 《현세》의 고통을 《착한 행동》으로 참아내면 《래세》에는 《극락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반동적인 불교의 교리가 그대로 체현되어있었다.

분명히 상전의 사대매국정책을 도와나서야 했던 괴뢰서울예술단에 있어서는 이렇게 착취사회의 불합리성을 가리워주고 계급투쟁을 무마시켜주는 《승무》의 이러한 사상주제적내용이 필요했을것이다. 그래서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관청뜨

락에서만 추어오던 《승무》를 수백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조차 그 춤가락과 툄동, 반주와 의상, 심지어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복고하여 다시금 사람들에게 무지몽매와 순종을 강요하려는 수단으로 삼게 되었을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들은 궁중무용 《태평성대》에서도 같은 목적을 추구하였다.

원래 이 무용은 궁성안에 갇히워 봉건국왕놈의 향락의 제물로 유린당하던 궁녀들이 그놈의 반인민적인 통치를 《선정》과 《인덕》으로 미화분식하여 궁중행사때마다 추어왔다.

벌써 이것부터가 착취사회의 불합리성을 스스로 고발하고있는셈이 아닌가?

우리는 그 곰팡내나는 춤을 옛것대로 옮겨놓는 20여명의 녀성무용수들을 바라보면서 모를지기 저들도 봉건군주놈을 찬미하게 위해 일부러 웃음을 지어 내고 마음에 없는 아양과 추태를 부리며 춤추던 그 수난자들의 처지와 별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저들도 전두환괴뢰도당의 군사과쑈독재를 합리화하고 미화분식하는데 보탬을 주기 위한 춤을 추지 않고서는 현 남조선사회에서 단 한순간도 살아갈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였기때문이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태평성대》와 같이 케케묵은 춤을 추도록 강요함으로써 마치도 제놈의 《정당정치》와 《참신한 정치》에 의하여 남조선사회에 그 어떤 평온이나 안정이 찾아온듯이 위장하려고 노리였던것이다.

그러나 괴뢰역도가 궁중무용따위나 몇번 내뿜린다고하여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과 권력집단간의 개싸움으로 잠시도 정치적안정을 이루어보지못한 남조선사회가 결코 《태평성대》로 둔갑될리는 만무하다.

이번에 그들은 판소리선률에다 바탕을 둔 기악곡들을 무용반주음악으로 쓰면서 그것이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 할 《전통음악》이라고 웃지도 울지도 못할 희비극을 놀았다. 무용반주음악이라는 것이 유리창을 못으로 긁어내듯 아츠럽고 찢긴 소리를 내니 이건 정말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고싶을 정도로 불쾌하였다.

명백한것이지만 판소리가수들에게 고유한 썩소리는 인위적인 목청으로서 성대를 무리하게 쓴 결과 생겨난 병적현상이다. 그런것을 지난날 량반놈들은 술놀이판에서 흥얼대는 제놈들의 더러운 기호와 취미에 맞는다고 해서 《명창》이니 《극창》이니 하고 장려하여왔다.

이것을 어떻게 자연스러운 발성법이라고 하겠는가?

남녀의 성부를 가릴수 없는 썩소리는 민족음악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예술전반에 막대한 해를 끼쳤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민족적특성의 발현인 부드럽고 유순한 음악을 좋아했으며 그 선율을 특징짓는 리듬과 박자에 맞춰 아름답고 우아한 춤을 추어왔다.

이와 같이 고상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심리에 거슬리는 관소리음악을 기어코 《전통음악》으로 정당화하려는 그들의 진짜속심은 사람들에게 착취계급의 반동적인 견해와 변태적인 미감을 그대로 주입시켜 궁극에 가서는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자는데 있었다.

다만 그것이 유산이라고 하여 안민들이 좋아하진 말진 진보적이건 반동적이건 가리지 않고 수백수천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조차 먼지 한점 날릴새라 그대로 복고하는것이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면 구태여 창조를 본성으로 하는 예술이 무엇때문에 필요하겠는가?

보다실이 피뢰서울예술단은 민족의 《얼》과 《겨레의 민족적정서》가 깃든 작품들을 보여준다고 횡설수설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이미 력사의 오물로 되어버린 반동적인 유산만을 복고찬미함으로써 사람들을 자기의 계급적처지도 모르고 오직 미제와 전두환피뢰도당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로 길들이려고 책동하였다.

그들은 감히 민족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지껄이기전에 민족적인것이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인민적인것이라는것을 깨달아야 한다. 워낙 인민을 등진자들이니 이 진리를 어떻게 알수 있으며 또 이해하려고 하랴!

우리가 이번 피뢰서울예술단의 공연을 보면서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하지 못한것은 또한 그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에서 근본을 이루고 있는 혁명정신과 민족적존엄을 거세하기 위해 실로 파렴치하게 날뛴 그것이였다.

민족자주의식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토록 생명처럼 소중한것은 그것이 자기 민족의 힘을 믿지 않는 민족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자기 민족의 모든 문제는 자체의 힘과 투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는 사상의식이기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인민의 그 혁명정신을 흐려보려고 공공연히 허무와 부화타락을 고취하는 추태를 부렸다.

심지어 그들은 원산과 장진이 고향이라는 송장같은 늪다리반역자들까지 끌어내여 나라 빼앗긴 슬픔만이 가득찬 일제시기의 류행가 《눈물젖은 두만강》, 《불효자는 읍니다》를 불러대게 하는 망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순수 예술》의 견지에서 새롭게 창작한 《성과작》이라는 무용 《꽃보라》와 《2,

000년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무슨 《서울찬가》라는것을 무대우에 올렸다.

우의 작품들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꽃보라》는 내용과 형식이 분리된 얼치기무용으로서 우리 민족의 미풍량속을 철면피하게 외곡모독하고있다.

상투를 틀고 비녀를 지른 남녀무용수들의 모습을 보면 봉건사회의 청춘남녀가 분명한데 꽃피는 봄날 사랑을 주고받는 그들의 춤동작은 꼭 양키식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서로 넘보며 빙빙 돌다가 그럴만한 전제도 없는데 덥석 포옹하곤하였다.

더구나 남자무용수가 공중에 들어올렸던 여자무용수를 무릎우에 얹히고 이리저리 쓰다듬으며 키스까지 하는데는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전날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눈만 방긋》하던 고상한 우리 조선녀성들을 이처럼 더러운 갈보녀으로 모독하는자들을 어떻게 용납할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것도 성차지 않아 이른바 《서울찬가》라는 작품에서는 서양식으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육체를 드러내보이는 의상을 입은 녀배우들이 무대 양쪽에서 들락날락하며 음란한 몸짓과 함께 추파를 던지게 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가창대의 이색적인 노래선율과 양키식반주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추잡스러운 녀배우들까지 내다세웠으니 이진 정말 호색광들을 끌어들이는 《기생찬가》, 《매춘찬가》가 분명하였다.

하긴 서울 장안 도처에 흔한것이 매음굴이라니 《서울찬가》를 《매춘찬가》로 부른다고 해서 그 뜻이 달라질것이란 조금도 없지 않는가?

우리는 이 하나만으로도 양키문화에 오염되고 중독된 퇴폐한 남조선예술의 일단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그래도 이 작품은 좀 나은 편이였다.

현대무용 《2,000년대를 향하여》는 색정을 로골적으로 부추기는것으로 하여 차마 눈뜨고 바라볼수 없었다.

수십명의 남녀무용수들이 거의나 알몸 그대로 음탕한 양키음악에 맞추어 엉덩이춤을 추다가 아예 무대우에 드러누워 온몸을 광란적으로 비틀어대는것이 이 작품의 구역질나는 면모이다.

이것은 벌써 그들의 전신에 양도깨비의 뉘이 짝 배여있고 이것으로 하여 이미 사람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버렸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이렇게 피뢰서울예술단에서 《순수 예술》의 리념에 기초하여 창작했다는 《예술작품》들은 순전히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들을 부화타락과 안일향락으로 유혹하는 마약이였다.

피뢰서울예술단은 이따위 《예술》을 통해 인민들의 이목을 민족적대렬과 계급적갈등이 첨예화된 남조선현실에서 떼내어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를 추구하는데로 이끌어감으로써 그들의 혁명정

신과 투쟁의욕을 짓밟아뭇개려고 획책하였던 것이다. 결국 괴뢰서울예술단은 이번에 온 겨레를 향해 저들이 민족화합과 신뢰를 이룩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지녔다면서 《전통문화》가 어떻고 《현대예술》이 어떻다고 별의별 너스레를 다 떨었지만 그 막뒤에서는 음흉하게도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민족적존엄을 말살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목적을 실현해 주기 위해 날뛰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 대고 막대겨누듯 그들이 얻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원썩놈들의 사환군으로 전락된 저들의 추악한 물골만을 세상에 드러내놓았을뿐이다.

우리는 여기에 괴뢰서울예술단이 민족앞에 저지른 대국배족적인 죄행과 남조선예술의 반동적이고 반인민적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력사는 민족자주의식과 자부심이 강한 인민은 필승불패이고 그 녀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신성한 조국땅에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 소중한 녀를 더럽히는 예술 아닌 《예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비극이다.

썩어빠진 력사의 오물을 매장해버리고 우리의 주체예술이 남녘땅에서도 찬란히 빛을 꾸리게 될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통일문

-3대혁명전시관 통일문모형앞에서-

한용걸

통일문, 통일문아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던것이더냐
얼마나 기다리며 그리던 문이더냐
분렬의 40여년 미여지는 아픔을
너는 이기고 모험으로 솟았나니

열밤 자면 온다던 어머니와 그 약속
감배낭 메워주면 흰옷자락 끝던 소리
아직도 눈에 삼삼
귀에 쟁쟁

생시에도 만나고
꿈에서도 만나자고
복이 남을 찾고
남이 복을 불러
원한의 장벽에서 메아리로 울리더니

원한의 장벽을 허물고 네 섰구나
통일문, 통일문아
네 단상우에
어버이수령님 모시려는 인민의 지향
5천만의 통일열망 문주마다 차넘쳐
그저야 못떠나리

내 가슴에 만가슴에
그날의 통일 만세 환호소리 젖어들어
령남의 대숲이 솟구며 밀려와
울며들썩이는 포웅소리...

오, 통일문, 통일문아
내 생활의 벽참도
어려움을 이겨감도 그때문이였더냐
한치의 천을 짜도 형제들의 땀으로
집 한채 지어도 혈육들을 그리며
통일의 광장으로 이 마음 달리거니

그 어떤 호화건축술로야
어찌 너를 헤아리라
바라고바라던 겨레의 념원이
쌓이어 기둥되고 보되어 이뤄진 탑
통일문아, 떠나도
너를 안고 나서는 이자리

우리 세대에 통일환호 울리기전에는
늙어서도 늙으므로 살수 없는 몸이기에
그날의 환희속에 잠겨보는 이자리다
맹세속에 가슴을 불태우는 이자리다!

세월과 혈육

럼우봉

(1)

총을 메고 떠나는 이 오빠를
따라오며 바래주던 내 누이
마흔해를 못잇는 그 모습인가
세월의 락엽이 깊이 파묻은
덕재우에 덧찍힌 흰 코신자국
아, 그밀에 새겨진 《삼천리》표여!

(2)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동구밖에 백발로 서계시더니
이제는 내 귀밑머리에도

흰서리 내리였구나
흰 귀밑머리 쓸어만지니
모질어도 저미는 이 가슴
아, 백발이, 이 백발이
갈라진 조국에도 엮어질가봐...

(3)

개성역에 들어선 렬차의 기적소리
한세월 사무친 이 마음 흔들이라
해빛찾아 이제라도 달려올
내 어머니, 내 누이 마중할날
그날 위해 늙지 않는 이내 삶이어!

너도 길이 막혀 슬피 우느냐

한상호

너도 길이 막혀 슬피우느냐
너도 길이 막혀 목놓아우느냐
남녘의 바다를 바라보며 멈춰선
우리 배전을 오가며 울어에는
갈매기, 갈매기야

피타게 울어에는 너의 울음소리
내 가슴에 안으니
못견디게 들려오누나
남해가에 두고온 딸애의 목소리
총잡고 떠나올 때
마당가에 따라서며
아버지를 부르고부르던 그 목소리

몇해나 흘렸느냐
다섯개의 탄피를 쥐여주며
다섯밤 자고 간다던 그 약속이
하늘땅 바다우에 무겁게 드리운
이 원한의 장벽에 부딪쳐
그 몇몇 해나

말하여다오
세살적에 헤어져
서른이 넘은 어머니가 되었을 그 애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너의 흰 날개에 꿈을 얹으며
하루에도 그 몇번
내 마음 남녘을 날았던가

알리어다오
긴긴 세월 헤어져 알수 없는
남녘의 소식! 혈육의 소식!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고부르다
죽어서 자유의 댁이 되어
갈매기야, 네가 여기 온것 아니나

알리어다오
금도 그을수 없고
칼로도 벨수 없는 물우에조차
원쑤-미제는 장벽을 쳤어도
끓을수 없는 혈육의 마음처럼
남북을 자유로이 오가는 새야!

파도가 인다
갈라져 30여년의
쓰디쓴 민족의 아픔
파도가 되어 선창을 두드리고
바다가 되어 가슴치나니

날아가다오
살벌한 남녘의 거리와 마을을
투쟁의 바다로 부르며
투쟁으로 해를 맞고
투쟁으로 날을 맞아
원쑤 미제를 내모는 길에
통일의 그날은 밝아오려니

갈매기, 갈매기야!
갈라진 조국을
수령님과 지도자동지의 뜻으로 잇고
남북의 겨레 얼싸안는 날
너도 기뻐서 기뻐서 울리라
장벽없는 통일의 바다를
마음껏 날아예리라

풍자시

돌밖에 모르는 전두환

김경기

만팔라

한잎을 쥐어줄 때도

5천팔라

두잎을 쥐여줘야 흐뭇해하는

그래서 그 이름도 두환이라 부르는

《전각하!》

그래서 하나의 땅덩어리

영영 돌로 잘라 잡수시겠단다

전기철조망 돌돌 분계선에 감아놓고

콩크리트장벽 높이 쌓아놓고

핵폭발 액체가 흐르는 관을

히이허이 미국에서 메여다가

분계선에 묻어놓고

유엔에 가서도

돌, 돌!

국제국회의회 서울에 벌리고도

돌, 돌…!

그래서 욕심많은 손주녀석을 얼려도

손에 쥔 떡을 잘라 두손에 쥐여주며

물고기도 잘라 두 절끝에 갈라주며

돌이다 돌! 아가릴 닥쳐라! 하옵시고

그래서 미국어르신님

일본어르신님

제 모시는 상전도 돌이요

그래서 조선도

《남북으로 돌이 아닌가》 하옵시고

돌을 그렇게도 좋아하신다면야

그 소원 기꺼이 풀어주지 못하랴

콩크리트장벽을 번쩍 들어

으쩍 갈라주마

네 이름이 두환이인것처럼

네 대갈통도 두개의 환으로!

그 돌밖에 모르던 두개골

거적떼기에 돌돌 말아

돌이 그렇게도 필생의 소원인

너의 두 상전에게 《선물》로 주마!